

김 명 석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 백석 서술시의 교수방법 연구

2005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은

# 백석 서술시의 교수방법 연구

김 명 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 은

# 인 준 서

김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한 영 옥 (인)

심사위원 강 진 호 (인)

심사위원 김 명 석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본고에서는 그 동안의 백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수용하면서, 현장 중심·학습자 중심으로 요약되는 제 7차 교육과정에 적합한 백석 서술시의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대시 중에는 전통적으로 시의 핵심요소로 여겨져 온 요소 및 관습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일탈되는 면모를 보이는 시들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의 시학에서는 서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서술이 인간의 언어, 행위,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소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의 은폐된 의미를 들추어 내는 하나의 인식론적인 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수용하여 백석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인 서사 양식의 도입을 통해 학습자들이 시의 본질에 대해 재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이야기의 구조가 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백석의 시는 당대 모더니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단순한 기교차원의 차용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에 토속적인 생활 체험을 조화시켜 기존의 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자들은 백석의 시에서 보이는 이러한 모더니즘과 토속적인 세계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대개가 백석 시의 고향 의식의 탐구에 주력하거나 이미지나 방언, 혹은 표현 기법의 논의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백석이 모더니즘을 수용했으면서도 주체적으로 우리 토양에 맞게 변용하였고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서술양식의 도입이 이루어졌음을 고찰하였다.

먼저 서술시의 장르 개념을 통해 서술시란 이야기나 사건의 내용이 서술적 구조를 통해 형상화된 시로 기본적으로 서정시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한 방법임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서사와 서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는

빠르게 서술화되고, 나아가 서술 자체가 과편화되는 경향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속에 들어 있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전달·소통되는 과정을 포괄하는 ‘서술시’라는 명칭이 올바른 자리 매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서술 양식의 다양한 변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백석 서술시의 실제에서는 의의, 형상화 양상, 서사적 구성요소로 나누어 작품 분석을 통하여 접근하였다. 백석은 당대 어느 유파나 동인에도 가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시 세계를 구축하는데 그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서사양식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민족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민족의 원형을 회복함으로써 역사의 주체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다. 이는 다른 장르에 비하여 주관적인 정서의 표현을 강조하는 서정시의 틀 안에서는 당대의 암울하고 복잡한 상황을 형상화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실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시화하기 위한 형상화 방법 중의 하나로 서사 지향성, 즉 이야기나 사건의 전개와 도입을 통해 서정시의 개념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백석 시의 특징은 학생들이 문학교육을 통해 그 사회의 문화에 입문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갖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술시의 교수-학습 방안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지향점인 현장 중심·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학생들이 시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감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방법, 즉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탈피하여 학생 중심의 발표, 토론식 수업으로 전환하는 데 적합한 지도 방법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1)전체적 접근, (2)부분적 접근, (3)종합적 접근, (4)발전적 접근’으로 세분하여 텍스트에 대한 느낌 형성, 해석, 의미 확장, 내면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의 내면에 수용된 작품은 그들의 내면에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삶에 대한

또 하나의 스키마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큰 틀을 중심으로 7차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백석의 「여승」을 제재로 삼아, 재진술된 이야기와 시로 정제된 ‘서술시’를 비교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학습자들이 시의 본질에 대해 재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이야기의 구조가 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매체인 만화로 시의 세계를 재창조하게 하고 재진술된 이야기를 소설로 쓰게 함으로써 문학 교육의 목적인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학습자 중심의 발표·토론식 수업의 시 지도 방법은 시 교육이 흥미 있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시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 정해져 있는 방법이나 규범화 된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창의적 해석을 중요시 여김으로써 창의적인 인간 형성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곧 7차 교육과정의 목표인 창의적 사고를 신장하며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 위함인 것이다. 하지만 이 교수-학습 방안은 시 교육에 어느 정도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줄 뿐, 실제 수업 현장에서의 적절성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보안점이 검토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방법	1
2. 연구사 검토	7
II. 서술시의 장르 개념	12
1. 서술시의 의미와 특성	12
2. 서술시의 전개 양상	17
III. 백석 서술시의 실제	22
1. 서술시의 의의	22
2. 서술시의 형상화 양상	29
3. 서술시의 서사적 구성요소	57
IV. 서술시의 교수-학습 방안	74
1. 교수-학습 방안의 실제	77
2. 수업 지도안의 실제	113
V. 결론	120

참고문헌

ABSTRACT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방법

백석은 1930년대 한국 시문학사의 흐름을 대표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35년 『조선일보』에 「정주성(定州成)」을 발표하면서 시단에 등단했다. 그 후 1936년에 발표된 백석의 시집 『사슴』은 100부 한정판이었음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단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김기림이 “거의 鐵石의 冷談에 匹敵하고 不拔한 精神”<sup>1)</sup>을 지녔다고 크게 평가한 것이나, 박용철이 “郷土의 生活을 제 스스로의 強烈에 依하여 必然의 表現”<sup>2)</sup>을 하였다고 극찬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김기림과 박용철이 1930년대 문단의 흐름을 이끈 비평가라고 볼 때, 그들의 백석에 대한 관심은 백석이 당시 문단에서 주목받는 시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렇게 1930년대에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오랫동안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불행한 시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는 백석이 남북·월북 시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북한에 적을 두고 있었던 재북 시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국어과 교육, 특히 현대시 교육에서도 백석이 배제되었던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80년대에 들어 이루어진 남북·월북 문학인들의 문학 작품 해금조치 이후에 비로소 백석 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백석 시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된 만큼 교육적인 관심도 증가하여 6차 교육과정 이후 백석의 시가 교재에 수록되기까지에 이르렀다.

백석은 1930년대 시인 중에 독특한 시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

1) 김기림, 「『사슴』을 안고」, 『조선일보』, 1936. 1. 29.

2) 박용철, 「白石詩集 『사슴』評」, 『朴龍喆全集』, 東光堂書店, 1942. p.122.

있다. 백석의 시집이 발간되던 1936년은 모더니즘의 영향이 문단 전체를 압도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정지용의 『정지용 시집』이 발간되었고, 모더니즘의 동인지라 할 수 있는 『3·4 문학』(1934)이 계속 간행되었으며,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1936)이 창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기림의 「오전의 시론」(1935)과 「기상도」(1936) 등이 발표되어 모더니즘의 이론과 창작 기법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백석이 시집을 간행했을 때에는 그가 『조선일보』 기자로 있을 때이고, 더욱이 김기림이 『조선일보』 직장 선배로 같이 재직하고 있었다. 또한 백석이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사실까지 유의한다면, 그가 모더니즘의 이론을 그의 창작 기법에 적용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백석의 시에서 보이는 감정의 절제라든가, 초기시에 드러나는 이미지 중심의 사물시 경향은 분명히 이미지즘의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sup>3)</sup>

그런데 백석의 이미지즘 차용은 단순한 기교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민족의 구체적 삶과 연관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백석은 모더니즘적인 기법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에 토속적인 생활 체험을 조화시켜 기존의 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 우리가 백석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기존의 논자들은 백석의 시에서 보이는 이러한 모더니즘과 토속적인 세계를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 대개가 백석 시의 고향 의식의 탐구에 주력하거나 혹은 이미지나 방언, 혹은 표현 기법의 논의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백석이 모더니즘을 수용했으면서도 주체적으로 우리 토양에 맞게 변용하였고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서술 양식의 도입이 이루어 졌음을 밝히고자 한다.

백석의 서술 양식의 도입은 바로 당대 현실 사회를 반영하기에 용이한 것

---

3) 최두석, 「백석의 시세계와 창작 방법」, 『우리 시대의 문학 제 6집』, 문학과지성사, 1987. p.257.

이기에 이루어 졌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통의 맥락 속에서 사고하며 시를 쓰고자 하는 시적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즉 그의 시는 민족의 전통적 양식인 서사성에서 찾는다.<sup>4)</sup> 일제 강점기라는 당대 현실 사회에 대한 자각은 민족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민족의 원형을 회복함으로써 역사의 주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따라서 그가 의도한 시적 세계는 조국 상실에 따른 민족 복원에 있다.

문학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문학을 내면화하는 문제에 연관되지만 그와 동시에 집단 의식과 연관되는 사회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점에서 백석 시의 위와 같은 특징은 학생들이 문학교육을 통해 그 사회의 문화에 입문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갖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술시라는 다소 생소한 양식을 접하면서 현대시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II장의 ‘서술시의 장르 개념’에서는 서사시, 서술시, 이야기시, 장시 등으로 지칭되는 서사성 강조의 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시에서 서사적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장르의 침해로 간주될 것이 아니라 서정 장르의 영역 확장, 즉 서정 장르의 한계를 극복·지양하기 위한 가능성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 현대시에 나타

---

4) 김준오는 그의 저서에서 서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고전 시가든 현대 시든 서술시, 즉 이야기시는 우리 시의 한 전통 양식으로 규정한다. 우리 고전 시가도 중국의 『시경』 시편들처럼 서술시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우리 시의 전통 양식인 만큼 문학사의 각 단계마다 역사적 장르들로 생성되면서 발전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서술시의 역사와 함께 서술시의 연구도 한 특정의 시기에 제한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언제나 장르론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문학사의 문제로 본다. 서술시는 짙막한 서사무가의 형태로 발생, 이후 시대의 장르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서술시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을 역사적 전통 양식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김소월을 비롯한 식민지 시대의 민요시들과 식민지 후반 백석 시를 비롯한 많은 자유시들도 행위와 사건이 지배소가 된 서술시들로 명명한다. 한편 김기진이 ‘단편 서사시’로 명명한 임화의 「우리 읍바와 화로」는 카프의 대중화론과 연관된 점에서 주목되는 서술시로 평가되고 있다.

김준오,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pp. 56 ~ 75.

5)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7. pp. 14 ~ 15.

난 서술 양식의 다양한 변용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이는 20년대 김기진에 의해 단편서사시로 명명된 입화의 「우리옴바와 화로」부터 70년대 이후의 민중시의 전사라 일컬어 지는 백석의 시, 그리고 최근 현대시에서 서술시가 전통의 리얼리즘에서 반리얼리즘으로 전환되는 현상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서술시의 성격과 본질을 어느 정도 이해함과 동시에 서술시의 모습 역시 다양한 변주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Ⅲ장의 ‘백석 서술시의 그 실제’에서는 백석 시의 주된 특질로 지적되어 온 서사적 경향을 그만의 독특한 세계 인식의 결과요 표현상의 특질로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1절 ‘서술시의 의의’에서는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과 모더니즘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백석의 시 세계에서 보이는 방언에의 집착, 다채로운 음식물, 가족 공동체와 부락 공동체의 지향 의지 등은 일체에 맞서 우리의 고유한 것을 지키려는 강한 몸짓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번잡하게 여러 말을 주워 삼키는 사설조, 즉 민요나 사설시조, 그리고 판소리에서 흔히 보이는 서술 기법인 엮음 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전통을 변용·발전시킨 사실은 백석 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본고에서는 이를 백석 시의 의의로 논의한다. 또한 1930년대 문단의 조류였던 모더니즘 중 이미지즘을 수용하면서도 다채롭게 변용시켜 나갔다는 데 또다른 의의를 찾고자 한다. 백석의 이미지즘 차용은 단순한 기교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민족의 구체적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지용이 탈인간의 자연에 초점을 두었고, 김기림이 외형적인 도시 풍경을 수용했으며 김광균은 시각적 이미지에 의한 풍경묘사의 즉물시적 경향에 빠졌다면, 백석의 시는 그 당시의 가장 보편적이며 구체적인 생활 현실을 이미지즘의 방법과 결속시켰던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구화의 격랑 속에서도 전통적인 것들을 외면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미지즘과의 변증법적 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논의하고자 한다.

2절, ‘서술시의 형상화 양상’의 세부 항목으로 객관적 현실 반영과 민중적 삶의 복원을 논의하고자 한다. 백석의 서술 양식의 도입은 보잘 것 없고 하찮은 민중들의 삶의 세목들을 낱낱이 드러내줌으로써 민족적인 삶의 원형을 재구하고 당대의 현실사회 의식을 반영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즉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민족·민중적 삶의 원형과 그 정신을 복원하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두 세부항목을 백석의 여러 시를 예로 들어 일제 강점기 민족현실의 객관적 반영과 고향의 다양한 풍물을 통해 회상되고 재구되는 역사 주체자로서의 민족복원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3절, ‘서술시의 서사적 구성요소’에서는 서사의 구성요소, 즉 배경, 인물 사건, 대화가 그의 시에 어떻게 결합되어 당대의 작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백석은 감정과 사물의 적절한 거리 설정을 위하여 그의 시에 서사성을 도입한다. 이때 서사적 요소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사에 대하여 제랄드 쥬네트는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하고 있다.<sup>6)</sup> 첫째, 하나의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을 말하되 서술적 진술로 된 것, 둘째, 담론의 주체와 그들이 만들어 내는 사건들을 포함할 것, 셋째, 사건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언급한 화자를 둘러싼 사실이나 서술하는 그 자체를 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규정을 놓고 보면 결국 서사의 개념은 ‘이야기의 재현’이라는 축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채트먼은 이야기의 요소로서 사건적 요소의 행위(돌발사)와 사물적 요소로서의 인물과 배경을 중시하고 있다.<sup>7)</sup> 그런데 백석의 시에는 이러한 서사적 요소가 적절하게 시 속에 변용되어 대상과 거리를 객관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시 속에 서사성을 도입함으로써 사건을 구체화시키고, 시에 사실성을 부여함으로써 독자 앞에 당대의 사건을 생생하게 전

6) 제랄드 쥬네뜨, 『서사담론』, 권영택 역, 교보문고, 1992. p.15.

7) Seymour Chatman, Story and Discourse-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 『이야기와 談論』, 고려원, 1990. p.179.

해 준다. 이는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시켜 독자를 그 당대의 비극성 속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서사의 구성요소를 배경, 인물, 사건으로 나누는 채트먼의 의견을 따른다. 하지만 여기에 대화를 보충하고자 한다. 백석의 시에는 ‘대화’가 이야기 형식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대화 또한 주로 작중인물의 행위라는 점에서 사건적 요소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Ⅳ장, ‘서술시의 교수-학습 방안’에서는 앞서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교수-학습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로 인해 소외된 통일문학이 교과서에 수록되었지만, 6차 교육과정 안에서 제대로 된 시 교육과 학습자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작품 중심, 제재 중심,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 7차 교육과정의 편성에 맞는 시 교육을 문화적인 맥락과 연결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문학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학습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7차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백석 「여승」을 제재로 서술시의 교수학습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적용하기로 한다. 이는 백석의 많은 시편들 중에 사회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특히 서사적 요소인 이야기를 도입하여 당대의 암울한 생활상을 잘 형상화시키고 있다. 즉, 식민지적 삶의 정황을 묵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금딤판’이라는 시적 배경과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기구한 사연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준다. 이러한 인물은 부정적 시대 현실에서 회생당한 우리 민중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리한 여인’과 주변 인물로 딸아이를 설정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또한 회상 수법을 사용하여 시간을 변조하고 이를 통해 여승의 짧은 진술 위에 화자가 적극적으로 상상의 옷을 입혀 여인의 기구한 삶을 객관적인 관찰자의 위치에서 구체화시킨다. 이와 같이 서술시의 특성이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날것인 이야기와는 달리 풍부한 서정성도 담겨있어 시의 본질적 특성과 이야기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제재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을 한 가족의 몰락을 통해 보여주면서 학습자에게 그들이 속한 집단의 사회 문화적 이해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2. 연구사 검토

1930년대 이후부터 남·월북 작가 작품에 대한 해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백석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것에 머물렀다. 백석은 남·월북 시인이 아니라 재북 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분단에 의한 경직된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따라 그의 시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가질 수 없었다. 그러다 1980년대 말 이후부터 백석 시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지금까지 그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었다.

백석 시에 대한 연구는 시집 『사슴』에 대한 김기림, 박용철, 오장환의 당대 비평에서 비롯된다.

김기림은 시집 『사슴』의 세계는 동화와 전설의 나라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향토주의에도 불구하고 주착 없는 일련의 향토주의와는 명료하게 구별되는 모더니티를 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sup>8)</sup>

박용철은 백석 시의 평안도 방언에 주목하여 ‘母語의 위대한 힘’을 깨닫게 된다고 지적하고, 백석이 생생한 기억력에 의해 향토 생활의 시편을 쓰고 있으며 눈앞의 광경을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표상하여 제공하는 시인이라 평가했다.<sup>9)</sup>

오장환은 백석을 스타일만 찾는 모더니스트로 보고, 그의 시는 사투리와 옛이야기, 연중행사의 묵은 기억 등을 질서 없이 공간에 벗삼 쌓듯이 구겨 넣는 데 지나지 않는 것<sup>10)</sup>이라고 부정적으로 파악하며 당대의 평가와는 상

8) 김기림, 「『사슴』을 안고」, 『조선일보』, 1936. 1. 29.

9) 박주택, 『낙원회복의 꿈과 민족정서의 복원』, 시와 시학사, 1999. p. 14. 재인용.

10) 오장환, 「백석론」, 『풍림 5호』, 풍림사, 1937. p.14.(최두석편, 『오장환전집 2』, 창작과비평사, 1989. 재수록.)

반되는 평가를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1930년대 당대 비평은 방언의 사용, 모더니즘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었으며, 대체로 당대의 모더니스트들은 백석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리얼리스트들은 비판적으로 파악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 후의 백석에 대한 평가는 백철, 유종호, 김종철, 유태수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백철은 백석의 시에서 “놀박한 민속담을 듣고 소박한 시골 풍경화를 보고 구수한 흙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면서, 민속적이고 향토적인 것이 평안도 사투리와 조화되어 있다고 보고 민속은 백석 시학의 출발점ियो, 결론이라고 언급하였다.<sup>11)</sup>

유종호는 백석의 시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을 한국인의 생활철학과 인생관을 집약한 대표적인 서정시로 파악하며 극찬한 바 있다.<sup>12)</sup>

김종철은 백석의 시는 상실된 고향 그 자체를 묘사하는데, 그 묘사가 매우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한국인의 보편적인 고향을 느끼게 한다<sup>13)</sup>고 했다. 그리고 백석 시의 언어와 고향의 형상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향은 우리 민족 근원의 이상적인 공간이며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낸다” 라고 했다.

유태수는 백석 시가 보여주는 풍속의 모습을 역사와 연결하고, 시적 언어의 구사에 대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언급했다.<sup>14)</sup>

백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 김명인, 고행진, 이승원, 박태일, 이동순, 최두석 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김명인은 백석 시가 가지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는 방언의 구

---

11)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당, 1949. p.249.

12) 유종호, 「한국의 폐시미즘」, 『현대문학』, 1961. p.82.

13) 김종철, 「30년대 시인들」, 『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8. pp.40 ~ 45.

14) 유태수, 「1940년대 전후의 시정신과 그 형상화」, 『관악어문연구』 제4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9. pp.92 ~ 96.

사와 백석 시의 고향 회귀를 자신의 유랑시절 경험에서 얻은 내면의식의 반영이라 보고 당대의 표랑 의식과 관련되는 것이다<sup>15)</sup>라고 언급했다.

고형진은 “극도의 상실된 세계 내에서 현실과의 대결의식보다는 지난 날의 기억 속에서 자아 동일성의 노력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16)</sup>고 언급했다. 이는 백석 시에 나타나는 민속 탐구가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민족적 일체감의 확인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승원은 “친근한 고향의 사물을 통하여 자신의 고향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상실감을 극복하고 있다”<sup>17)</sup>고 언급했다. 또, 시어의 쓰임새와 관련하여 그의 시 세계를 늘변의 미학으로 규정했다.<sup>18)</sup>

박태일은 백석 시에 나타난 공간을 ‘주거적 공간’에 적용시켜 분석을 하였는데, 그 공간은 우리의 혈연적 체험이 배어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변하지 않는 본래의 고향을 재발굴하여 방어하려는 민족적 자아 동일성 확보라는 적극적 문맥을 갖는다고 했다.<sup>19)</sup>

이동순은 백석 시의 합일지향적 성격이 무너진 시대의 모국어 발굴과 공동체 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민족주의에 기초한다고 보았고, 백석의 이름 앞에 ‘민족시인’이라는 칭호를 붙임으로 그의 주체적 시 정신을 높이 평가했다.<sup>20)</sup>

최두석은 해방 이전 작품의 창작방법을 중심으로 백석 시의 변모양상을

---

15) 김명인, 「백석시고」, 『우보 전병두박사 화갑 논문집』, 1983. (고형진 편, 『백석』, 새미, 1996. p.27. 재수록.)

16) 고형진, 「백석 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3. pp.58 ~ 62.

17) 이승원, 「『문장』지에 나타난 고향의식 시고」, 『국어교육 제 36호』, 1980. p.170. 재인용.

18) 이승원, 「풍속의 시학과 늘변의 미학-백석론」, 『한국 시문학의 비평적 탐구』, 삼지원, 1985. p.162 ~ 163.

19) 박태일, 「백석 시의 공간의식」, 『국어국문학 21집』,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p.51.

20) 이동순 편, 「민족시인 백석의 주체적 시정신」, 『백석시전집』, 창작과비평사, 1987. pp.166 ~ 167.

모더니즘의 세레, 고향재현, 유랑과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또 백석 시의 표현 대상은 사건이며 사건을 중심으로 당대의 민족 현실을 드러내며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의 대표적 작품으로 「여승」 들었다.<sup>21)</sup>

이상에서 살펴본 백석 시에 대한 연구는 그의 시 세계의 다양한 특징들인 방언, 고향의식, 리얼리즘, 민족 문학적 측면 등을 두루 대상으로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문학교육 또는 시 교육의 차원에서 백석 시를 독립적인 논의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석 시를 텍스트의 일부로 삼아 시 교육의 문제를 검토한 김창원과 윤여탁의 글은 매우 주목된다.

김창원은 서술적 해석 모형의 시 텍스트로 「여승」을 들고 있다. 서술적 텍스트의 해석은 작자와 독자의 긴밀한 상호작용 과정으로 작자는 ‘이야기꾼’의 역할을 하고, 독자는 그 이야기를 읽으며 이미지를 형성하고, 거리두기를 통해 자신의 삶으로 내면화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의 특질은 작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 준다는 것이다. 「여승」의 텍스트는 표면상으로는 ‘여승’에 관한 서술이지만, 시적 화자는 「여승」을 통해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우는 한 파리한 여인의 ‘삶’을 말하고 있다. 작품에 서술된 여인의 삶의 이면에는 30년대 후반의 농촌 현실과 유이민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서술적 텍스트는 지시 대상에 대한 작가의 의도가 직접 반영된다는 점에서 작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발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모형은 독자와 작가의 소통구조 속에서 작가는 거리 두기 책략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생략된 정보를 추론하여 상상하여 내면화하는 시 읽기의 기본틀로 작용한다<sup>22)</sup>라고 말했다.

윤여탁은 현대시 교육에서 시의 갈래적 특성을 지도할 때의 유의점을 논

21) 최두석, 「백석 시 세계와 창작방법」, 『리얼리즘의 시정신』, 실천문화사, 1992. pp.34 ~ 37.

22) 김창원, 『시 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pp.175 ~ 180.

의했다. 「여승」처럼 이야기가 들어 있는 시는 ‘서술시’ ‘이야기 시’ 등으로 불려지는데, 이런 시의 갈래를 지도할 때 기본적인 시 갈래의 제시 후에 서술시의 개념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 시의 기본 갈래를 내용상 서정시, 형식상 자유시로 규정했다.<sup>23)</sup>

이상에서, 「여승」을 예로 서술적 텍스트의 해석과 시 갈래의 교육과 연관시킨 논의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풍부한 시를 예로 들어 논의되지 못한, 단편적인 시 교육 방법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백석의 서술시적 측면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서술시 구성요소, 즉 배경, 사건, 인물, 대화의 기능으로 세분하여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교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여승」을 예로 들어 전개하고자 한다.

---

23) 윤여탁, 「시의 서술구조와 시적 화자의 기능」, 『시와 리얼리즘 論爭』, 소명출판, 2001. p.377.

## II. 서술시의 장르 개념

### 1. 서술시의 의미와 특성

서사 지향적인 시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의 문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김동환의 「국경의 밤」에 대해 김억이 서사시로 처음 언급한 이래, 그동안 김우중, 홍기삼, 오세영, 조남현, 오양호, 김홍기, 김용직, 염무웅, 장윤익, 김재홍, 김준오, 민병욱, 이동하, 고희진, 윤여탁, 남승우 등 여러 논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 논의들은 크게 박사 세 부류로 나뉘어 질 수 있겠다. 첫째, 서구의 전통적인 서사시 기준에 적용시킨 논의<sup>24)</sup>가 있고, 둘째,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에만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이론<sup>25)</sup>, 또는 서사시 성장 혹은 변용론<sup>26)</sup> 등 다소 유연한 입장이 있다. 셋째로 어떤 특정한 작품이 서사시로서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명칭으로 불리어지게 되든 그 작품이 당대의 문학적 단계에서 진정으로 창조라 할 만한 것을 제대로 이룩해 냈느냐 아니냐”<sup>27)</sup>에 따라 서사시적 가치를 인정하려는, 어떤 면에서 볼 때 탈장르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

24) 오세영, 「국경의 밤과 서사시의 문제」, 『국어국문학 75호』, 1977. p.108.

김홍기, 「국학논총어문연구」, 한양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p.96.

25) 장윤익, 「한국 서사시 장르에 대한 연구」, 『인천대 논문집 6집』, 1984. p.225.

26) 조남현, 「김동환의 서사시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논총 11집』, 건국대, 1978. p.72.

김용직, 「근대 서사시의 형성과 그 성격」,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1982. pp.12 ~ 13.

김재홍, 「한국 근대 서사시와 역사적 대응력」, 『문예중앙』, 1985. 가을. p.181.

윤여탁, 「해방 정국의 현실 인식과 역사적 전망」, 『시의 논리와 서정시의 역사』, 태학사, 1995. pp.312 ~ 313.

27) 염무웅, 「서사시의 가능성과 문제점」, 『한국문학의 현단계』, 창작과비평사, 1992. p.15.

대체로 서사시 긍정론자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논리에, 부정론자들은 첫 번째의 논리에 입각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은 어떠한 입장에 서있든 우리 서술시 논의를 위해 매우 귀중한 자양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위의 논의들을 자양분으로 하여 서술시의 개념과 장르를 살펴볼 때, 우선 부딪히는 문제가 서술시가 서사시, 혹은 장시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서술시(narrative poetry)는 이야기나 사건의 내용이 서술적인 구조를 통하여 형상화된 시이다. 이처럼 시에 이야기나 사건을 도입하는 서술시는 기본적으로 서정시 갈래에 속한다. 즉 서정시라는 전통 장르에 서사적 요소를 도입하여 서정시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한 방법으로 쓰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시에서는 사건이나 이야기 자체보다는 이야기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객관적 상황이나 그 정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서정시에 서사적 특성을 도입하여 서사 지향성을 보이고, 이를 통하여 정서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주나 천하, 천국과 같은 광대한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위대하고 영웅적인 주인공의 이야기가 거기에 어울리는 장중한 문체와 운율 형식으로 기술되는 서사시(epics)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서사시가 한 영웅의 일대기를 통하여 삶의 총체상을 그리고 있는 비교적 긴 시 형식임에 비하여, 서술시는 짧게는 수 행에서 길게는 수십 행 이내의 내용을 통하여 나름의 시적 이야기나 인물을 형상화하는 양식이다.<sup>28)</sup>

서술시는 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장시(long poetry)와도 구별된다. 서술시는 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독자의 정서나 감동을 유발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장시는 수십 행씩 어떤 상황이나 사건, 이야기에 대한 작가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만이 반복적으로 나열된다. 이러한 장시 개념에 대해, 김재홍은 “장시란 장르 명칭이라기보다 서정시의 길이에 따른 형식적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

28) 윤여탁, 「서술시와 리얼리즘」, 『리얼리즘의 시 정신과 시 교육』, 소명출판, 2003. p.94.

.” 29)는 입장이고, 김준오 역시 길이가 장르의 한 조건이고 장르 변화의 요인이긴 하나 길이만으로 장시라는 독립된 장르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통일된 계획이나 구성 아래서 단일 주제로 통일되어야 하는 조건도 장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장시는 차라리 짧은 형태의 자기 표현이라는 좁은 의미의 서정시를 탈피한 새로운 시 형태로 서정시의 하위 부류에 귀속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지 모른다는 입장을 제시한다.<sup>30)</sup> 이는 장르적 비평에서 볼 때 온당한 지적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서술시와 혼재되어 구별 없이 쓰이고 있는 이야기시에 대한 논의도 서술시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김우창은 「신동엽의 ‘금강’에 대하여」에서 ‘이야기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sup>31)</sup> 황병하 또한 ‘이야기시’를 제안한다.<sup>32)</sup> 황병하는 서사시를 전통적인 서구 개념의 서사시와 서사시가 소설로 전환되고 난 이후의 서사시를 구분하고자 한다. 즉 분화 이전의 서사시가 가진 신적, 국가적, 지배적 차원의 역사에 대한 시화(詩化)가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개념이 다양화됨에 따라 민중적, 피지배자적 차원의 역사에 대한 시화 또한 서사시의 영역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황병하는 분화 이후의 서사시를 이야기학(narratology)에 의존해 이야기시라고 부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시’라는 명칭은 이야기로써의 사건을 담고 있는, 즉 이야기가 바로 사건들 자체를 가리키는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 서술시의 의미를 매우 한정시키는 한계가 있다. 구조주의 서사학에 의하면, 이야기는 시간 순서나 인과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한 것, 말하자면 문학의 재료 수준인 반면, 서술은 이런 연대기적 인과적 순서를 혼란시

29) 김재홍, 「한국근대서사시와 역사적 대응력」, 『문예중앙』, 1985. 가을. p.192.

30) 김준오, 「한국근대문학의 장르론에 대한 연구」, 『한국문학개론』, 삼영사, 1986. p.311.

31) 김우창, 「신동엽의 ‘금강’에 대하여」, 『창작과 비평』, 1968. 봄호. p.253.

32) 황병하, 「라틴아메리카의 이야기시」, 『시와 사상』, 1996. 여름호. p.175.

키는 이른바 낮설게 하기 기법의 산물로서 플롯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와 서술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런 대립은 서술 내용과 서술 행위, 서술 내용의 주체와 서술 행위의 주체, 이야기 시간과 서술의 시간 등 대립되는 여러 짝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이야기시’라는 명칭은 시의 내용으로서의 이야기에 한정되고 있어 이야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학적인 문제들이나 의사소통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까지는 포괄하기가 어렵다. 바로 여기에서 서사 지향적인 시를 ‘서술시’로써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서술시는 시 속에 들어 있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전달 소통되는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술’이란 원래 인식의 양식인 동시에 설명의 양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sup>33)</sup>

서술이 소설 해석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의 은폐된 의미를 들추어내는 하나의 인식론적인 틀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서정성의 틀 안에서 정의되어 온 시에 대한 개념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실은 시의 중요한 속성이면서 종종 서사성과 대립적인 것으로 이야기되어 온 서정성에 대한 부정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긍정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의식 하에서 시의 서정성은 서술성의 측면에서 새롭게 발견될 수도 있고, 서정성과 서사성 사이의 긴장을 통해 새로운 미학을 성립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가 기존의 서정성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나 빠르게 서술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언어·행위·문화 전반이 점점 탈경계화·탈범주화·탈영토화 되면서 기존의 서정성의 양식으로는 그러한 현상을 형상화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그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서술화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서술은 그것이 이야기는 물론, 담론의 양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이론화하고 실천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코드이다. 특히나 80년대 서술시의 경향 중의 하나가 이성복이

33) 김준오, 「서술시의 서사학」, 『한국 서술시의 서사학』, 태학사, 1998. pp.17~18.

나 황지우의 시에 드러난 것처럼 서술 자체가 과편화되고 있다는 점은 서술시라는 명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전제일 것이다. 서술의 흐름 자체가 “인과성을 벗어나 우연성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서술시가 보여주는 통일성·질서·조직·압축” 34)을 철저히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서술시라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코드로 밖에는 규정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 이보다 좀더 넓게 잡으면 1930년대 후반에서 해방되기까지 집중적으로 활동한 백석은 어느 특정 유파나 시적 경향성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그 나름의 특유한 시 세계를 튼튼하게 구축한 시인이다. 김기림이 지적한 대로 백석 시의 특징을 유니크(unique)한 점, 다시 말해 백석 시 작품의 ‘독특함’이 바로 방언을 바탕으로 한 서술시에 입각한 그의 시 세계이다. 어느 한 특정 부분에서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 전반에서 ‘서술시’적 특성을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그의 시적 노력이 백석 시 전반에 다양하게 형상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백석 시에서 이러한 서술시의 도입은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형상화함에 있어 주관화의 경향에 함몰하지 않고 시적 대상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시적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기성 서정시으로써는 미처 급변해 가는 서사적 현실의 복잡성을 일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무래도 역부족이라는 일종의 ‘양식적 자각’이 진지하게 행해진 결과로서 비교적 선명한 골격을 지닌 시의 서사화 경향은 악화일로만 치달은 당대의 객관적 정세에 비추어 볼 때 마땅히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강력한 현실적 요청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특히 서술시는 시인 자신이 사상·감정의 직접적 서술보다는 서술적인 구조로 형상화된 사건이나 이야기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백석의 서술시는 짙막한 서정 양식으로는 미처 두루 포괄하기 어려운 당대 현실의

34) 김준오, 「서술시의 서사학」, 『한국 서술시의 서사학』, 태학사, 1998. p.41.

복잡성을 포착하려는 시인의 뚜렷한 노력의 소산이라 하겠다.

## 2. 서술시의 전개 양상

모든 문학이 본질적으로 현실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기본항에서 서정시도 결코 제외될 수 없다. 바로 여기에, 현실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의 한 방법으로 서술시가 놓여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술시에 대한 논의가 리얼리즘의 문제와 관련된 서술시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러한 리얼리즘의 문제와 관련된 서술시는 임화의 「우리 옵바와 화로」에서 이미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은 당대 카프의 시급한 과제였던 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능성으로 서술시를 채용한 것, 다시 말하면 관념적 구호 대신 투쟁적 삶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획득하려는 의도의 산물이었다. 식민지 시대나 해방공간에서 계급 투쟁을 고무하고 선동하는 카프계열의 목적시는 서술시를 편애하고 이를 통해 민중들의 삶을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카프 계열의 상당수 작품들이 경직된 이데올로기의 일방적인 전용으로 시와 문학을 심하게 변질·무력화시키고 만다. 즉 카프의 행동 원칙에 따라 제작·발표되는 시는 이데올로기의 앙상한 잔해로 선동·선전을 위한 전단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임화, 박세영, 백철과 같은 초기 서술시의 제작자들이 이룩한 성과는 카프 해산 이후, 즉 1930년대 후반에 민족 문학의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프로 문학이 아닌 민족 문학으로 실천되기에 이른다. 이용악, 백석, 오장환, 안용만 등에 의하여 창작된, 민족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시적 내용으로 하는 리얼리즘 시가 그것이다.<sup>35)</sup> 서사장르의 재편된 시간 구조를 활용한 30년대

---

35) 윤여탁, 「서술시와 리얼리즘」, 『리얼리즘의 시 정신과 시 교육』, 2003. p.104.

백석의 「女僧」과 「통영」, 「古夜」 등은 카프시와는 달리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는, 객관적 현실 반영과 민족의 원형 복원을 효과적으로 보여준 서술시이다. 또한 이는 70년대 이후의 민중시로 계승되고 있다.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민중이나 그들의 삶을 논의하는 것은 불온한 것으로 규정되어 금지되면서, 서술시는 물론 리얼리즘시의 경향도 자취를 감추고 만다. 1950년대 박봉우, 1960년대 김수영, 신동엽에게서 참여시라는 형태로 다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은 여린 싹일 뿐이다.

적어도 리얼리즘 시로서의 서술시가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였다. 김지하의 ‘담시’와 신경림의 시는 1970년대 서술시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 민중시의 주류화에 결정적 계기를 가져온 신경림의 「농무」 계열의 서정 소품들이 주목받는 것은 민중시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서술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원론적으로 문체는 제재에 따라 선택된다. 곧 사물과 사물의 특징은 묘사되지만 삶의 조건과 삶의 과정은 서술된다.<sup>36)</sup> 70년대 시의 주류적 경향인 민중시는 소외된 서민의 열악한 삶의 조건과 그 과정을 제재로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술시의 문체를 취하게 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리얼리즘을 지향하게 된다. 「농무」는 짙막한 서정시 형태 속에서 세계에 대한 반응으로서 비교적 객관적(농민의 목소리를 채용하여 서사적 거리를 유지)으로 행위를 선명히 서술함으로써 산업 사회의 충격으로 삶이 뿌리 채 뽑힌 소외된 농민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어 서사적 흥미의 이점을 충분히 살렸다고 볼 수 있다.

민중시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저항시의 성격을 띠고 따라서 풍자가 민중시를 더욱 고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지하의 「오적」이나 김준태의 「참깨를 털면서」 시편들에서 비속어와 욕설의 하급 문체는 풍자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민중의 이데올로기가

36) 김준오, 「한국 현대시, 어디까지 왔나」, 『시와 사상』, 1995. 봄호. p.116.

민요, 판소리, 무가, 서민 가사 등 전통 민중 장르의 형식을 재생산 한 점이 다. 김지하의 당시 「오적」은 판소리의 문체와 어조를 모방하여 지배 계층의 기만과 비리를 신랄하게 풍자한다. 「오적」은 판소리 장르의 도입으로 현대 풍자시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장시의 가능성도 함께 보인 점에서 문체적 작품이다.

80년대는 많은 현대시들이 무거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 시대다. 근본적으로 삶의 인식으로부터 소재의 선택과 처리까지 정치적이었다. 특히 새로운 발표 매체인 무크의 문화 운동과 더불어 노동시가 크게 부각되어 현대시의 정치적 성향이 더욱 심화되었다. 민중시는 80년대 후반 노동시로 대치되면서 문학 노선이 보다 선명해졌다. 제재를 선택하고 처리하는 시각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정된 만큼 어조와 주제가 분명했다. 이런 이데올로기적 조건에 의해서 생산된 노동시는 계급 모순을 완벽한 대립 구조를 통해 선명히 드러내는데, 언어 형식의 단순성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하여 민중시의 리얼리즘은 서술시의 속성인 단순성·소박성의 강조가 장점으로 부각된 것이 아니라 한계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민중시에서 서술시가 관습화되고 자동화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서술시가 전통의 리얼리즘에서 반리얼리즘으로 전환되고 있는 의미심장한 징후가 나타난다. 모더니즘시와 포스트모더니즘시의 단절을 공간적 이미지로부터 시간적 서술로 강조점이 전이된 현상<sup>37)</sup>으로 볼 때, 묘사체에서 서술체로의 전환에 의하여 새로운 전위시가 가능해진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서술은 인과성을 벗어나 우연성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기존의 서술시가 보여주는 통일성·질서·조직·압축을 철저하게 위반하고 있다. 이것은 서정적 자아의 간섭과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삶의 파편들을 집합시킴으로써 서술 고유의 사전적 의미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 서술이다. 이

---

37) 정정호, 「데이비드 안틴의 ‘담화시’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던 상상력」, 『포스트시대의 영미문학』, 열음사, 1992. pp.80 ~ 93.

렇게 자기포기를 통하여 역설적으로 탄생한 서술이기에 反서술로 불러야 할 서술이다. 그래서 시상전개가 무계획적이고 예측불허여서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따라서 결말 맺기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비유기적 형식을 보인다.

서술의 파편화는 이미 80년대 이성복이나 황지우의 시에 드러나 있다. 이성복의 「그날」에서는 하루에 일어난 일상적 사건들이 서사적 과거를 채용한 회상형식에 의해 아무런 필연성이 없이 연결되고 있다. 이 필연성의 제거는 삶의 소외감을 환기하면서 동시에 “모두 병들었는데도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처럼 무의식성으로서 현대적 일상성을 놀랍게도 함축하고 있다. 황지우의 「한국보험회사 송일환씨의 어느날」 「심인」, 「벽.1, 3」, 「마침내 그 40대 남자도」는 기성품의 조립이 작품의 구성 원리다. 시인은 단지 편집자의 위치로 전락했기 때문에 시인의 목소리는 없고 작품 세계는 타인들의 말이나 현실의 파편들로 가득 차 있다. 시가 주관적 장르이고 단일한 목소리의 독백적 언어라는 바흐찐의 견해<sup>38)</sup>가 무너지고 전통시 장르의 조건이 완전히 파괴된 셈이다. 이런 해체시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종속적인 존재 형식에 대한 해체이며 시적 자아와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론적인 회의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론적인 회의를 통해 이들은 시적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부조리한 세계에 맞서 시적 자아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부조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언어의 구조화에 저항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서술시가 시적 자아와 세계와의 대립이 포기된다거나 허무주의로 빠진 것은 아니다. 이들의 서술시에서는 여전히 세계는 싸움의 대상인 동시에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그 무엇인 것이다. 여기에 이들이 서술시가 가지는 80년대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90년대 신세대 시인들을 중심으로 대두된 서술시는 이들과는 다른 의미를 거느리고 출몰한다. 90년대에 대두된 서술시에서는 이성복이나 황지우가 문제 삼았던 '나는 누구인가? 세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인식론적

38) M. 바흐찐, 『도스토예브스키 시학』, 김근식 역, 정음사, 1988. p.53. p.161.

인 회의가 보이지 않는다. 90년대 서술시에서는 ‘나 혹은 세계는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것은 90년대 서술시가 존재론적인 회의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현대시의 특징으로 ‘서사가 파편화되거나 추상화되는 새로운 서사구조의 서술시’, ‘시인의 시점이 행위와 사물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는 미세학의 표층시<sup>39)</sup>’, ‘현실의 파편들을 무작위로 나열하여 주제가 분산되는 비유기적 형식의 환유시’, ‘자기 반영성으로서의 시에 대한 시 쓰기의 메타시’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시의 구조가 사회의 구조를 미적으로 반영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 시가 점점 서술화되고 파편화되리라는 예상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화, 특히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대중문화가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90년대 이후 우리 시가 드러내고 있는 변화의 징후들은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90년대 전후 포스트모더니즘의 본격적 수용과 탈이데올로기의 경향을 타고 더욱 고무된다. 비록 90년대 시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파편적인 서술 자체가 긍정적인 면 못지 않게 부정적 면(반성적인 형식의 부재, 인위적이고 조작된 기계론적인 반미학, 파토스<sup>40)</sup>적인 감성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어떤 가치도 없는 무용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조건적인 부정과 비판은 우리 시의 생산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 흐름 뒤에도 우리 시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39) 표층시는 시인의 시선이 철저하게 현상에만 머무는 현상주의를 표방한다. 이것은 삶을 지배하는 거대 담론, 지배적 원리의 붕괴라는 해체주의와 연관된다. 장경린의 연작시 「코닥」은 표층시 고유의 언어 형식인 미세학의 카메라 시점으로 일상적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오규원은 「지는 해」에서 화자를 포함한 등장 인물의 내면 세계를 일체 배제한 채 시선이 현상에만 머문 객관적 서술체다. 이런 표층시가 처음과 끝이 불분명한 인접성의 환유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김준오, 「한국 현대시, 어디까지 왔나」, 『시와 시학』, 1995. 봄호. p.118.

40) 파토스는 불운, 고뇌, 걱정 등 병적인 상태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진다. 파토스는 걱정이기 때문에 절제를 떠나 방황하는 마음 상태다.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갈망이고 욕구 자체는 있음과 있어야함의 분리에 대한 반응이다. 이는 자아와 세계의 대립 갈등을 전제로 하여 이를 타개하려는 경향으로 서정적인 것과 대립한다.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6. p.329.

### Ⅲ. 백석 서술시의 실제

#### 1. 서술시의 의의

백석은 일제 치하라는 시련과 고난의 시대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강직한 삶을 살았다. 만주의 신경에 있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창씨 개명을 요구하자 백석은 그 자리를 뛰쳐나와 생활고로 전전할 정도였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말을 기점으로 문단을 에워싼 상황이나 여건은 악화일로로 치닫기 시작했다. 식민통치자들의 주된 목표는 제국주의적 규격화, 규범화, 구별화의 강압적 개편으로 한반도에서 살아온 토착민들을 일본 국민으로 동화시켜 버리거나, 아예 점령지 밖으로 추방해 버리는 것이었다. 전통적 가치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민족적 가치가 일제의 계획적·조직적 파괴로 깡그리 무너져 가던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혈연과 거주지로 함께 엮어지는 생활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를 복원하고자 한 백석의 노력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진다. 더 나아가 백석의 시편에는 당대 현실 상황이 정확하게 파악·반영되고 있으며 철저한 역사 의식까지도 견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 「북방에서」는 이러한 백석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는 우리 민족이 점점 한반도라는 축소된 지역으로 이동하였기에 선조들의 웅대하고 강인한 삶의 정신을 잃어버림으로써 당대와 같은 현실 조건을 만들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 의식 아래 그의 시에는 당시의 시대 상황, 즉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 그래서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 방랑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고 부락 공동체가 몰락해 가는 정황들까지 사실적으로 그려 보이고 있다.

백석의 서술시는 바로 이러한 당대 현실 사회를 반영하기 위한 민족적 자각의 일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백석은 당대 어느 유파나 동인에도 가담하

지 않고 독자적인 시 세계를 구축하는데 그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사적 양식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민족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민족의 원형을 회복함으로써 역사의 주체를 바로 세우고자 함이다. 따라서 당대 현실 사회의 모순과 정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틀 속에서 서술시의 도입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장르에 비하여 주관적인 정서의 표현을 강조하는 서정시의 틀 안에서는 당대의 암울하고 복잡한 상황을 형상화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현실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시화(詩化)하기 위한 형상화 방법 중의 하나로 서사 지향성, 즉 이야기나 사건의 전개와 도입을 통해 서정시의 개념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백석 서술시의 의의로 ‘전통의 계승과 창조’, ‘모더니즘의 수용과 극복’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 1) 전통의 계승과 창조

백석에 있어서 당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전통에 대한 인식과 연계된다. 사실 전통을 찾아내고 계승하며 창조하는 일의 출발이 외세에 맞서서 우리의 것을 지키려는 것으로 표출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근대는 외부의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근대화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일제가 조선을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만들려는 데에서 온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백석의 시 세계에서 보이는 방언에의 집착, 다채로운 음식물, 가족 공동체와 부락 공동체에의 지향 의지 등은 일체에 맞서 우리의 고유한 것을 지키려는 강한 몸짓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백석 시가 갖는 시사적 위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고유하게 내려오는 우리의 풍습이나 풍물을 그의 시 속에 담아내어 보존하려 했으며, 특히 음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음식 문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전통을 바로 아는 데 매우 유용하다 할 것이

다. 또한 흰색을 숭상해 온 우리 민족의 의식적 동향 역시 그의 시에서 면면히 계승되어 내면화되고 있음을 보는데<sup>41)</sup>, 이는 당대의 독자에게나 후대의 독자들에게 그의 시들이 친근하게 다가오게 하는 효과를 지닌다. 이는 물론 백석이 전통을 계승하여 변용·발전시켰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지향하는 가족 공동체와 부락 공동체의 근저에는 우리의 고유한 민간 신앙이 도사리고 있다. 민간 신앙은 모든 사물에 정령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대체로 유교 제례의 지나친 이념성, 형식성과 여성 배제로 인하여 서민 부녀층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와 「오금덩이라는 곳」에는 이러한 민간 신앙이 잘 나타나 있다. 전자의 시에서 ‘마을은 온데간데 구신이 돼서 나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의 표현은 결국 시적 화자가 운명적으로 이 마을에 태어난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 역시 우리의 강토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이 마을은 우리의 강토이고, 마을 구석구석에 귀신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 하나 하나에는 우리의 토속적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적 자아는 이 마을 이 땅에서, 모든 귀신과 정령들과 함께 하겠다는 체념을 통한 운명적 다짐을 하는 것이다.

백석 시를 전통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설투의 문체이다. 즉 그는 기존의 서정시에서 통념이 된 간추려진

---

41) 채수영의 지적처럼 다른 시인들에 비해 백석의 시편들에는 백색이 매우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시인들은 부정적 시대 상황을 암시하는 이미지로서 검은 색의 어두운 색조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백석은 일제 강점기의 시대 상황을 검정색의 어두운 색조를 통해 비판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백색의 순결한 이미지와 황색과 적색의 따뜻한 이미지를 통해 평화롭고 정겨운 삶의 갈망을 간접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에서 백색의 이미지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연약하고 나약한 이미지로서의 슬픔과 서러움을 환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결함과 깨끗함의 이미지로서 비세속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도구로 암시된다. 전자는 「흰밤」, 「쓸쓸한 길」, 「바다」,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후자는 「선우사」, 「노루」,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화(白樺)」에서 찾을 수 있다. 채수영, 『한국 현대시의 색채의식 연구』, 집문당, 1987. pp.36 ~ 37.

문장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번잡하게 여러 말을 주워 섬기는 사실조를 그의 작품에 이끌어 들였다. 즉 그는 민요나 사설시조, 그리고 판소리에서 흔히 보이는 서술 기법인 율음 방식<sup>42)</sup>을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민요나 판소리 등이 주로 구나 문장을 단위로 나열되거나 대구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백석은 단어와 단어, 행과 행은 물론이고 연과 연, 장면과 장면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율음의 수법을 반복률 획득의 한 방편으로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예는 매우 다양하다. 「연자간」의 모든 연은 각 2행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행과 연이 다른 길이를 갖고 있어서 음수로나 음보로나 외형률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작품을 소리 내어 읽어보면 상당히 음악성이 살아 있는 작품임이 드러난다. 이때의 음악성이 바로 반복률인 것이다. 이 작품 각 행의 마지막 구절들은 철저하게 반복률을 의식하며 씌어지고 있다. 한 연 혹은 한 행 안에서의 반복을 통한 운율 획득의 예는 「여우난골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웃고, 이야기하고, 잡고, 조아질하고,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 구손이하고 돌구고……” 등으로 어미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적막강산」에서도 ‘소리’라는 낱말이 일정하게 반복되고 있고, 「백화」와 같은 작품을 읽다보면, 온통 세상이 자작나무로 가득찬 느낌을 받게 된다. 이 역시 반복의 효과를 최대한 이용한 효과이다. 「統營」과 같은 작품에서는 이러한 반복이 또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마치 말 이어가기 놀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반복의 기교는 이렇듯 그 예를 일일이 들어 나열하기가 어려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安東」, 「모닥불」, 「수박씨, 호박씨」, 「北方에서」, 「歸農」 등의 작품에서 그것은 특히 잘 드러난다.<sup>43)</sup>

이렇듯 그의 작품은 제재만이 토속적인 데서 택해진 것이 아니라 그 구문

42) 김현선, 「한국 시가의 율음과 백석 시의 변용」, 『한국현대시인연구』, 도서출판 신아, 1988. pp.225 ~ 248.

43) 김영민, 「백석론」, 『한국문학연구총서 15』, 문학과 비평사, 1990. pp.317 ~ 320.

에서 빛어지는 가락까지도 향토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는 안이하다거나 유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신선한 느낌까지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가 민요나 사설시조, 판소리의 표현 방식과 서술 방식을 온전히 계승하여 변용·발전시킨 사실은 백석 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모더니즘의 수용과 변용

백석의 시 창작은 당대에 풍미했던 모더니즘의 조류 중 이미지즘을 흡수하면서도 그것에만 함몰되지 않았으며 특히 방언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토속적 고향의 세계를 전개해 나감으로써 1930년대 중반 모더니즘 일색이라는 당대의 시단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다.

이미지즘 기법은 당대 모더니즘 계열의 핵심적인 시 창작 방법이다. 백석의 모더니즘 수용 관계에서 나타나는 초기 시의 특징 역시 감정의 지적 통제에 의한 이미지즘의 기법을 따른다. 그러나 감각적 이미지 위주의 창작 방법은 감정을 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도 현실사회의 모순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폐한 삶의 정황을 표현할 수 없다. 또한 문학이 삶의 제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할 때 이러한 이미지 위주의 시로 깊이 있는 식민현실을 다루기란 어렵다. 백석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서사성을 도입한다.

한국의 모더니즘은 반노만주의, 반마르크스주의, 주정의 배척, 지성과 의식적 방법의 자각, 감각적 이미지의 중시, 시의 명랑성과 건강성의 회복 등<sup>44)</sup> 시사적 차원에서 충분한 의의를 지니지만, 현대적인 의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세계에 맞닿아 있는 작품을 제작하여 발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여기에 백석이 당대 모더니즘 시인들과 확연히

44) 문덕수, 『韓國모더니즘 詩 研究』, 詩文學社, 1981. pp.13~14.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백석은 이미지를 활용하면서도 방언과 서사성의 도입을 통해 황폐화된 고향의 복원을 시도하고 식민 현실을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① 헐리다 남은 城門이

한울빛같이 흰하다

날이 밝으면 또 메기수염의 늙은이가 청배를 팔러 올 것이다

- 「定州城」 중에서

② 묵은 초가지붕에 박이

또 하나 달같이 하이얗게 빛난다

언젠가 마을에서 수절과부 하나가 목을 매어 죽은 밤도 이러한 밤이었다

- 「흰밤」 중에서

③ 흙담벽에 별이 따사하니

아이들은 물코를 흘리며 무감자를 먹었다

돌덜구에 天上水가 차게

복숭아냇에 시라리타래가 말려갔다

- 「初冬日」 전문

④ 자른닭이 울어서 술국을 끓이는 듯한 鰍湯집의 부엌은 뜨수할 것같이 불이  
뿌연히 밝다

초롱이 히근하니 물지게꾼이 우물로 가며

별 사이에 바라보는 그믐달은 눈물이 어리었다

행길에는 선장 대여가는 장꾼들의 종이燈에 나귀눈이 빛났다

어데서 서러웁게 木鐸을 뚜드리는 집이 있다

- 「未明界」 전문

위 시들은 각각 감각적 이미지 기법을 사용하면서도 당대의 사회현실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즉 사건이 개입되면서 고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드러내 준다. 이 시편들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주로 감각적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적 이미지 중에서도 시각적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외 이미지들이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적 의미를 확장시켜 준다. 이처럼 백석 시편에서 보이는 이미지의 표현은 비유적인 방법보다 묘사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비유적 이미지가 전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다. 비유적 방법에 의한 이미지의 창출이라고 해도 그것은 단순한 차원인 일상의 관용적 이미지가 대부분이다.<sup>45)</sup> 이는 그의 시가 서사 지향적인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적 태도라 할 수 있다.

①의 시에서 시적 배경은 시각적 이미지와 조용하면서 시적 의미를 밝게 해준다. 즉 청배를 팔러오는 메기 수염의 늙은이는 퇴락하고 폐허가 된 정주성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어둠이 사라지고 아침이 되면 가난하고 찌든 소외계층 인물들의 삶이 여전히 계속되고 반복되어진다는 시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 하겠다.

②의 시 역시 묵은 초가지붕이 달빛과 조용하면서 사건을 서술하는 데 기여한다. 즉 ‘흰밤’의 묘사를 통해 비극적 상황을 환기시킨다. 이는 서슬 푸른 식민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시적 장치이다. 구체적으로 수절과부 하나가 목을 매고 죽은 밤도 이러했다는 정황으로 보아 가혹한 사회현실을 단적

---

45) 「古夜」의 시편에서 보여지는 직유에 의한 일상적 관용 어법인 예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누가 죽이는 듯이, 노나니꾼들이 도적놈들같이, 땅아래 고래 같은, 이러한 밤 같은, 쇠든밤을 내어 다람쥐처럼, 내일같이’. 위 시 예처럼 백석의 대부분 시편에서 비유적 방법에 의한 이미지 창출은 직유로 일상적 관용 어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승원, 「풍속의 시화와 늘변의 시학-백석론」, 『한국시문학의 비평적 탐구』, 삼지원, 1985. p.260.

으로 암시해준다.

③의 시는 성인이 된 화자가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데, 이는 유년의 회귀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이들 이미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④의 시는 각 연들이 이미지가 상호 결합되면서 밝은 이미지를 창출한다.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이다. ‘자근닭이’ 운다는 것은 이를 암시한다. 불-그믐달-종이등(나귀눈)의 연속적인 빛의 이미지는 곧 아침이 시작될 것임을 드러내 준다. 그러나 1연의 분주한 삶의 행위는 2연과 3연에서 ‘그믐달의 눈물’, ‘목탁을 두드리는 집’과 조용하면서 이 시를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울하게 이끈다. 따라서 이 시는 현실사회의 궁핍한 삶의 정황을 여실히 보여 준다.

위 시편들에서 이미지의 기법은 단순히 시적 분위기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적 배경과 인물의 행위를 서술하는 데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 즉 시적 묘사와 서사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주체적인 시 세계를 구축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석의 시는 이미지즘 수용하면서도 시적 자아의 주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서사성을 활용하여 자아 외적 세계를 적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그는 모더니즘을 수용했으면서도 주체적으로 우리의 토양에 맞게 변용하여 당대 시인들과 변별되는 독특한 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 2. 서술시의 형상화 양상

백석의 서사 양식의 도입은 보잘 것 없고 하찮은 민중들의 삶의 세목들을 낱낱이 드러내줌으로써 민족적인 삶의 원형을 재구하고 당대의 현실사회 의식을 반영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즉, 정서만을 강조하는 전통 서정시만으로는 당대의 시대적 질곡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현실탐구의 가능성

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서사 양식의 도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의 단절을 회복하는 것이며, 나아가 역사의 주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그가 의도한 시적 태도는 현실사회의 객관적 반영을 통해 민족을 복원하고자 하는 창작 방법이다.

백석은 서사 양식의 도입뿐만 아니라, 시어의 운용에서도 토속적인 일상 언어의 구사를 통해 민중의 언어 의식을 보여준다. 즉, 소박하고 단순한 언어의 사용으로 생생한 민중 언어를 재현하고자 한다. 수사법에 있어서도 고도의 비유법보다는 열거와 반복, 직유를 통해 당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백석은 서사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일상 언어의 구사, 전통 시가에서 보이는 율음의 수법을 변용한 반복률을 통해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민족·민중적 삶의 원형과 그 정신을 형상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백석 서술시의 형상화 양상으로 ‘객관적 현실 반영’과 ‘민중적 삶의 원형과 복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 객관적 현실 반영

백석의 서사성의 문제는 시적 자아의 주관성을 극복하고 현실사회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당대 민중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는 데 있다. 따라서 그는 당대의 현실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의 시 세계로 전이시킴으로써 현실사회의 모순을 환기시킨다.

백석의 시에 있어서 서사성의 도입은 역사 주체로서 사회 참여의 한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시 세계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와 고통받는 민중에 대한 순수한 연민의 아픔이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 작용된다. 어둡고 암울한 1930년대의 한복판에서 백석은 그들의 애환을 이야기하면서 서술 양식의 도입을 통해 일제 강점기 민족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시켜 독자를 그 당대의 구체적 비극성 속에 끌어들이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山턱 원두막은 뷔었나 불빛이 외롭다  
현곶심지에 아즈까리 기름의 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잠자리 조울든 문허진 城터  
반딧불이 난다 파란 魂들 같다  
어데서 말 있는 듯이 크다란 山새 한 마리 어두운 골짜기로 난다

헐리다 남은 城門이  
한울빛같이 흰하다  
날이 밝으면 또 메기수염의 늙은이가 청배를 팔러 올 것이다

- 「定州城」 전문

위의 시 「定州城」은 3연 9행으로 구성된 백석의 등단작으로<sup>46)</sup> 향후 민족 지향적인 시 세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로 작용된다. 공간적 배경인 정주성은 홍경래 난의 발원지이자 마지막 항전지였던, 서북인의 한이 담긴 역사의 현장을 소재로 씌어진 작품이다. 이러한 ‘정주성’<sup>47)</sup>은 특정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인물의 행위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또’라는 시간 부사와 ‘올 것이

46) 1934년 8월 31일 시 「定州城」을 『조선일보』에 발표하면서 시단에 나옴. 그의 나이 24세가 되던 해이다.

47) 정주성은 평안북도 정주군 정주읍에 있는 조선시대 성곽으로 북한의 사적 34호이다. 이 성은 조선 초기에 흙으로 쌓았던 토성이었으나 뒤에 돌로 개축한 정주의 읍성이다. 현재의 성벽 높이는 2~5m에 이르고 있으며, 성곽의 요소에는 성치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정주성은 1811년에 발생한 홍경래의 난 때 성내의 서장대에서 홍경래가 난군을 직접 전투, 지휘하던 곳으로 유명한 성이다.

한국정신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42.

다’ 라는 미래 추측의 언술이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면서 시적 의미를 확장 시킨다. 특히 이 시는 백석의 초기 시작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기법이 두드러지는데 1연에는 ‘불빛’, 2연에는 ‘반딧불’, 3연에는 ‘한울빛’ 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어울려 어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1연에서 비어 있는 산덕 월두막은 헝겊심지에 기름 쪼는 소리가 들릴 듯한 적막한 분위기로 「定州城」의 전체적인 시적 분위기를 암시한다. 2연의 무너진 성터에 비취는 반딧불도 어둠 속에 다시 파란 혼불로 대치되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민중들의 원한과 슬픔이 되살아나는 듯한 것으로 시인에게 인지된다. 그리고 말(마을)을 찾아 떠나는 커다란 산새 한 마리가 어두운 골짜기로 날아가는 시각적 묘사를 통하여 다시 어둠이 강조되고 정주성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고조된다. 이는 서북인의 한이 담긴 역사의 현장을 담아내기 위한 시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황폐화된 역사적 ‘정주성’ 을 통해 당대의 민족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준다.

이 시에서 시적 화자는 대상과의 객관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폐허가 된 정주성의 모습을 서술한다. 물론 정서가 아예 배제된 것이 아니라 1연과 2연에서 ‘불빛이 외롭다’, ‘파란 혼들 같다’ 라는 자아의 주관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는 ‘날이 밝으면 또 메기 수염의 늙은이가 청배를 팔러 올 것이다’ 라는 구체적 사건과 인물의 행위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그의 시 창작 방법은 전형적인 서사적 기법인 객관적인 진술과 묘사를 중심으로 하고, 그 틀 속에 화자의 주관적인 내면 감정을 삽입하는 서정적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백석시의 특징은 기존 서정시의 한계를 극복하여 암울하고 복잡한 민족의 운명을 드러내 주는 데 적절하다. 그러나 이 시는 어두운 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민족적 희망을 잃지 않는다. 3연 마지막 행의 운용에서 보여주듯이 청배를 팔러오는 메기 수염의 늙은이는 퇴락하고 폐허가 된 정주성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면서 어둠이 사라진다. 즉, ‘또’ 라는 부사와

‘올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를 사용하여 이 고단한 인물들의 삶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된다는 시적 의도를 가진다. 이것은 민중적 삶의 건강함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준다. 비록 보잘 것 없고 하찮은 한 늙은이지만 역사적 주체로서 이 일상적인 삶의 행위는 끈질기게 이어질 것을 암시해 주고 있으며 당당한 민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민족적 정서를 대변한다. 이렇게 그의 서술시는 민족 지향적인 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 창작 방법의 일환이다.

거적장사 하나 山뿔엿 비탈을 오른다  
아- 따르는 사람도 없이 쓸쓸한 길이다.  
山가마귀만 울며 날고  
도적갠가 개 하나 어정어정 따라간다  
아스라치전이 드나 머루전이 드나  
수리취 땅버들의 하이얀 복이 서러웁다  
뚜물같이 흐린 날 東風이 설렌다

- 「쓸쓸한 길」 전문

위 시는 백석의 시편 가운데 단시임에도 불구하고 주제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 준다.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시적 배경은 인물의 행위를 보다 어둡고 암울하게 이끈다. 다시 말해 어떤 초라한 장례를 주변의 시적 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쓸쓸한 길」은 다섯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문장은 ‘거적장사 하나 山뿔엿 비탈을 오른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의 전체적인 시적 분위기를 강하게 제시한다. 시적 화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작품 전체의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즉 인물과 배경을 통해 사건을 묵시적으로 형상화한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쓸쓸함이 더 효과적으로 서술된다. ‘아-따르는 사람도 없이 쓸쓸한 길이다’로 서술되는 시적 자아의 을씨년스럽고 음울한 심정은 당대의 사회현실을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이는 초라한 장사 행렬을 감정의 절제 없이 드러내 줌으로써 부정적 현실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 준다.

세 번째 문장에서의 ‘산가마귀’와 ‘개’는 시적 자아의 내면 세계를 더욱 쓸쓸하게 만든다. 어떤 죽은 이의 초라한 장사의 행렬에 만장도 없고 상주도 없는, 산가마귀와 개만이 따르는 상황 묘사는 피폐한 사회 현실을 더욱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네 번째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외부 정경의 모습조차 ‘하이얀 복이’ 서러운 것이다. 결국 이 시의 마지막 문장에서 ‘뚜물같이 흐린 날’은 첫 문장 1행과 상응하면서 작품 전체의 서사적 이야기를 감싼다.

이 시는 어떤 죽음에 대해 구체적인 원인과 이와 관련된 장사 행위가 서술되지 않고, 다만 시적 배경을 통해서 사건의 행위를 보여줄 뿐이다. 시적 주체의 어두운 내면 세계는 시적 자아의 제한된 선택에 의해 서술되지만, 파괴된 공동체 사회의 황량함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이 짙막한 시 속에서 당대의 전형적인 사회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女僧은 습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佛經처럼 서러워졌다

平安道の 어늬 山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女人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쉴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山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山 절의 마당귀에 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女僧」 전문

위의 시는 백석의 많은 시편들 중에 사회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특히 서사적 요소인 이야기를 도입하여 당대의 암울한 생활상을 잘 형상화시키고 있다. 즉, 식민지적 삶의 정황을 묵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금덤판’이라는 시적 배경과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기구한 사연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준다.

이 시의 구성은 선행 연구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역동적인 시적 구성에 있다.<sup>48)</sup> 전 4연의 이 시는 서사적 시간으로 보면 2연에서 시작하여 3연, 4연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2연에서 4연까지가 한 여인이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성이 현실 상황으로 부여되는데 이 부분은 회상의 공간이다. 1연은 여승의 현재의 모습이며, 2~4연의 결과에 해당한다. 이 시를 살피는 데 있어 시적 의미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2→3→4→1 연의 전개 과정을 따르고자 한다.

2연은 시적 화자인 ‘나’에 의해 시적 배경과 인물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이 시의 배경이 되고 있는 ‘平安道 어너 山 깊은 금덤판’<sup>49)</sup>은 당대

48) 박주택, 『낙원 회복의 꿈과 민족정서의 복원-백석 시 연구』, 시와시학사, 1999. p.21.

곽봉재, 『백석 문학 연구』, 경희대학원, 1999. p.109.

이외 다수의 논문에서 선행 연구자들은 이 시의 구성을 동일 선상에서 논의하고 있다.

49) 이 땅을 강점한 일제의 수탈 정책으로 방방곡곡에서 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소위 ‘골드러시’를 이루며 너도나도 금광으로 몰려들어 노다지를 캐겠다는 허황한 투기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1930년대의 조선은 그야말로 전 국토가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민중의 수탈 현장으로 가혹한 삶의 현장을 의미한다. 후에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여인은 아마도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딸아이를 때리며 옥수수를 팔았을 것이다. 옥수수를 팔아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기에 딸아이의 식욕마저 봉쇄해야만 했던 곤궁한 삶의 정황을 암시한다.

3연은 이 시의 핵심적인 사건의 전말이 묘사된다. 즉 시적 화자에 의해 인물의 행위를 사건과 결부시켜 비극적인 삶의 양상을 드러낸다. 이 시에서도 가족 공동체가 와해되어 남자는 배제되고 여인과 아이만이 등장한다. 섯별(재래종 일별)처럼 집을 떠나야만 했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어린 딸마저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의 길로 가야만 했다. 여기에서는 ‘여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인을 몰아가고 있는 사건과 행위를 제시해 주고 있다.

4연은 2, 3연의 원인에 대한 결과로 山평도 그 여인의 기구한 운명에 공감하듯 서럽게 우는 슬픈 날에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며 여인은 여승이 되었다. 그러나 여인은 어쩔 수 없이 山절의 여승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지만, 진실한 구도자로서의 종교적인 인물이기보다는 현실에 패배한 여인이다. 이는 1연에서 여인이 산중에서 가취치(취나물) 냄새가 날 정도로 오래 동안 산사 생활을 했지만 쓸쓸한 낮은 옛날과 똑같고 또 더 늙어 보이기까지 한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중생의 삶이 고해(苦海)라는 불교의 오랜 교리 자체와 기구한 여승의 이미지가 겹쳐져 화자는 공감하며 ‘불경처럼 서러워’ 지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의 화자는 피폐한 당대의 현실을 적절하게 드러내 주는 허구적 인물로서의 관찰자이다. 이는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시 창작 방법이다. 서술시의 구조를 형성하는 배경과 인물, 사건에 대한 시적 전개 양상은 시적 화자의 객관적인 시선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객관적 관찰자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단 열두 행의 시구로 서술하지만 조금도 무리가 가지 않고 있다. 그런

데 문제는 「女僧」 속에 구현된 여인의 생애가 당대의 식민지 현실 전체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 당시의 붕괴된 농촌 현실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즉 일제강점기의 민족 현실을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부피감을 느끼게 하고 또 소설과 달리, 과감한 생략을 통해 고도로 압축되어 시적 주체의 정서에 녹아있다. 이렇게 「女僧」은 한 개인의 삶의 아픔이 아니라 당대의 애환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 작품이다.

거리는 장날이다  
장날거리에 녁감들이 지나간다  
녕감들은  
말상을 하였다 범상을 하였다 쪽재피상을 하였다  
개발코를 하였다 안장코를 하였다 질병코를 하였다  
그 코에 모두 학실을 썼다  
돌체돋보기다 대모체돋보기다 로이도돋보기다  
녕감들은 유리창 같은 눈을 번뜩거리며  
투박한 北關말을 떠들어대며  
쇠리쇠리한 저녁해 속에  
사나운 증생같이들 사라졌다

- 「夕陽」 전문

위 시는 北關의 어느 장터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장날 거리를 지나는 노인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림으로써 시적 분위기를 밝게 이끈다. 「夕陽」은 비연 형태의 11행으로 전형적인 서사적 기법인 객관적인 진술과 묘사를 기본으로 삼는다. 시적 화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적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객관적인 서술 방식을 취한다. 이는 서사 양식의 줄거리를 통해 인물과 사건의 재현을 목표로 하는 서사 지향적 개념 속에 내포된 것으로, 대상 세계와의 거리는 시인의 주관적 감정을 통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층 적극적인 시 창작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한다.

북관의 어느 파장 거리가 이 시의 배경인데, 화자의 관찰자적 시선이 생활 속의 인물들, 즉 ‘녕감’ 들의 인상을 객관적으로 서술해 줌으로써 당대의 보편적인 삶의 정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녕감’ 들은 하찮고 보잘 것 없는 당대의 전형적인 인물들로 건강한 삶의 모습을 띠고 있다. ‘말상, 범상, 쪽재피상’ 과 ‘개밭코, 안장코, 질병코’ 등으로 표상되는 인물 형상의 묘사는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생기를 느끼게 한다. 즉 당대의 피폐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보여주고자 한 시인의 현실 사회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녕감들은 유리창 같은 눈을 번득거리며/ 투박한 北關 말을 떠들어대며’, ‘사나운 짐생같이들’ 이 살아가는 민중들의 역동적인 삶의 면면들에서 드러난다. 이처럼 북관의 장날 풍경은 서북인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민중적 정서를 회복하려 한다. 이는 건강한 민중들의 일상적 삶을 통해 민족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 시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촌에서 온 아이여

촌에서 어제밤에 乘合自動車를 타고 온 아이여

이렇게 추운데 옷동에 무슨 두툼이 같은 것을 하나 걸치고 아랫두리는 쪽 발가벗은 아이여

빨다구에는 징기징기 양광이를 그리고 머리칼이 놀한 아이여

힘을 쓸라고 벌써부터 두 다리가 푸둥푸둥하니 살이 찢 아이여

너는 오늘 아침 무엇에 놀라서 우는구나

분명코 무슨 거긱되고 쓸데없는 것에 놀라서

그것이 네 맑고 참된 마음에 분해서 우는구나

이 집에 있는 다른 많은 아이들이

모도들 욕심 사납게 지게굳게 일부러 칭을 돌려서

어린아이들 치고는 너무나 큰소리로 너무나 튀겁 많은 소리로 울어대는데  
 너만은 타고난 그 외마디소리로 스스로롭게 삼가면서 우는구나  
 네 소리는 조금 썩심하니 쉬인 듯도 하다  
 네 소리에 내 마음은 반쯤 밝아오고 또 호끈히 더워오고 그리고 즐거워온다  
 나는 너를 껴안어 올려서 네 머리를 쓰다듬고 힘껏 네 적은 손을 쥐고 흔들고  
 싶다  
 네 소리에 나는 촌 농사집의 저녁을 짓는 때  
 나주별이 가득 드리운 밝은 방안에 혼자 앉아서  
 실감기며 버선짝을 가지고 쓰렁쓰렁 노는 아이를 생각한다  
 또 너름날 낮 기운 때 어른들이 모두 벌에 나가고 텅 뒀인 집 토방에서  
 햇강아지의 쌀랑대는 성화를 받아가며 닭의 똥을 주어먹는 아이를 생각한다  
 촌에서 와서 오늘 아침 무엇이 분해서 우는 아이여  
 너는 분명히 하늘이 사랑하는 詩人이나 농사꾼이 될 것이로다  
 - 「촌에서 온 아이」 전문

위 시는 「八院」과 더불어 당대 현실 사회의 피폐함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으로 시인의 사회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농촌 공동체적 삶의 붕괴는  
 결국 가족의 해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규모의 유랑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  
 는데, 이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까지 확대되어 그 비극성이 더해지  
 는 것이다. 이 시에서의 ‘촌에서 온 아이’는 이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야  
 기의 축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전반부는 시적 대상인 ‘촌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의 양상이며, 후반부는 시적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  
 세계에 대한 서술이다. 따라서 이 시는 시적 이야기가 객관적인 서술형태를  
 지니면서, 그 속에 시적 화자의 주관적인 내면 감정의 투사라는 서정적 어  
 범을 삼입하고 있다.

이 시는 22행으로 구성된 비연시로,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는 14행까지는  
 시적 화자의 관찰자적 시선에 의해 사건과 인물, 배경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촌에서 온 아이’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옷동에는 무슨 두루미 같은 것을 하나 걸치고 아햇두리는 쪽 발가벗’고 있다. 추운 겨울이라는 시적 배경은 ‘촌에서 온 아이’의 피폐한 삶의 정황을 더욱 비극적으로 이끌어 일제 강점기의 참혹한 민족 현실을 드러내 준다. 거기에 시적 화자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힘을 쓸려고 벌써부터 두 다리가 푸등푸등하니 살이 찢 아이’라 표현함으로써 당대의 현실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그 아이의 힘겨운 인생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연민의 정을 환기하고 있다. 그리고 시적 화자는 촌에서 온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바로 화자의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환치시켜 묘사하고 있다. 나주별(저녁햇살)이 드는 밝은 방 안에서 실감기와 버선 짝을 가지고 노는 아이의 모습과 여름날 어른들이 모두 벌에 나가고 텅빈집 토방에서 닭의 똥을 주어먹는 천진한 아이의 영상을 그려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촌에서 온 아이는 시적 화자처럼 시인이자 농부가 될 것이라고 위안을 삼기도 한다. 이렇게 촌에서 온 아이와 시적 화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이 시는 시적 화자의 현실인식의 양상이 보다 밀착되고 확장되어 나타남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아이의 울음을 통해 훼손된 농촌공동체적 삶의 원형을 찾아낸다. 시적 화자는 ‘촌에서 온 아이’가 ‘이 집에 있는 많은 아이들’과 다른 것은 욕심이 없기 때문으로 본다. 때로 아이의 맑고 순수한 마음은 ‘거죽되고 쓸데없는 것에 놀라서’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 울음의 양상은 ‘맑고 참된 마음’이다. 이는 농촌공동체적 삶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아이의 심성을 그대로 대변해 준다. 따라서 그 울음은 본질적으로 민족의 원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행위의 주체자인 시적 화자는 이 시의 핵심적인 인물 형상의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내밀한 현실 사회의 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점은 마지막 행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촌에서 온 아이’는 장차 ‘하늘이 사랑하는 시인이자 농사꾼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즉 ‘아이, 시인,

농사꾼'은 등가를 이루면서 민족적 원형을 표상하는 상징적 매개물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가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촌 아이'의 '울음소리'를 통해 반추한다. 그리하여 '마음은 반쯤 띄어오고 또 호끈히 더워오고 그리고 즐거워'지는 것이다.

이 시는 고향을 떠나 방랑할 수밖에 없던 당대의 유이민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서술시가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통해 사회의 모순과 복잡성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유용한 창작방법이라 할 때, 이 시는 이런 사실에 부합되는 작품이다. 또한 시적 화자는 객관적으로 '촌아이'를 관찰하는 듯하지만 결국 '촌아이'와 동일시되어 화자 역시 당대의 격랑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백석의 시는 전형적인 서사적 기법인 진술과 묘사를 기본으로 삼는다. 또한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객관적인 서술 방식을 취하면서 시인의 주관적 감정을 통제한다. 이러한 서술시의 특징은 주관성이 강조되는 기존의 서정 양식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당대의 비극성을 더욱 구체화하여 독자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의 서술시는 일제강점기라는 비극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면서 현실 사회의 총체성을 보여준다.

## 2) 민중적 삶의 복원

백석의 시 정신은 “민족적인 삶 또는 민중적인 삶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sup>50)</sup> 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향의 다양한 풍물을 통해 회상되고 재구되는 것은 역사 주체자로서의 민족 복원이다.

---

50) 김재홍, 「민족적 삶의 원형성과 운명에의 진실미, 백석」, 『한국문학』 10월 호, 1989. p.371.

그의 시에서 복원되는 ‘고향 재현’의 시편들은 일제 강점기 민족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의도된 시적 태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서사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백석의 시 속에서 서술되고 있는 이야기는 가족·친족간 유대에서부터 집단적 공동체의 민중 사랑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그의 시 세계는 일제에 대한 간접적인 저항이기도 했으며 민족의 혼을 살리려는 힘겨운 노력의 일환이다. 모방론의 관점이든 아니든 간에 작가가 현실적 삶의 여건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시 창작의 선결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그의 서사성의 활용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여실히 묘사하고 나아가 민족·민중적 삶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인식으로서의 당연한 결과이다.

아배는 타관 가서 오지 않고 山비탈 외따른 집에 엄매와 나와 단둘이서 누가 죽이는 듯이 무서운 밤 집뒤로는 어너 山골짜기에서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들이 도적놈들같이 쿵쿵거리며 다닌다.

날기명석을 저간다는 닭보는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아래 고래같은 기와집에는 언제나 니차떡에 청밀에 은금보화가 그득하다는 외밭 가진 조마구 뒷山 어너매도 조마구네 나라가 있어서 오줌누러 깨는 재밤 머리말의 문살에 대인 유리창으로 조마구 군병의 새까만 대가리 새까만 눈알이 들여다보는 때 나는 이불속에 자즈러붙어 숨도 쉬지 못한다.

또 이러한 밤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고무가 고개너머 큰집으로 치장감을 가지고 와서 엄매아 들이 소기름에 쌍심지의 불을 밝히고 밤이 들도록 바느질을 하는 밤 같은 때 나는 아룻목의 샷귀를 들고 쇠든밤을 내여 다람쥐처럼 밝아먹고 은혜여름을 인두불에 구어도 먹고 그러다는 이불 우에서 광대님을 뒤이고 또 누어 굴면서 엄매에게 윗목에 두른 평풍의 새빨간 천두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고무더러는 밝는 날 멀리는 못난다는 뽕추라기를 잡아달라고 조르기

도 하고

내일같이 명절날인 밤은 부엌에 쪼뚝하니 불이 밝고 솔뚜껑이 높으며 구수한  
내음새 곰국이 무르뭉고 방안에서는 일가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의 소문을 퍼며  
조개송편에 달송편에 권두기송편에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밤소 팔소 설탕 든  
콩가루소를 먹으며 설탕 든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가루손이 되어 떡을 빚고 싶은지 모른다

선달에 내빌날이 들어서 념일날 밤에 눈이 오면 이 밤엔 쉐하얀 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념일눈을 받노라 못 난다는 말을 든든히 녀기며 엄매와 나는 양궁우  
에 떡돌 우에 곱새담 우에 함지를 버치며 대냥푼을 놓고 치성이나 드리듯이 정  
한 마음으로 념일눈 약눈을 받는다

이 눈세기물을 념일물이라고 제주병에 진상향아리에 채워두고는 해를 묵여 가  
며 고빨이 와도 배얹이를 해도 감피기를 얹어도 먹을 물이다

- 「古夜」 전문

위의 시는 전체 5연으로 구성된 산문체 시로 제목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시적 공간이 유년의 밤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위  
와 사건을 통해 유년의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유년의 화자  
를 통해 고향을 재구함으로써 당대의 비현실적인 삶의 양상으로부터 민중적  
삶의 원형을 복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시적 배경은 유년의 화자의 의식을 적절하게 암시한다. 즉 ‘집 뒤로는  
어느 山골짜기에서 소를 잡아먹는 노다리꾼들이 도적놈들같이 쿵쿵거리며  
다닌다’는 것으로 아버지가 부재한 유년의 밤은 무서움을 표상한다. 아버  
지의 부재 속에 시적 행위 주체자는 어머니와 단 둘이 죽을 것만 같은 공포  
의 밤을 지세우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이 부재한 현실 상황이란 가족 공  
동체가 해체되고 고향을 상실한 당대의 시적 대응물이기도 한다. 2연은 도

깨비이야기의 민담이 시 속에 삽입되어 무서움을 구체화시킨다. 관형사형 ‘-는’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조마구나라 이야기가 더 무섭게 소개되고 재 밤(한밤중)에 잠에 깨어 유리창으로 보이는 도깨비의 ‘눈알’을 보고 동화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와 공포감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1, 2연의 유년 체험은 3, 4, 5연에서 반전되면서 민족적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민중적 삶을 서술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백석의 유년 기억에 의해 재구된 시적 세계가 민중적 삶의 원형을 복원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3연에서의 밤은 다복한 유년의 공간으로 채워진다. 시집갈 치장감을 준비하는 들뜬 분위기와 그 속에서 천진난만하게 재롱을 떠는 유년화자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다람쥐처럼 쇠든밤(마른 밤)을 발라먹고 은행열매를 구워 먹고 이불에서 광대놀이도 하고 병풍에 그려진 천도복숭아 전설 이야기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3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시적 내용은 앞의 두 연과는 사뭇 다르다. 가장이 부재하지만 친족간 유대감이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고, 천진난만한 유년의 세계가 동화처럼 펼쳐진다.

4연에서의 유년 체험 역시 충만함과 자족스런 세계로 이어진다. 명절날을 앞둔 밤은 유년 화자에게 있어 풍요로운 시적 공간으로 제시된다. 친족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마을과 마을이 소통되는 공간으로서 농촌 공동체의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갖가지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유년의 화자는 떡을 빚는 곁에서 여러 음식들을 먹어보다가 그 중 설탕 든 콩가루소를 먹으며 가장 행복해 한다.

5연은 납일(臘日)날의 민속이 무서움으로 연관되고 있다. 그러나 할미구신의 눈귀신은 냅일눈을 받느라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에 든든히 여긴다는 표현에서 유년 화자의 무서움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대신에 우리 전통의 속신(俗信)이 이야기되고 있다. 눈세기물(눈을 녹인 물)을 받아 ‘고뿔’과 ‘배얹이’, ‘갑피기(이질)’ 증세를 치료하던 우리의 생활상을 소개하

면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절실한 삶 자체였음을 ‘치성이나 드리듯이 정한 마음’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민속적 체험은 유구한 역사의 면면들이 아직까지 소통됨을 보여주는 매개물로서 충분한 유년 체험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古夜」에는 친족간의 사랑이 있고, 농촌 공동체의 긴밀한 유대감이 형성돼 있다. 방언의 활용, 다양한 음식물의 구사, 구전 설화, 민속놀이, 민속의식 등은 이들 관계에서 흐르는 정서가 민족·민중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와 같이 백석의 서술시는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양식이다. 한편 이 시는 이야기의 보다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외형적으로 산문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새롭고도 충실한 내용의 확보를 지향하기 위한, 즉 이야기가 가장 자연스럽게 구사될 수 있는 시적 양식이다.<sup>51)</sup>

황토 마루 수무남에 얼럭궁덜럭궁 색동헌걸 뜯개조박 뵈짜배기 걸리고 오쟁이 끼애리 달리고 소삼은 엄신 같은 뱀세기도 열린 국수당고개를 뿔번이고 튀튀 춤을 뿔고 넘어가면 골안에 아늑히 묵은 녁동이 무겁기도 할 집이 한채 안기었는데

집에는 언제나 센개 같은 계사니가 벽작궁 고아내고 말같은 개들이 떠들썩 깃어대고 그리고 소거름 내음새 구수한 곳에 엇송아지 히물쩍 너들 씨는데

집에는 아배에 삼춘에 오마니에 오마니가 있어서 젓먹이를 마을 청농 그늘 밑

---

51) 시적 응축이란 무엇보다도 시로서의 형태적 완결성 혹은 예술성을 지향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형태적 완결성 혹은 예술성의 표준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자유시의 경우 형태는 내용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작품마다 늘 새롭게 형성되기 마련이다. 한편 시에서의 산문의 확장이란 새롭고도 충실한 내용의 확보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문적 확장이란 그러한 내용의 확보를 위한 모험이라 하겠고 그 모험이 시적 응축과의 팽팽한 긴장관계 속에 수행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새로운 시가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최두석, 「백석의 시세계와 창작방법」, 『우리시대의 문학 제6집』, 문학과 지성사, 1987. p.105.

에 샷갓을 씌워 한종일내 누어두고 김을 매려 단냈고 아이들이 큰마누래에 작은마누래에 제 구실을 할 때면 좋아지물본도 모르고 행길에 아이 송장이 거적뻬기에 말려나가면 속으로 얼마나 부러워하였고 그리고 끼때에는 부뚜막에 바가지를 아이덜 수대로 주문히 늘어놓고 밥 한덩이 질게 한술 들여트려서는 먹였다는 소리를 언제나 두고두고 하는데

일가들이 모두 범같이 무서워하는 이 노큰마니는 구덕살이같이 육실육실하는 손자 증손자를 방구석에 들매나무 회채리를 단으로 찌다 두고 따리고 짜리깅이에 갓진창을 매여 놓고 따리는데

내가 엄매 등에 업혀가서 상사말같이 항약에 야기를 쓰면 한창 뛰는 함박꽃을 밑가지채 꺾어주고 종대에 달린 제물배도 가지채 찌주고 그리고 그 애기는 게사니알도 두 손에 쥐어주곤 하는데

우리 엄매가 나를 가지는 때 이 노큰마니는 어늬 밤 크나큰 범이 한 마리 우리 선산으로 들어오는 꿈을 꾀 것을 우리 엄매가 서울서 시집을 온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노큰마니의 당조카의 맏손자로 난 것을 다견하니 알뜰하니 기꺼이 녀기는 것이었다

-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전문

백석의 유년의 화자에 의해 재구되는 고향은 원형적인 삶의 공간이다. 즉 유년 화자에 의해 재현되는 고향은 현실사회의 비인간적인 삶의 구도로부터 인간적인 삶의 원형을 꿈꾸는 삶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시 「넘언집 범같은 노큰마니」도 제목 그대로 유년 화자가 넘언집의 노큰마니를 추억하고 있는 시편으로서 그리움의 정조가 바탕에 깔려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시와 같이 유년 화자가 등장하여 과거 소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에서 방언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방언은 토속적 세계

의 풍물이나 풍습을 구체적으로 여과 없이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다. 이는 보편적인 민중들의 의식을 따르는 것으로 이 시의 제목에서도 암시하듯 방언의 사용은 곧 토착적 세계, 민중적 삶의 원형을 회복하는 민족 지향적인 시 창작 방법의 일환이다.

이 시는 산문적 형식의 시로써 총 6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적 내용으로는 유년 화자의 회상에 의해 ‘넘언집 노큰마니’<sup>52)</sup>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삼는다.

1연은 이 시의 시적 공간이 국수당 고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노큰마니’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수당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적 화자의 시선에 의해 갖가지 사물들이 사실적으로 열거되고 있다. 이들 사물들은 토착적 세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방언들로 서술되고, 행위 주체자의 감정을 밝게 해주면서 시적 리듬감을 형성한다.

2연은 농촌 공동체적 삶의 일원들로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의 냄새, 소리 등은 후각, 청각, 시각적 이미지로 환기되면서 따뜻한 풍경을 이루는 요소들로 작용한다.

3연은 행위 주체자인 유년의 화자에 의해 ‘노큰마니’의 지나온 삶에 대한 과거를 듣고 다시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을 띤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회상의 행위 주체로서 ‘노큰마니’의 삶과 ‘노큰마니’를 회상하게 할 만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노큰마니’는 당대의 지난한 삶을 살아온 전형적인 여인을 형상화하고 있다.

4연에서 6연까지는 다시 유년의 화자가 체험한 ‘노큰마니’의 기억들을

---

52) 이 시에서의 노큰마니는 이동순은 老할머니로, 이승원은 증조할머니 혹은 그 항렬의 할머니로 풀이하고 있다.

이동순, 「민족시인 백석의 주체적 시정신」, 『백석시전집』, 창작과비평사, 1987. p.192.

이승원, 「백석 시의 전개와 그 정신사적 의미」, 『현대시와 현실 인식』, 한신문화사, 1990. p.48.

사건화 한다. 4연은 일가들에게 엄한 형상으로 각인돼 있지만, 이런 모습은 ‘노큰마니’의 사랑의 행위였음을 5연이 잘 보여준다. 그리고 6연에서 시적 화자인 ‘나’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위와 같이 백석은 유년의 화자를 통해 농촌 공동체의 삶의 원형을 복원하는 데 있다. ‘노큰마니’는 이 땅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여인, 즉 산전수전 다 체험한 삶의 이력을 지닌 여인이다. 그러나 일가족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 때로는 엄한 ‘노큰마니’로서 매를 들지만 그 밑바탕에는 짙은 애정이 깔려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백석은 ‘노큰마니’의 지난한 삶을 통해 당대 가족 해체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이들 세계를 이루는 언어적 요소로 방언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민중적 정서의 함양이다. 그리고 이들 언어는 인물의 구체적 행위를 보다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 효율적이다.<sup>53)</sup> 또한 이들 이야기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각 연들은 “~데”의 종결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다.

五代나 나린다는 크나큰 집 다 찌그러진 들지고방 어득시근한 구석에서 쌀독과 말쿠지와 숫돌과 신탕과 그리고 넷적과 또 열두 데석님과 친하니 살으면서

한 해에 몇번 매연지난 먼 조상들의 최방등 제사에는 킁킁한 고방 구석을 나와서 대떨머리에 외얏맹건을 지르터 맨 늙은 제관의 손에 정갈히 몸을 씻고 교의 우에 모신 신주 앞에 환한 촛불 밑에 피나무 소담한 제상 위에 떡 보탕 식혜 산적 나물 지짐 반봉 과일들을 공손하니 받들고 먼 후손들의 공경스러운 절과 잔을 굽어보고 또 애끓는 통곡과 축을 귀애하고 그리고 합문 뒤에는 흠향오는 구신들과 호호히 접하는 것

---

53) 김재홍, 「민중적 삶의 원형성과 운명에의 진실미, 백석」, 『한국문학』, 1989. 10월호, p.382.

구신과 사람과 냇과 목숨과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한줌 흙과 한점 살과 먼 넷  
조상과 먼 훗자손의 거룩한 아득한 슬픔을 담는 것

내 손자의 손자와 손자와 나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와 …… 水原白氏 定州白村의 힘세고 깨끗하나 어질고 정  
많은 호랑이 같은 곰 같은 소 같은 피의 비 같은 밤 같은 달 같은 슬픔을 담는  
것 아 슬픔을 담는 것

- 「木具」 전문

위의 시는 현실사회의 비극적 삶의 양상을 시적 대상인 ‘목구’를 통해  
역사적 단절 속에서 촉발되는 민족적 슬픔을 이야기한다. 민속문화는 한 민  
족의 기층문화를 뜻한다. 이들 문화는 역사적 전통 위에 그 고유성과 토착  
성을 함유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한 가운데에 자리한다.<sup>54)</sup> 백석의 시에서 전  
통적 양식 가운데 이러한 기층문화의 수용은 결국 “공동체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해온 강력한 민중적 응집력”<sup>55)</sup>을 드러내기 위한 시적  
태도다. 따라서 「木具」의 시적 세계는 역사적 단절이 가져온 당대의 비극  
적 삶의 양상을 극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백석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적  
매개물로서 민속적 소재인 ‘목구’를 통해 당대의 사회를 인식하고 민중적  
삶의 원형을 복원한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제기인 ‘목구’를 의인화하여  
서사적인 시적 세계를 전개시킨다.

「木具」는 4연으로 구성된 산문체의 시로, ‘목구’는 조상을 위하는 마  
음을 담은 집합체로써 산 자와 죽은 자의 만남을 이루는 매개체이며, 특수  
한 통합적 공간을 형상화한다.

1연은 ‘목구’가 위치한 시적 배경을 서술한다. 시적 공간은 5대나 내려  
오는 집의 찌그러진 고방인데, 고방은 ‘살독과 말쿠지와 숫돌과 싯뚝과 그

54)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지성사, 1986. p.63.

55) 임현영, 『民族의 狀況과 文學思想』, 한길사, 1986. p.60.

리고 또 열두 데석님과 친하니’ 살아 있는 살림살이의 실체가 모인 집합소이다. 이렇게 갖가지 조상의 때가 묻은 사물과 귀신까지도 일체감을 이루면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 목구인 셈이다. 따라서 ‘목구’는 겹겹이 쌓인 세월의 매개체며 상징물로 누대에 걸쳐 산 자와 죽은 자를 소통시켜 왔다.

2연에서는 ‘최방등 제사’<sup>56)</sup> 의식을 통해서 ‘목구’의 구체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목구를 주체로 하는 역동적인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킴킴한 고방 구석을 나와서 ~ 제관의 손에 정갈히 몸을 씻고’는 일상적 의미에서 제사라는 공간으로 이행되는 행위의 서술이고, ‘소담한 제상 위에 ~ 공손하니 받들고 먼 후손들의 ~ 절과 잔을 굽어보고’는 제사의 순차적인 행위의 과정이다. 또한 ‘애끓는 통곡과 축을 귀애하고 ~ 구신들과 호호히 접하는 곳’은 ‘목구’가 일상적 삶의 의미의 영역을 뛰어넘고, 조상과 조상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물로서의 구실을 담당한다. 따라서 ‘목구’는 가족과 가족을 연결시켜 주는, 동족간 혈연적 유대를 강화시킨다. 목구에는 ‘보탕 식혜 산적 나물 지짐 반봉 과일들’이 담겨 있다. 이들 음식물들은 과거와 현재를 소통시켜주는 ‘목구’를 통해서 따스한 고향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3연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와의 이항 대립적인 요소로써 ‘목구’를 묘사하고 있다. ‘목구’는 모든 대립적인 속성들, 즉 ‘구신/사람’, ‘녘/목숨’, ‘있는 것/없는 것’, ‘한줌 흙/한줌 살’은 바로 조상들로부터 후손

---

56) 평북 정주 지방의 토속적인 제사 풍습으로 차손이 맡아서 모시게 되는 5대째부터의 제사. 일반적인 제사의 풍습은 4대까지 장손이 맡아서 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 ‘최방등 제사’를 의도적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창작 방법의 원리가 민족 지향적인 시적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대의 역사적 단절에서 오는 비극적 상황을 이를 통해 극복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족간의 혈연적 유대는 곧 민족적 원형을 이루고 나아가 민족적 삶의 실체를 이루는 핵심적인 원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민족을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구체화시킴으로써 당대의 비극적인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동순, 「민족시인 백석의 주체적 시정신」, 『백석시전집』, 창작과비평사, 1987. p.209.

에 이르는 모든 무게를 실은 집합체로써 ‘먼 넋조상과 먼 훗자손의 거룩한 슬픔을 담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단절이 주는 슬픔으로 고향 상실감에서 빚어지는 것이고, 그 슬픔을 담는 제기인 ‘목구’는 상실감의 대응물이다.

4연에서 슬픔의 실체는 ‘목구’ 안에서 새로운 의미의 반전을 꾀한다. 즉 역동적 힘의 원천으로써 혈연적 유대감을 강화시킨다. 4연은 바로 3연의 대립적인 것들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줌으로써 새로운 시적 의미를 확장시킨다. 서술 주체인 시적 화자인 ‘나’를 중심으로 한 손자와 할아버지의 나열을 통해 ‘목구’ 안에 담긴 친족 공동체적인 삶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준다. 즉 ‘水原白氏 定州白村의 힘세고 꾀꾀하나 어질고 정 많은 호랑이 같은 꿈 같은 소 같은’ 이들의 삶은 누대에 걸쳐 가문의 흥망을 함께 하면서 오늘에 이른다. ‘밤’과 ‘달’ 그 안에 ‘피의 비’라는 원형적 생명력<sup>57)</sup>을 통해 무거운 삶 속에서도 면면이 이어지는 강인한 혈연의 실체를 담아낸다. 이렇게 목구는 조국상실에 따른 시적 대응물로 민중적 삶의 원형을 확장시켜 준다. 30년대 후반 일제 강점기의 압력이 가장 가혹했던 시기에 ‘원형’을 지킨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반성이며 저항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백석에게 있어 과거란 현재를 위한 과거이다. 말하자면 회상되고 재현된 과거는 잊고자 하는 현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 지식인인 그에게 있어 과거 회귀적 민속의 체험을 구체화하는 것은 민족적 일체감의 회복이라는 큰 명제에 해당하는 가치 자체였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는 ‘목구’를 의인화하여 당대의 역사적 단절에서 오는 민족적 상황의 실체를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이 시의 구심적인 세계는 전통적 삶의 양식에 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백석의 많은 시편에서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수용, 변용하고 있는 것은 민중적 삶의 원형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시 창작 방법이다. 이 시에서의 ‘최방등 제사’도 민중적 삶의 원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이다.

---

57) 필립 윌라이트, 김태욱 역, 『隱喻의 實在』, 문학과지성사, 1982. pp.114 ~ 129.

눈이 많이 와서  
 산엿새가 별로 나려 맥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보다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평사냥을 하고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이것은 어니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엿 은땡이 예데가리 밭에서  
 하로밤 뽀오한 흰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현 부엌에  
 산땡에 같은 분들을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넷날 한가하고 즐겁든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녀름별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  
 을 지나서  
 대대로 나며 죽으려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  
 서 텃텃한 꿈을지나서  
 지붕에 마당에 우물둔덩에 함박눈이 푹푹 쌓이는 여니 하로밤  
 아배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배 앞에는 왕사밭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밭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 곶의 잔등에 업혀서 길여났다는 먼 넷적 큰마니가  
 또 그 집등색이에 서서 자채기를 하면 산땡엿 마을까지 들렀다는  
 먼 넷적 튼 아버지가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습습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쨍하니 닉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땡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땡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

한 샷방 찢찢 끓는 아르굴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으젓한 사람들과 살뜰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枯淡하고 素朴한 것은 무엇인가

- 「국수」 전문

위의 시처럼 백석의 시적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음식물과 관련된 시가 많다.<sup>58)</sup>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은 식문화이다. 백석의 시편에서 보이는 이들 음식물은 보편적인 민중들의 먹거리로써 당대의 삶의 양식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sup>59)</sup>

이 시에서의 「국수」는 당대의 사회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민족상실의 대응물이다. 따라서 백석은 민중적 삶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루는 ‘국수’를 통해 민중적 삶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따뜻한 고향을 재현한다.

1연은 먼저 국수가 ‘반가운 것’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데, 이 반가움은 시 전반의 주요 모티브가 된다. 국수는 구수한 즐거움으로 ‘은근하니 흥성 흥성 들뜨게 하는’ 사물이며 아득한 옛날부터 대대로 이어져와서 사람들과 매우 친숙한 사물이다. 그래서 ‘산명예(전설상의 커다란 뱀, 이무기) 같은 분들을 타고 오는 것이다’ 처럼 ‘국수’를 만드는 틀을 이무기의 움직임으로 비유한다. 그리하여 아득한 옛날부터 ‘대대로 나서 죽으며 나며 오는 것이고’, ‘이 마을 사람들의 으젓한 마음’을 싣고 ‘먼 넷적 큰 아버지가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따라서 ‘국수’는 역사적 단절이 주는 상실감의 극복이며 삶의 연속성, 면면히 내려오는 역사의식의 주체로서 강인한

58) 백석의 시에는 음식물과 그와 관련된 시어들이 두드러지게 많이 쓰이고 있다. 그의 전체 시편 97편 가운데 이들 시어가 구사되고 있는 시편은 66편으로 68%에 해당된다.

59) 백석의 시에서 식문화 중 ‘국수’는 여러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국수’ 관련 음식어가 구사되고 있는 시는 「국수」 외 「山宿」, 「夜半」, 「白樺」, 「개」, 「夜雨小懷」, 「北新」이 있다.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듯이 ‘국수’는 당대의 보편적인 민중적 삶의 먹거리로써 ‘고향’을 환기하는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

생명력을 표상한다. 즉 ‘국수’는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민중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냄으로써 민중적 삶의 원형을 복원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

2연에서는 민중적 삶의 원형을 이루는 그 마음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동티미국, 멩추가루, 싱싱한 산평의 고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다. 이는 민중들의 삶을 이루는 원형으로써 백석은 이 시에서 시적 대상 세계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중적 삶의 원형을 복원하고자 한다.

3연에서의 시인은 ‘살뜰하니 친한 것’과 ‘枯淡하고 素朴’한 것이 무엇인가 묻고 또 묻는다. 국수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고향의 그리움과 삶 자체를 표상하고 있는 상징물로 본다고 할 때, 이 물음은 단절된 현실사회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묻는 것과 같다.

「국수」는 시적 대상과 관련된 사실이나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야기의 주체는 모두 고향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으며, 이들은 고향을 환기시키는 매개체이다. 즉 갖가지 정경이 ‘국수’를 통해 연상되고, 그 연상되는 주체는 먼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의 삶 속으로 견인되면서 민중적 삶의 원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시적 대상은 현실적 공간을 뛰어넘어 설화의 세계까지 이어준다. 하지만 먼 옛날부터 내려오던 설화적인 상상적 세계로 함몰되지 않고 온전히 현재적 삶으로 다시 복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백석의 서사 양식의 확장은 민중적 삶의 원형을 회복하고 복원하는 데 근간을 두고 있다. 시인은 역사적 단절에서 파생되고 있는 제반 문제를 극복하고자 ‘국수’를 시적 세계로 전이시킨다.

마을에서는 세불 김을 다 매고 들에서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백중 날에는 새악시들이  
생모시치마 천진뢰치마의 물팍치기 경추렁한 치마에

쇠주뿔적삼 향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한끝나게 상나들이웃을 있는 대로 다 내입고  
 머리는 다리를 서너 켜레씩 들어서  
 시뻘건 꼬들채뎡기를 빼뚜룩하니 해꽃고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고개를 뗏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무씩무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건들건들 씨언한 바람이 불어오고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벽이고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두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프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고개를 뗏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치듯 하였는데  
 봉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깨죽이며 문주며 쉼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뻑 맞고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봉가집에 가는 것이다  
 봉가집을 가면서도 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씨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 「七月 백중」 전문

위의 시는 민중적 삶의 원형이 농촌 공동체 마을의 정겨운 삶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복원된다. 이 시의 배경인 백중<sup>60)</sup>은 우리 고유의 명절로서 민중들

60) 음력 7월 15일을 中元 또는 백중날이라고도 한다. 불교에서는 이날 죽은 자를 위해 불공을 드린다. 고려시대는 이날 盂蘭盆會를 베풀었다. 민가에서는 이날을 亡魂日이라고도 한다. 민초들은 이날 저녁 달밤에 채소, 과일, 술, 밤 등을 차려 놓고 죽은 아버지의 혼을 부르기도 하였다. 한편 백중은 특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장에 나가 마시고 먹

의 염원과 소망이 갈무리되는 최대의 축제다. 앞서 지적했듯이 백석의 많은 시편에서 원용되고 있는 전통적 삶의 양식은 곧 단절된 역사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시적 태도이다. 이 시 또한 당대 반민족적인 일체의 것들을 부정하기 위한 시적 태도로써 민족·민중 의식의 확대에 있다. 즉 보편적인 민중들의 삶의 정서를 통해 농촌 공동체적 마을을 복원시킨다. 또한 그 속에서 자족적인 고향이 구가된다. 이는 백석의 현실사회에 대한 역사의식의 단면을 살필 수 있는 시 창작 방법이다.

이 시는 비연 형태의 26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1행은 이 시의 시간적 배경으로 시적 전개 과정에서 시적 세계를 암시한다. ‘마을에서는 세불 김을 다 매고’에서 보여지 듯 절기상 가을의 길목으로 드는 접경에 백중이 있다.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별 길에는/ 건들건들 씨언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그간 바쁜 농사일로부터 해방되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의미를 지닌다. 그리하여 5행부터는 대상 세계인 백중날의 정겨운 민속적 풍습이 시적 화자에 의해 서술된다. 갖가지 의상들이 이들의 심성을 밝게 반추하고, 또한 음식물들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농촌 공동체적 삶의 유대감을 강화시킨다.

이 시는 전통적인 세시풍속을 통해 단절된 역사의 주체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제 모습을 찾고자 한다. 그의 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사양식의 도입은 당대 현실사회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고향 상실에 따른 시적 대응물으로써 ‘고향’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민족을 복원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

고 노는 것으로써 낙을 삼기도 하였다. 농가에서도 머슴에게도 돈을 주어 하루 쉬게 하는 풍습이 있다. 머슴은 그 돈으로 장에 나가 흥청하게 하루를 즐기게 되는데서 백중장이라는 말이 유래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날은 그 해의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소에 태워 마을을 돌며 위로하며 논다. 이것은 바쁜 농사를 끝내고 하는 농군의 잔치로 ‘호미씻이’라 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찬부,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46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시 세계를 이루는 이야기의 주체는 고향의 다양한 풍물로서 전통적 삶의 양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당대 반민족적인 일체의 것들을 부정하기 위한 시적 태도로 민족·민중 의식의 확대에 있다. 이런 점들이 조국 상실에 따른 민족적인 삶 또는 민중적인 삶의 원형을 회복하고 복원하고자 하는 시 정신이다.

### 3. 서술시의 서사적 구성요소

백석 시의 형식적 특질을 논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바로 서사성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정시의 본령이 서정적 자아와 시적 대상의 내면적 융합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정통 서정시의 영역에서 벗어나 시에서도 서사적 기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 역시 현대시사의 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백석과 당대의 문학운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므로 백석 시의 서사적 경향은 그만의 독특한 세계 인식의 결과요 표현상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정시는 다른 장르에 비하여 주관적인 정서의 표현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현실의 대상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여 형상화한다. 이때 형상화에 작용하는 여러 요건 중에서 서사 지향성, 즉 이야기나 사건의 전개와 도입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시에서 서술 구조를 채택하는 것은 시인이 주관성을 직접 표출하기보다는 독자에게 사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리얼리즘시에서 주로 채택되는 기법으로 볼 수 있다.<sup>61)</sup> 현실에 대한 직접적 관심의 시화(詩化)가 서술시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동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때, 백석 시의 서사적 언술은 다양한 시적 자아를 통하여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있어야 할 아름다움을 형상화

---

61) 윤여탁, 「시의 서술구조와 시적화자의 기능」, 『리얼리즘시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1994. pp.234 ~ 238.

하고자 하는 필연적 노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백석 시의 시적 자아는 있어야 할 아름다움을 강요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현실의 괴로움을 외면하거나 동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 백석은 현실의 문제를 시화(詩化)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서사의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서사에 대하여 제랄드 쥬네뜨는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하고 있다.<sup>62)</sup> 첫째, 하나의 사건이나 일련의 사건을 말하되 서술적 진술로 된 것, 둘째, 담론의 주체와 그들이 만들어 내는 사건들을 포함할 것, 셋째, 사건만이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언급한 화자를 둘러싼 사실이나 서술이나 서술하는 그 자체를 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규정을 놓고 보면 결국 서사의 개념은 ‘이야기의 재현’이라는 축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채트먼은 이야기의 요소로서 사건적 요소의 행위(돌발사)와 사물적 요소로서의 인물과 배경을 중시하고 있다.<sup>63)</sup> 그런데 백석의 시에는 이러한 서사적 요소가 적절하게 시속에 변용되어 대상과 거리를 객관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백석의 시가 현실의 객관적 반영을 위한 이야기 형식의 지향이라 할 때, 얼마만큼 위에 나오는 이야기의 구성요소, 즉 사건과 인물과 배경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당대의 작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 백석 시의 이해의 관건적 요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백석 시 세계는 민족의 풍물과 삶의 양상을 그만의 독특한 이야기 형식의 서사로써 객관적인 제시에 노력하였다. 즉 배경과 인물 그리고 사건의 서술을 통해 전통적 풍속과 고향의 삶을 객관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당대 황폐화된 현실에 나름대로의 시적 대응을 해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백석의 서술시에 서사의 구성요소, 즉 배경, 인물, 사건과 이야기 형식의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화가 그의 시에 어떻게 결합되어 당대의 작가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62) 제랄드 쥬네뜨, 『서사담론』, 교보문고, 권영택 역, 1992. p.15.

63) Seymour Chatman, and Discourse-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고려원, 1990. p.179.

## 1) 배경

우선 서사의 구성요소인 배경이 그의 작품 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 ① 잠자리 조을든 문혀진 城터

헐리다 남은 城門이

- 「定州城」에서

어두어오는 城門밖의 거리

- 「城外」에서

주홍칠이 날은 旌門이 하나 마을 어구에 있었다

‘孝子盧迪之旌門’ -문지가 겹겹이 얹은 木刻의 額에

- 「旌門村」에서

### ② 平安道の 어니 山깊은 금덤판

- 「여승」에서

차디찬 아침인데

妙香山行 乘合自動車는 텅하니 비어서

- 「八院-西行詩抄3」

### ③ 승냥이가 새끼를 치는 전에는 쇠메 들 도적이 났다는 가즈랑고개

가즈랑집은 고개 밑의

山너머 마을서 도야지를 잃는 밤 증생을 쫓는 깡제미 소리가 무서웁게 들려

오는 집

닭 개 증생을 못 놓는

멧도야지와 이웃사촌을 지나는 집

- 「가즈랑집」에서

아배는 타관 가서 오지 않고 山비탈 외따른 집에 엄매와 나와 단둘이서 누가 죽이는 듯이 무서운 밤 집뒤로는 어니 山골짜기에서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들이 도적놈들같이 쿵쿵거리며 다닌다.

- 「古夜」에서

배경은 한 편의 서사물에서 이야기의 성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공간적, 시간적 자질의 총화를 가리킨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것들은 존재의 범주이듯이 행동과 사건이 가능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사실 소설에서의 배경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중요성밖에는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sup>64)</sup> 그러나 시에서는 장르 특성상 배경의 기능이 이야기의 분위기에 대한 기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배경으로부터 작품 속의 인물을 구별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백석은 이야기 형식을 지향하면서 서사의 구성요소인 배경을 그의 시 속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①은 백석이 고향인 함경도 지역의 정주성이나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 작품은 모두 다 제목과 배경이 적절하게 어울려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주성」에서는 ‘문허진 성터’와 ‘헐리다 남은 성문’을 황폐화된 배경으로 제시함으로써 흥경래난의 격전지였던 정주성에 대한 역사의 허망함과 무상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정주성」이 성문과 성 자체에 대한 서술이라면 「성외」에서는 ‘어두워 오는 성문 밖의 거리’라 묘사함으로써 저녁의 시간적 배경과 성문 밖의 거리란 공간적 배경을 통하여 어둠 속에 잠겨 가는 쓸쓸한 분위기와 사건이 이어짐

64)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p.168.

을 암시하고 있다. 「정문촌」에서도 정문(旌門)에 ‘孝子盧迪之之旌門-몬지가 겹겹이 얹은’ 이란 표현에서 정문 글씨를 한문으로 씌므로 해서 정문의 사실감을 극대화하는 한편, ‘몬지가 겹겹이 얹은’ 이란 부분에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문 자체의 무관심과 훼손을 통하여 가치관의 상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②는 각각 1936년과 1939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비극적 현실 속에 살아가야 했던 당대의 현실을 나타낸 배경이다. 당시에 금광은 일제의 수탈 정책으로 방방곡곡에서 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소위 골드러시를 이루며 너도나도 몰려들어 노다지를 캐겠다는 허황한 투기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전 국토가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다. 따라서 「여승」에서는 평안도 산골의 금덤판(금광)을 배경으로 거기에서 만난 한 인물의 비극적 삶이 암시되어 나타난다. 「팔원」에서는 아침이란 시간적 배경을 통해 차가운 현실을 나타낸다. 또 ‘승합자동차는 텅하니 비어서’란 배경은 당대 민중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남으로써 한국 사회가 공동화되고 더구나 요금을 내고 차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③은 토속적인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유년의 회귀적 화자의 체험이 시의 이야기를 형성한다. 이 시에서 시의 배경이 깊은 산골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승냥이와 멧도야지와 같은 짐승이 등장하고, 가즈랑고개에서는 각행 끝에 ‘-가즈랑고개’, ‘-집’, ‘-집’으로 끝을 처리함으로써 공간적 배경의 효과를 고조시킨다. 또한 그러한 산골에 사는 유년 화자의 무서움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두 작품 다 ‘도야지를 잃은 밤’과 ‘아배가 타관으로 나가 집안에 엄마와 나와 단 둘이서 있는 무서운 밤’이라 하여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똑같이 채용하고 있다. 거기에 ‘쇠메 들 도적’ ‘노다리꾼(밀도살꾼)들이 도적놈같이’ 등 도둑이 주는 이미지가 시에서 무서운 분위기를 형성하여 시가 이야기로써 전개되기에 적절한 배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 2) 인물

백석 시에 나타나는 인물의 유형과 그 성격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백석의 문학이 지니고 있는 지향과 가치관을 보다 확연히 꿰뚫어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의 시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되어 나타난다.

① 女僧은 合掌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佛經처럼 서러워졌다

平安道の 어니 山 깊은 금뎀판

나는 파리한 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女人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 「女僧」에서

어니 아츰 계집은

머리에 무거운 동이를 이고

손에 어린것의 손을 끌고

가피로운 언덕길을

숨이 차서 올라갔다

- 「絶望」에서

차디찬 아침인데

妙香山行 乘合自動車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옛말속같이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손 잔등이 밧고랑처럼 몹시도 터졌다

- 「八院」에서

촌에서 온 아이여  
촌에서 어제밤에 승합자동차를 타고 온 아이여  
이렇게 추운데 옷동에 무슨 두름이 같은 것을 하나 걸치고 아랫두리는 쪽발  
가벗은 아이여  
뿔다구에는 징기징기 양광이를 그리고 머리칼이 놀한 아이여  
힘을 쓸라고 벌써부터 두 다리가 푸등푸등하니 살이 찢 아이여

- 「촌에서 온 아이」에서

② 얼굴에 별자국이 솟솟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꺾벽거리는 하로에 배 한 필을  
짚다는 별 하나 건너 집엔 복숭아나무가 많은 新理 고무 고무의 딸 李女 작  
은 李女

열여섯에 四十이 넘은 할아버지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젓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마을 가까이 사는 土山 고무  
고무의 딸 承女 아들 承동이

六十理라고 해서 과랴게 보이는 山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  
이 빨간 언제나 흰웃이 정하든 말끝에 설게 눈물을 짤때가 많은 큰골고무 고  
무의 딸 洪女 아들 洪동이 작은 洪동이

배나무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섬에 반  
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춘 삼춘엄매 사춘누이 사춘동생들

- 「여우난골族」에서

예순이 넘은 아들 없는 가즈랑집 할머니는 중같이 정해서 할머니가 마을을

가면 긴 담뱃대에 독하다는 막써레기를 뗏대라고 붙이라고 하며

- 「가즈랑집」에서

나는 이 털도 안 뽑은 도야지 고기를 물구러미 바라보며

또 털도 안 뽑은 고기를 시꺼먼 맨모밀국수에 얹어서 한입에 꿀꺽 삼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 「北新」에서

일가들이 모두 범같이 무서워하는 이 노큰마니는 구덕살이같이 육실육실하  
는 손자 증손자를 방구석에 들매나무 회채리를 단으로 찌다 두고 따리고 싸  
리쟁이에 갓진창을 매여 놓고 따리는데

-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에서

③ 오리치를 놓으려 아배는 논으로 내려간 지 오래다

……중략……

장날 아침에 앞 행길로 엄지 따라 지나가는 망아지를 내라고 나는 조르면  
아배는 행길을 향해서 크다란 소라로

-매지야 오나라

-매지야 오나라

새하려 가는 아배의 지계에 지워 나는 산으로 가며 토끼를 잡으리라고 생각  
한다

- 「오리 망아지 토끼」에서

나는 北關에 혼자 앓어 누어서

어느 아침 醫員을 뵈이었다

醫員은 如來 같은 상을 하고 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넷적 어둠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드니

……중략……

醫員은 또 다시 넌즈시 웃고  
말없이 팔을 집어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故郷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 「故郷」에서

①의 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백석 시의 인물 유형 중 첫 번째는 당대의 부정적 시대 현실에서 희생당한 우리 민중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일제 강점기하에 유이만의 삶의 한 단면을 표출하기 위한 시대적 전형성을 띠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물의 비극적 삶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인은 주로 여인이나 어린 아이를 등장인물로 내세우고 있다. 「여승」에서는 금점판의 ‘파리한 여인’이 부정적 시대 상황 속에서 ‘쓸쓸한 낮의 여승’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주변인물로 딸아이를 설정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또 「절망」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무거운 것을 이고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을 중심인물로 딸아이는 부수적 인물로 ‘절망’의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팔원」에서도 ‘진진초록 새 저고리’를 입고 있는 ‘나이 어린 계집애’를 등장시켜 조선 민중의 전형성을 획득하고 그렇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만 했던 우리 민중의 아픔을 ‘밭고랑처럼 터진 손등’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촌에서 온 아이」에서는 더욱 더 어린 아이가 나타난다. 더구나 그 아이는 추운 날씨임에도 발가벗고 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비극적인 것은 앞으로 ‘힘을 쓸랴고 별써부터 두 다리가 푸등푸등 살 찢 아이’라 하여, 아이의 삶에 대해 화자는 부정적 전망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러한 여인과 어린아이가 당대의 힘겨운 삶을 헤쳐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하여 시인은 배경으로 모두 차가운 아침이나 추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②에서 ‘가즈랑집의 할머니’와 ‘여우난곶族의 인물’은 백석 시의 인물유형의 두 번째로 토속적이며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여우난곶族」에서는 세 명의 고모와 한 명의 삼촌이 등장하는데, 그들 모두는 4개씩의 관형질의 수식을 받는다. 그들의 삶은 외모(신리고모와 큰골고모)나 결혼(토산고모와 큰골고모)이나 성격(토산고모와 삼촌)에서 볼 때, 그리 행복하다거나 순탄한 삶을 살아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인물이 당대 우리 민족 대다수의 삶의 모습이며, 그들의 삶이 곧 서민들의 생활 그 자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나약하다거나 패배자적인 인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긴 담뱃대에 독하다는 막써래기를 뗏대라고’ 붙이는 인물이며, ‘털도 안 뽑은 고기를 시꺼먼 맨모밀국수에 얹어서 한입에 꿀꺽 삼키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오히려 강인하며 원시적인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에서 보이는 ‘모두 범같이 무서워하는 이 노큰마니’처럼 겉으로는 무섭지만 어두운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이며 강인한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③에서 보이는 인물은 모두 아버지로 표상되는 따뜻하고 자애로운 인물형이다. 「오리 망아지 토끼」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시적 자아가 유년시절에 느꼈던 과거 속의 인물로 아들을 위해 ‘논으로 직접 뛰어들고’, ‘송아지를 부르고’, ‘아들을 지게에 태우는’ 매우 현신적이며,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상을 보여준다. 「고향」도 북관에서 만난 의원을 통해 따뜻하고 자애로운 ‘고향’의 아버지의 모습을 환기시킨다. 시에서 개성적이거나 입체적인 인물을 창조한다는 것은 장르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평면적이며 전형적인 인물로 시대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향일 것이다. 「고향」에 등장하는 고향의 아버지와 같은 의원은 부처님의

모습과 관우의 수염과 신선의 모습을 지닌 인물로 역사와 종교 속에 등장하는 전형성의 인물이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과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탈속의 풍모를 지녔으면서도 자애롭고 따뜻한 인간이며 현실 속의 인물인 것이다. 시적 자아는 그들을 통해 부정적이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 위안을 받고 어려움을 견디어 낸다.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그의 시 속에 인물은 거의 절대 다수가 낮고 평범한 민중적 신분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착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호소하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저 평범하게 자신의 일상적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민초들인 것이다. 시인이 굳이 이러한 인물들과 그들의 구체적 생활을 담으려 했던 데는 가장 다수의 사람들의 처지를 대변하며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는 역할에 대한 자각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듯하다. 친족 집단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방계 집단을 중심 인물로 등장시켜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던 민족이었음을 강력히 환기하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식민지 시대의 제국주의 침탈과 문화적 유린 속에서 민족의 주체성이 완전히 말살되어 가는 위기에 직면하여 시인의 자기인식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관심을 극대화시키도록 추동했을 것이다.

### 3) 사건

이야기에서 ‘사건’은 자명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전통 서사학에서는 사건이라는 것 자체에 오히려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구조시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사건을 스토리 선상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로 간주한다.<sup>65)</sup> 그런데 백석은 그의 시에서 사건을 서술하되

65)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p.201.

한편 채트먼은 서사물에서 이야기의 주요한 흐름을 이끌어가는, 다시 말하면 서사적

소위 변형의 기법<sup>66)</sup>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order)를 표준적 계기성에서 그렇지 않은 시간 변조(anachronous)로 뒤바꾸는 특성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는 짧은 시속에 갑자기 과거의 시간이 제시되는 회상의 기법을 동원하여 소급제시(analepsis)의 기법을 펼쳐보이는 것이다.<sup>67)</sup>

女僧은 습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佛經처럼 서러워졌다

平安道の 어늬 山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쉴별같이 나아긴 지아비 기다려 십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

구조 안에서 뼈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기점으로서의 핵사건(Kernels)과 주요한 사건과 덜 중요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주변사건(Satellites)으로 나누었다.

Seymour Chatman, *Story and Discourse-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 『이야기와 談論』, 고려원, 1990. p.179.

66) 채트먼은 서사물의 특성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가 유기적인 조직으로서의 ‘전체성’ 과,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 그 연속을 뒤바꾸는 일종을 플래쉬백 기법의 ‘변형성’, 그리고 구조 그 자체로서의 ‘완결성’ 을 암시하는 자기규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Seymour Chatman, *Story and Discourse-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 『이야기와 談論』, 고려원, 1990. p.179.

67) 소급제시(analepsis)는 현재의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과거의 시간이 끼어 들어 와서 현재의 사건들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고, 사전제시(prolepsis)는 그 반대로 현재의 사건들의 진행 중에 뒤이어 일어날 사건들이 앞질러 제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山峯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山 절의 마당귀에 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女僧」 전문

차디찬 아침인데

妙香山行 승乘自動車는 텅하니 비어서

나이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오른다

…… 중 략……

계집아이는 몇해고 内地人 駐在所長 집에서

밥을 짓고 걸레를 치고 아이보개를 하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고 손이 푹푹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쳤을 것이다

- 「八院」에서

뒤울안 살구나무 아래서 광살구를 찾다가

살구벼락을 맞고 울다가 웃는 나를 보고

밀구멍에 털이 뿔자나 났나 보자고 한 것은 가즈랑집 할머니다

찰복숭아를 먹다가 씨를 삼키고는 죽는 것만 같어 하로종일 놀지도 못하고 밥도 안 먹은 것도

가즈랑집에 마을을 가서

당세 먹은 강아지같이 좋아라고 집오래를 설레다가였다

- 「가즈랑집」에서

「여승」에서는 여승을 만나는 것이 현재이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과거의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승의 비극적 일생을 표현하기 위하여 회상 수법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가 본 것처럼 서술한다. 따라서 실제 사건의 발생순서는 2→3→4→1의 순서를 따르는 시간 변조 중 회상(retrospection), 플래시백(flashback), 소급제시(analepsi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간 변조를 통해 여승의 짧은 진술 위에 화자가 적극적으로 상상의 옷을 입혀 여인의 기구한 삶을 더 비극적으로 보여주되 객관적인 관찰자의 위치에서 구체화시킨다. 「팔원」이나 「가즈랑집」도 마찬가지로 사건 표현이 중심이다. 다만 여기에서도 「팔원」의 전반부는 현재의 시간이고, 후반부는 과거적 사실로, 주재소장 집에서 찬물에 걸레질을 하며 남의 집살이를 하는 여자아이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관찰자인 시적 화자가 상상을 하는 회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추측의 내용이 현재의 실제 상황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묘사된다. 즉 현재를 앞에 제시하고 지나간 삶을 회상하면서 구체적으로 나뉠대로 상상하는 것이지만, 보여주기(showing)에 의해 구체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시간의 역전에 해당하는 기법도 대상과 시적 자아와의 적절한 거리 두기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즈랑집」도 전반부에서 시적 화자에게 가즈랑집 할머니가 밀구멍에 털이 뿜자나 났나 보자고 한 것은 과거이지만, 시의 끝부분인 ‘설레다가였다’라는 표현에 암시되는 찰복숭아를 먹다가 씨를 삼키고는 죽는 것만 같아 하루종일 놀지도 못하고 밥도 안 먹은 것은 소위 대과거에 해당한다. 과거 속에 또 다른 과거가 담겨 있는 것이다.

백석의 시는 다른 장르에 비해 주관적 정서의 표현이 두드러지는 서정 양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의 복잡한 양상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술시를 도입하였고 특히 시간의 변조를 통해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시간의 변조에 의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특성을 통해 당대 현실을 더욱 적절하게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 4) 대화

백석의 시에는 ‘대화’가 이야기 형식의 시에서 자주 등장한다. 대화는

주로 작중인물의 행위라는 점에서 사건적 요소에 넣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대화에 의해서 사건이 자세히 설명되어지며, 소위 보여주기(showing)에 의해 설명적 개입을 차단시키고 사건을 극화하며 장면화함으로써 이야기의 사실감을 높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줄글을 곧장 읽어 내려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의 따분함이나 단조로움을 극복하려는 의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 ① 담모도리 바윗잔등에 다람쥐 해바라기하다 조은다 토끼잠 한잠 자고 나서 세수한다 흰구름 건넌산으로 가는 길에 복사꽃 바라노라 섰다 다람쥐 건넌산 보고 부르는 푸념이 간지럽다

저기는 그늘 그늘 여기는 쨍쨍-  
저기는 그늘 그늘 여기는 쨍쨍-

- 「黃日」에서

장날 아침에 앞 행길로 엄지 따러 지나가는 망아지를 내라고 나는 조르면  
아빠는 행길을 향해서 크다란 소리로  
-매지야 오나라  
-매지야 오나라

- 「오리 망아지 토끼」에서

- ② 나는 北關에 혼자 앓어 누어서  
어느 아침 醫員을 뵈이었다  
.....중 략.....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드니  
문득 물어 故郷이 어디냐 한다  
平安道 定州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氏 故郷이란다

그러면 아무개氏를 아느냐 한즉  
醫員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莫逆之間이라며 수염을 쓸니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醫員은 또 다시 넉스시 웃고  
말없이 팔을 집어 맥을 보는데

- 「故郷」에서

병이 들면 풀밭으로 가서 풀을 뜯는 소는 人間보다 靈해서 열걸음 안에 제  
병을 낫게 할 藥이 있는 줄을 안다고

首陽山의 어늬 오래된 절에서 七十이 넘은 로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며 치마  
자락의 산나물을 추었다

- 「절간의 소 이야기」 전문

①의 「황일」은 동시를 연상시키는 분위기를 보여주는 시인데, 시의 끝  
부분에 다람쥐와 토끼가 등장한다. 그 중 봄날 다람쥐가 건너 산을 바라보  
며 부르는 ‘푸념’이 직접화법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저기는 그늘 그  
늘 여기는 쉿쉿-/ 저기는 그늘 그늘 여기는 쉿쉿-”의 2번에 걸친 반복적  
표현에서 봄날의 따뜻함과 평화로움이 속삭임처럼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이  
다. 「오리 망아지 토끼」에서도 망아지를 사달라는 아이의 투정에 아배가  
송아지를 부르는 “-매지야 오나라/ -매지야 오나라” 부분이 두 번 반복되  
어 아버지의 친근하고 정감 있는 장면이 아름답게 실연되는 것이다. 또한  
즐거움을 읽어내려 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단조로움도 극복되고 장면이 더욱  
구체화된다.

②의 「고향」과 「절간의 소 이야기」는 간접화법으로 나와 의원과의 대

화를, 그리고 절간에서 만난 어느 로장과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고향」에서는 나의 이야기가 끼어 들고 있는 반면, 「절간의 소 이야기」에서는 로장의 이야기만 진술되고 있다. 두 작품 다 잔잔하게 전개되는 진술을 통하여 다정하고 친근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백석은 배경과 인물과 사건의 세 요소를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짧은 시 속에서 서술시의 가능성을 열어 보였다. 그리하여 현실적인 삶의 여러 모습과 토속적 삶의 이야기를 “주관 혹은 화자의 개입없이 객관적으로 사상화(寫像化)”<sup>68)</sup>하는 것이야말로 백석이 형상화하는 서술시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몇몇 이야기의 내용은 백석이 창작활동을 펼치던 1930년대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식민지 정책이 극도에 달해 가던 당대의 사회적 현실이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공동체적 생활로 이어질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인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이같은 백석 시의 경향은 해체된 공동체에 대한 복원을 역설적으로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과거 유년기의 행복했던 공동체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속신의 재현,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표현 매체인 투박한 방언의 사용으로써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유이민적 삶의 단면을 시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백석 시의 시적 화자는 자기 스스로의 체험과 사유를 통해서, 혹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상의 형상화를 통해서 해체된 공동체에 대한 시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징과 은유라는 기법적 장치보다는 서사성을 지니는 시구를 타고 재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의 이야기화는 당대 삶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

68) 이은봉, 「백석 시의 표현방법에 대한 일고찰」, 『승실어문 5집』, 승실어문연구회, 1988. p.127.

## IV 서술시의 교수-학습 방안

시 읽기는 시라는 텍스트가 갖는 속성의 다양함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음악성, 형상성, 압축성’ 등의 세 요소는 기실 시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하지만 이 요소들이 시의 전부를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대시 중에는 전통적으로 시의 핵심 요소로 여겨져 온 요소 및 관습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이탈하는 면모를 보이는 시들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시학에서는 서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서술이 인간의 언어·행위·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소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의 은폐된 의미를 들추어내는 하나의 인식론적인 틀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서정성의 틀 안에서 정의되어온 시에 대한 개념이 확장된 것으로 서정성에 대한 긍정의식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백석은 당대 어느 유파나 동인에도 가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시 세계를 구축하는데 그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서사양식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민족 의식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민족의 원형을 회복함으로써 역사의 주체를 바로 세우고자 하였다. 이는 다른 장르에 비하여 주관적인 정서의 표현을 강조하는 서정시의 틀 안에서는 당대의 암울하고 복잡한 상황을 형상화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실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시화하기 위한 형상화 방법 중의 하나로 서사 지향성, 즉 이야기나 사건의 전개와 도입을 통해 서정시의 개념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백석 시의 특징은 학생들이 문학 교육을 통해 그 사회의 문화에 입문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갖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술시라는 생소한 양식을 접하면서 현대시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본고에서는 7차

국어과 (상)권에 실린 「여승」을 제재로 선택하였다. 이 시는 백석의 많은 시편들 중에 사회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특히 서사적 요소인 이야기를 도입하여 당대의 암울한 생활상을 잘 형상화시키고 있다. 즉, 식민지적 삶의 정황을 묵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금덤판’이라는 시적 배경과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기구한 사연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준다. 이러한 인물은 부정적 시대 현실에서 희생당한 우리 민중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리한 여인’과 주변인물로 딸아이를 설정하여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또한 회상 수법을 사용하여 시간을 변조하고 이를 통해 여승의 짧은 진술 위에 화자가 적극적으로 상상의 옷을 입혀 여인의 기구한 삶을 객관적인 관찰자의 위치에서 구체화시킨다. 이와 같이 이 시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서사적 구성요소가 명확하고 서사적 시간으로 재편된 구조로 되어 있어 서술시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하지만 낱것인 이야기와는 달리 풍부한 서정성도 담겨있어 시의 본질적 특성과 이야기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제재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을 한 가족의 몰락을 통해 보여주면서 학습자에게 그들이 속한 집단의 사회 문화적 이해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로 인해 소외된 통일문학이 교과서에 수록되었지만 6차 교육과정 안에서는 제대로 된 시 교육과 학습자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교사가 한 편의 시를 가지고 한 시간 내에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 수업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도 어렵지만 학습을 하는 학생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참고서에 나와 있는 시의 형식을 정리해 주고 주제와 내용 설명을 강의식 수업에 의존하여 가르치다보면 시 감상에 의욕을 잃고 포기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교수 학습방법을 가지고 가르칠 때 효과적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시 감상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21세기를 열기 위한 교육 개혁의 산물로서 7차 교육과정은 기존 교육과정 체제와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 7차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현장중심·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응집되어 있다. 이는 정보 사회, 지식 사회로 표현하는 21세기에 세계 속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신교육 체제의 수립이라는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이것이 발전 지향적인 국어 문화의 창조에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어 교육은 위와 같이 제 7차 교육과정 개편에까지 이르렀지만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따르지 못하여 교사가 기존의 교육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람직한 교육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현실에 따른 여러 대책이 있겠으나 현 실정에서는 우선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시에 대하여 흥미를 갖고 감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방법, 즉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탈피하여 학생 중심의 발표, 토론식 수업으로 전환하는 데 적합한 지도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1)전체적 접근, (2)부분적 접근, (3)종합적 접근, (4)발전적 접근’<sup>69)</sup>으로 세분하여 텍스트에 대한 느낌 형성, 해석, 의미 확장, 내면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학습 독자의 내면에 수용된 작품은 그들의 내면에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삶에 대한 또 하나의 스키마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큰 틀을 중심으로 7차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백석의 「여승」을 제재로 삼아, 재진술된 이야기와 시로 정제된 ‘서술시’를 비교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학습자들이 시의 본질에 대해 재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이야기의 구조가 시의 아름다움

69) 천수진, 「학습자 중심 현대시 지도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2003. p.53.

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매체인 만화로 시의 세계를 재창조하게 하고 재진술된 이야기를 소설로 쓰게 함으로써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1. 교수-학습 방안의 실제

여승(女僧)은 합장(合掌)을 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슬슬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 밤같이 차게 울었다

섬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궤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山(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人)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승」 전문

## (1) 전체적 접근(텍스트에 대한 느낌 형성 단계)

기대 지평의 형성 단계인 전체적 접근 과정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동원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감성적인 인식이 작용하는 단계로서 시에 대해 열린 마음이 되도록 제목과 관련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게 하여 수용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현대시, 특히 서술시는 낭독이 수월치 않고 내재율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낭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시 장르의 본질상 잘못된 일이다. 시의 구체적인 감동은 운율적인 언어의 구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낭독은 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시를 낭독하는 동안 시의 분위기와 리듬을 파악할 수 있고, 시어의 구체성을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활동은 시 텍스트 전체의 통일성과 주된 정서를 감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처음 읽은 직후에 실행해야 한다.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실시하게 되면 자기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미화하거나 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간을 짧게 주는 것이 좋다. 이 단계에서는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학습 독자가 접하게 될 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학습자 나름대로의 기대 지평을 형성하게 된다.

### ①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체험 발표하기

#### 【교수·학습 방안】

학생들은 시를 처음 대할 때 먼저 자신의 체험이나 상상력을 가지고 접근한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정신 능력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환기시키고, 그 작용을 유도함으로써 더욱 폭넓은 상상의 지평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 활동은 시의 내용을 대하기 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의 일방적인 논리가 독자를 얽매이게 하여 흥미와 관심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심리적인 준비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 독자들은 제목에서 연상되는 사물이나, 느낌, 단상들을 나열하면서 ‘내뱉는다’고 해도 좋을 만큼의 자유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교사가 필요에 따라 ‘명사로 대답하라(사물)’, 또는 ‘형용사로 대답하라(느낌)’는 식의 지시를 통해 학습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제목과 관련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한다.

예시 질문1. ‘여승’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예시 질문2. 실제로 여승을 봤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예시 질문3. 실제 여승을 봤다면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시 답안】**

제목이기도 하고 시적 진술의 대상이기도 한 ‘여승’은 깨달음을 위해 불문에 뛰어든 이미지와는 무관하다. 적어도 한국 문화 속에서 여승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여성쯤으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이다. 시 「여승」의 여승도 곡절 많은 삶의 주인공이라는 선입견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여승이 된 파란만장한 사연을 먼저 궁금해 할 것이고 그 느낌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험을 가진 학생들 중에 여승에 대해 긍정적 발표도 있을 것이다. 이때 그들의 상상력을 억제하여 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② 감정을 실어 시 낭송하기

**【교수-학습 방안】**

먼저 교사가 먼저 교실 분위기를 잡아 주어 학생들이 감정을 살려 맛나게 낭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시 낭송이란 시인이나 성우 같은 이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학생들에게 단번에 자연스러운 낭송 의지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편한 마음으로 시를 대하고 자신을 개방하게 하는 첫 단계로서 낭송 경험을 갖게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시 낭송에 일정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 감상 주체가 자기 나름대로의 맛을 살려 얼마든지 자유롭게 낭송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낭송하는 방법에는 혼자서 낭송하기, 여럿이 낭송하기, 소그룹이 서로 주고받으며 낭송하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낭송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시에 대한 친밀감과 다양한 묘미를 느끼게 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미리 시 낭송 테이프를 소그룹별로 만들어 오게 한 경우(단원 시작 1~2주일 전쯤에 미리 소그룹별 과제로 부과, 예습 지도의 한 방법으로도 효과적임)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시 질문1. 다함께 이 시를 낭송해 보자. 시는 산문과 다르다. 행과 연을 고려하여 천천히 함께 낭송해 보자.

예시 질문2. 상황을 그려보면서 묵독해 보자.

**【예시 답안】**

시는 음성적 요소만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이미지가 더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여승」도 운율과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적 요소들이 어우러져 그 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독 한 번으로 시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잘 파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의 내용 파악을 위해 묵독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예시 질문3. 이 시의 주인공인 여승의 입장이 되어 낭독해 보자.

**【예시 답안】**

이 시에서는 여승이 주인공인 셈인데 이는 시적 화자와 구분되는 것으로 서정적 주인공이라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것을 주지시킨 다음에 여승의 입장이 되어 다시 한 번 낭송하게 한다.

예시 질문4. 시적 화자가 되어 낭송해 보자.

【예시 답안】

이 시에서의 화자는 ‘나’ 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나’ 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승’ 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관찰자인 ‘나’ 의 위치에서 여승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낭송하게 한다.

### ③시 내용의 느낌·분위기 맛보기

【교수-학습 방안】

시 텍스트 전체의 통일성과 주된 정서를 감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처음 읽은 직후에 실행해야 한다. 많은 시간을 허락하면 자기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미화하거나 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간을 짧게 주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시를 전체적으로 맛볼 때 구체적인 시의 요소는 의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직관의 힘에 의지하여 시 텍스트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이때 교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직관에 의해 나타나는 학생들의 첫 느낌이다. 학생들은 첫 느낌에 따라 시 전체를 감상하기 때문이다. 시는 압축된 언어로 이루어져 작품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숨은 의미를 가지는데 그들은 이를 첫 느낌과 연관시켜 감상하게 되므로 올바른 시 감상은 이 첫 느낌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예시 질문1. 시를 읽은 후의 느낌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자.

예시 질문2. 어떤 부분이 그런 느낌을 가지게 했는가?

예시 질문3. 발표자와는 다른 느낌을 받은 학생이 이야기해 보자.

예시 질문4.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예시 답안】

이 시의 분위기는 애상적이다. 따라서 그 애상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혹은 서로의 대답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 (2)부분적 접근 단계(텍스트에 대한 해석 단계)

이 단계에서는 시 작품의 부분에 접근하여 전체적인 접근의 효과를 상호 관련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시를 쉽게 이해하고 감상하게 하는 한 방법으로 소그룹 활동이 중심이 되며, 깊이 있는 감상을 위해 내용의 이해는 소그룹 활동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개별 과제를 주면 부담스러워하던 학생들도 소그룹 토의로 접근하게 하면 의외로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 수준에서 접근할 만한 문제의 대부분이 토의 과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놓치는 내용이나 난해한 작품인 경우에는 교사가 질문을 던져 공동 접근을 시도 할 수 있다. 토의 운영 방식은 준비된 용지에 구성원 각자가 생각한 내용을 쓰게 하여 종합하는 것으로 한다. 모둠 편성은 5~6명씩 8개조로 하고 모둠 이름과 의견을 적는다.

### ①모둠별 토의 주제 선정 및 토의 계획 세우기

- 모둠별로 주어진 주제 내용으로 의견을 적는다.
- 모둠별로 토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한다.
- 우리는 하나의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의 생각이나 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모둠에서 1개~2개를 선택하여 각자 대안 탐색을 할 수도 있고 각자의 견해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

②모듬 토의 작성표 및 모듬별 토의 주제

㉠모듬 토의 작성표

구분	이름	내용	결과
구성원 1			
구성원 2			
구성원 3			
구성원 4			
구성원 5			
구성원 6			

㉡모듬별 토의 주제

㉢시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2개 모듬)

예시 질문1. 시어 중, 생소한 것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토의해 보자.

【예시 답안】

합장, 가지취, 불경, 금덤판, 파리한, 섭벌, 마당귀 등이 학생들이 질문하는 시어들이다. 이런 단어들을 문맥으로 상상해보게 하고 스스로 찾아보도록 한다. 그래도 모를 경우는 교사가 직접 대답을 해 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시 질문2.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의 문맥적 의미는 무엇인가?

【예시 답안】

단순하게 여자의 몸에서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시를 바라보려는 학생들에게는 많은 의미가 도출될 것이다. 여승의 첫인상을 인적 끊긴 숲 속에서나 만날 수 있는 취나물 향으로 대치시키는 이유는 화자가 여승에게서 정갈하면서도 쓸쓸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

다.

예시 질문3.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의 문맥적 의미는 무엇인가?

【예시 답안】

왜 하필 ‘불경처럼’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는지를 중심으로 토의하도록 유도한다. 여인이 여승이 되었기 때문에 ‘불경처럼 서러워졌다’고 말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불교가 조선조 이래 폄박받는 자의 종교였다는 점에서 힘없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무하는 종교적 특성 때문이라 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혹은 경전들의 독송 소리가 불리일으키는 슬픔과 연민의 정서가 여인의 상황과 잘 조화된다는 대답이나 사회적 편견으로서의 여승의 이미지와 삶이 고해라는 불교의 오랜 교리 자체가 덧붙으면서 ‘불경’이라는 어휘는 ‘서러움’의 정서를 불리일으킨다는 답도 있을 수 있다. 이 때, 학생들의 주관적 느낌을 존중하여 스스로 시를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예시 질문4. ‘가을 밤같이 차게 울었다’의 문맥적 의미는 무엇인가?

【예시 답안】

시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여인이 왜 어린아이를 때리고 있고 ‘울었다’라는 서술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와 그 엄마 모두를 주어로 하고 있다는 점, 즉 아이와 엄마 모두가 울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마도 아이는 배고픔에 어미에게 보챘을 것이고 옥수수를 팔아야만 모녀의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상황에서 딸아이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려서 그것을 봉쇄해야 하기에 여인은 더 가슴 아프게 때리면서도 ‘가을밤같이 차게’ 울고 있는 것이다.

예시 질문5. ‘섬벌같이 나아간 지아비를 기다려 십 년이 갔다’의 문맥적 의미는 무

엇인가?

**【예시 답안】**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2연의 내용과 긴밀한 연관성을 생각해야 한다. 여인이 왜 하필 평안도의 산 깊은 금광 앞에서 장사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바로 이 구절에서 해소되기 때문이다. 원래는 농부였을 법한 지아비가 생계가 막막해지자 금광으로 간 뒤 십 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여인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찾으러 금광 근처를 헤매며 그곳에서 옥수수를 팔아 어렵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당대 금광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1930년대 사회사에 대한 외부 지식을 빌려올 필요가 있다. 이 땅을 강점한 일제의 수탈 정책으로 방방곡곡에서 제 일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소위 ‘골드러시’를 이루며 너도나도 금광으로 몰려들어 노다지를 캐겠다는 허황한 투기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1930년대의 조선은 그야말로 전 국토가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특수한 한 가족 공동체의 해체가 아니라 일제 강점시기 우리 민족의 보편적 상황이었음을 인지하고 발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선 학생들이 스스로 그 의미를 찾게 하고 학생들이 놓치는 내용이나 필요한 사전 지식들의 경우에는 교사가 질문을 던져 공동 접근을 시도한다.

예시 질문6.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의 문맥적 의미는 무엇인가?

**【예시 답안】**

잘 먹이지도 못하던 딸아이가 도라지꽃이 많이 피어 있는 돌무덤에 묻히고 말았다. 이로써 여인은 살아볼 삶의 마지막 끈마저 놓아버리고 여승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시 질문7. ‘산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

었다'의 문맥적 의미는 무엇인가?

**【예시 답안】**

여인이 삭발하는 모습은 곧 여승이 되는 날의 모습이다. 가족 공동체의 붕괴가 여승이 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여인의 비극적 운명을 날것으로 보여주지 않고 산뿔의 울음을 여인의 울음으로, 떨어지는 머리 오리를 여인의 눈물 방울로 대치시켜 과도한 감정의 표출 대신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 비극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학생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물을 통한 감정의 간접 전달과 비유의 효과, 여승으로 대변되는 당대 우리 민족의 모습까지 짐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㉞시적 상황 파악하기(2개 모둠)**

예시 질문1.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누구이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시 답안】**

시적 화자를 파악하는 것이 시적 상황을 파악하는 기초이다. 이 시에서의 화자는 ‘나’ 라고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쉽게 답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승’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승’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셈인데, 소설이 아니라 서정시에서의 인물이므로 ‘서정적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적 화자가 ‘나’이며 우연히 알게 된 여승에 대해 말하고 있다.

예시 질문2. 여승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예시 답안】**

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학생이라면 별 어려움 없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이 막막한 생계 때문에 돈을 벌러 가서 소식이 없자 금점판으로 행상을 하며 찾았으나 생활은 더욱 곤궁해지고 딸아이마저 죽게 된다. 이에

곡절로 얼룩진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여승이 되었다.

예시 질문3. 서정적 주인공인 여승의 삶의 여정을 상상해 보자.

【예시 답안】

학생들에게 앞서 파악한 내용에 자신의 상상력을 가미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한다. 완벽한 한 편의 이야기보다는 압축과 생략을 통해 형성된 여백에 나름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난하지만 남편과 아내, 어린 딸아이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일제의 농지 수탈과 경제적 착취로 더 이상 생계가 막막해 졌다. 이에 남편은 한참 봄을 타고 있는 골드러시에 희망을 걸고 떠났지만 십 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다. 아내는 어린 딸을 데리고 혹시나 남편을 찾을 수 있을까하는 심정으로 금광 앞에 옥수수 행상을 하지만 딸 아이의 배고픔조차 채우지 못할 정도로 삶이 피폐해진다. 결국 잘 먹이지도 못한 아이는 죽어 도라지꽃 가득한 초라한 돌무덤에 묻히고 여인은 속세의 마지막 끈마저 놓게 된다. 이렇게 삶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여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승려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산꿩조차 슬피 우는 것 같은 서러움으로 눈물과 함께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된다.

예시 질문4. 시적 화자가 여승의 삶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과 심정을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학생들이 시적 화자와 서정적 주인공을 혼동하지 않게 주의를 주고 시적 화자의 객관적 묘사 속에 느껴지는 여승에 대한 심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시적 화자 자신도 여인과 마찬가지로 유랑민의 비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또한 금광을 거쳐 깊은 산 속의 절까지 찾아 떠도는 사람이다. 그러다 예전에 한 번 만났던 어느 여승을 다시 만나고 그녀의 비극적 삶을 전해 듣게 된다.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당대 우리민

죽의 보편적 삶의 모습임을 깨닫고 그는 불경처럼 서러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담담히 묘사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과도한 감정에 독자가 매몰되지 않게 하고 나아가 동일시가 일어나게 한다. 여인의 삶은 새삼 시적 화자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민족의 피폐한 상황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쓸쓸하고 슬프고 서러운 감정에 잠기게 된다.

### ◎시에 담긴 이야기 구조 파악하기(2개 모듈)

예시 질문1. 시에 나타난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 【예시 답안】

「여승」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 삶의 한순간이 환기하는 강렬한 정서를 함축적으로 제시한다는 서정시 양식의 일반적 특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시인 셈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제재를 통해 이야기 구조 역시 시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함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처음부터 ‘이야기’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의 구성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서술시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먼저 인물은 시적 화자, 여인에서 여승이 되는 서정적 주인공, 그녀의 남편과 딸이 등장한다. 각각의 등장 인물을 찾고 특히 여승과 여인의 관계를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건은 ‘나’가 여승이 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과 예전에 금점관에서 여인과 그녀의 딸을 처음 만나게 된 비극적 삶의 목격, 그리고 그녀에게 전해들은 것으로 쉼벌같이 나아가 소식이 없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와 딸의 죽음, 결국 여승이 된 사연을 찾아 압축과 생략 사이의 여백까지 상상하여 이야기하도록 한다. 배경은 1연에서 여승을 만나게 되는 절과 2연에서 평안도 어느 산길은 금점관, 4연에서 다시 산절의 마당귀까지 찾아보도록 하고 나아가 각각의 배경이 의미하는 당대의 상황과 시적 화자의 심정까지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예시 질문2. 이 시의 내용을 시간 순서에 맞게 이야기고 재구성해 보자.

【예시 답안】

이 시는 ‘한순간’의 정서가 아니라 ‘일정 시간’ 위에 진행된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서술시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또한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 진행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 총 4연 12행이라는 비교적 간결한 형태 안에 몇 년간에 걸쳐 일어난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감정적 반응을 하게 한다. 우선 시를 이루고 있는 네 연의 시간 순서를 ‘2연→3연→4연→1연’으로 정리하고 나서 생략과 압축으로 처리된 시간의 공백들을 상상하여 풍부한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난했지만 제 고향에서 뿌리를 내리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흑한 속에서 농촌 경제는 파탄이 되고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금광에 뛰어든다. 온다던 남편이 소식이 없자 어린 딸을 데리고 금광이 있는 산 속 마을에서 옥수수 팔며 생계를 꾸려보지만 딸아이의 주린 배조차 채울 수 없는 막막한 생활의 연속이다. 이 때, 지나가던 ‘나’가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시적 화자의 인상에 각인된다.(2연) 비참한 생활의 연속이지만 십 년이 지나도록 남편의 소식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어린 딸은 가난과 주림 속에 죽게 되어 도라지꽃 가득한 초라한 돌무덤에 묻히게 된다.(3연) 여인의 전부였던 가족을 잃고 더 이상 속세의 삶을 견디지 못하여 산 속에 있는 절로 들어간다. 여인의 슬픔에 산꿍도 우는 듯한 어느 날, 눈물과 함께 머리를 자르고 여승이 된다.(4연) 시적 화자인 ‘나’가 산 절을 지나다 우연히 여승이 된 여인과 재회하지만 여전히 예전과 같이 쓸쓸하고 고뇌에 찬 모습에 나 또한 서러워진다.(1연)

예시 질문3. 역순행적 시간 구조라는 독특한 배열 원리를 통해 작가가 의도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예시 답안】

학생들에게 시 속에서 역순행적 구성을 찾는 것은 생소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이는 서정시라는 장르 안에서도 서사의 구성 요소가 그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작가가 이러한 구성을 통해 어떤 의미를 주고자 한 것인지 찾아봄으로써 이 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 시의 이야기 시간의 전개 과정을 추적해보면, 현재 시간인 1연에서 이야기가 비롯되어 2, 3, 4연의 과거 시간대로 돌아갔다가 다시 1연으로 되돌아와서 마무리되는 액자식 구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승」이, 스토리 시간이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재편되어 서술 시간으로 바뀜으로써 플롯이 되는 서사체(narrative)의 관습에 기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 드는 하나의 의문이 ‘작가가 왜 이런 구조로 재편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이다. 학생들에게 다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지만 다양한 논의들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유도한다. 또한 어느 것이 답이라고 단정하여 논의의 맥을 끊는 일이 없어야겠다. 쉽게는 서정시에서 소설처럼 이야기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 했다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1930년대의 사회상을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싶었다, 혹은 이러한 보고를 통하여 일상에 묻혀 사는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려고 했던 것이다 등등 많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결국 1연으로 귀결되는 구조를 놓고 보면 작가의 목표가 여승의 기구한 삶의 내용 전달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화자 자신의 정서와 생각의 전달이 목표였던 것이다. 이렇게 화자를 관찰자로 배치함으로써 시인이 노린 것은 시인의 정서를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화자에게 독자들의 감정 역시 동일시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여인의 기구한 삶이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보편적·전형적 삶의 모습이었음을 인식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예시 질문4. 재구성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에 비해 사가 어떤 점에서 아름다운지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제재인 「여승」을 위에서 재구성한 이야기와 비교하여 시가 갖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이 때 서정시의 핵심적인 요소인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야기 구조도 시의 아름다움에 기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더 붙여 파악한다면 교육적 효과는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sup>70)</sup> 재구성된 이야기보다 시가 더 감동을 주는 요인은 독자로 하여금 생략과 압축으로 처리된 공백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데 있다. 즉 짧은 12행의 시가 갖는 함축성은 독자에게 훨씬 많은 상상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불경처럼’, ‘가을밤같이’, ‘섣달같이’ 등의 비유와 시각, 후각, 청각, 공감각적 이미지는 낱것의 이야기보다 더한 여운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야기는 풀어서 주저리주저리 설명하게 되지만 시에서는 여인의 삶을 짧은 문장을 통해 내재된 운율로 전달함으로써 여인의 비극성과 쓸쓸함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한다.

㉔표현의 특징 파악하기(1개 모둠)

예시 질문1. 이 시의 운율은 어떠한가?

【예시 답안】

이 시에서 정형적인 리듬은 느껴지지 않는다. 다만 1연에서 3음보의 리듬이 느껴질 뿐 자유로운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내재율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운율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 장르의 본질상 잘못된 일이다. 학생들이 특별한 리듬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현대시의 대부분이 내재율로 되어 있어 운율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야기와는 다른 리듬이 숨

70) 교육 인적 자원부, 『국어 (상) 교사용 지도서』, 두산출판사, 2002. p316.

어 있음을 교사가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예시 질문2. 이 시에서 사용되는 두드러진 심상은 무엇인가?

【예시 답안】

이 시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들이 두루 사용되고 있다. 우선 하나의 영상을 떠올릴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와, 후각, 청각, 공감각 등이 그것이다. ‘합장하고 절을 했다’, ‘쓸쓸한 낮’,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점판’, ‘파리한 여인’, ‘도라지꽃’,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가지취의 내음새’에서는 후각적 이미지가, ‘산평도 숲게 울은’에서는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차게 울었다’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학생들도 쉽게 이미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놓친 부분은 교사가 질문을 던져 공동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예시 질문3. 이 시에서 사용된 심상의 효과에 대해 말해보자.

【예시 답안】

학생들이 심상의 효과를 찾을 때, 심상을 빼고 읽는 것과 원래의 심상을 넣고 읽었을 때의 차이를 질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심상은 보조관념의 이미지를 원관념의 이미지에 전이시켜 원관념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의 애상적 분위기, 비극적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들이 모여 시의 완성도와 표현의미를 더하여 준다.

예시 질문4. 이 시에 사용된 비유를 알아보자.

【예시 답안】

‘옛날같이 늙었다’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설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눈물방울같이 떨어진’ 등에서 직유의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여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 있

다. 앞서 시어의 문맥적 파악하기 껍치는 부분이 많으므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시 질문5. 비유의 효과에 대해 말해보자.

【예시 답안】

비유의 효과 역시 심상의 효과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승이 늙었다’는 진술은 ‘늙은 여승’을 내가 만났다는 의미와 ‘못 본 사이에 많이 늙어버린 한 여승’을 만났다는 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옛날같이’란 비유어를 씌으로써 화자가 이 여인을 옛날에 한 때 만났음을 환기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는 진술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여승이 된 여인의 과거 비극적 삶으로 이끄는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유 또한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고 시의 애상적, 비극적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작가와 시대 상황 파악하기(1개 모듬)

예시 질문1. 이 시의 시인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해 보자.

【예시 답안】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이 시인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알아도 이름만 들은 정도이다. 먼저 모듬을 통해 조사하게 한 다음 간략하게 교사가 정보를 제시하는 정도로 이야기한다. 1912년 생이며 분단 당시 북에 잔류, 분단 상황과 맞물려 묶여 있다가 80년대 해금되었고 1936년에 펴낸 시집 『사슴』에 대부분의 시가 실려있다. 「여승」에서 보이듯 외로움과 서러움의 정조를 바탕으로 당대의 현실을 서사적 요소를 도입하여 객관적으로 묘사하였고 「여우난곶죽」, 「고야」에서처럼 고향의 지명이나 이웃의 이름, 그리고 무속의 소재가 자주 등장하여 해체된 공동체의 복원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정주 사투리를 그대로 썼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에 모국어를 지키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정도의 정보로도 백석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며, 장황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핵심적인 상황만 제시한다. 현재 일본의 우경화와 맞물린 독도 문제가 과거 일제 강점하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일제 치하라는 시련과 고난의 시대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강직한 삶을 살았던 백석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도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한 한 방법일 것이다. 한 예로 만주의 신경에 있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창씨 개명을 요구하자 백석은 그 자리를 뛰쳐나와 생활로 전전할 정도였고 이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정보가 「여승」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시 질문2. 이 시가 쓰여진 시대 상황은 어떠했는가?

【예시 답안】

이 시가 발표된 것은 1936년으로 일제가 문화 통치를 포기하고 제국주의적 본색을 한껏 드러내며 강압적 식민통치를 강화하고 있을 때이다. 식민지 하 조선 민중의 삶은 피폐해져 있었으며, 생존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었던 시기이다.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 그래서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 방랑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런 삶의 모습들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허물어져 가고 부락 공동체가 몰락해 가는 상황들이었다. 학생들에게 너무 구체적인 사료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논의를 이끌어 내면 된다.

예시 질문3. 당대의 시대 상황이 이 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예시 답안】

「여승」은 가난으로 인하여 한 가족이 붕괴되어 가는 비극적 이야기이다. 이는 단지 한 가족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에 농촌 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가족 공동체의 몰락과 연관된다. 앞서 발표한 시대 상황과 연관한다면 쉽게 그 연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여승의 비극이 당대의

보편적·전형적 삶의 모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③토의 단계

·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토의 할 때의 유의점을 알려준 후 토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 준비 상황을 확인한다.(협동적인 자세로 토의에 임한다. 또한 유의점을 유념하여 토의를 준비하고 자료를 확인한다.)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고 의문점을 질문한다.

### ④토의 결과 발표

·모듬별 발표자는 토의 결과를 발표한다.

·발표자의 발표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하게 한다.

## (3)종합적 접근 단계(텍스트에 대한 의미 확장 단계)

파악된 텍스트의 의미를 작가-작품-독자의 소통 구조 속에서 다시 조명해 본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자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해석적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체험과 융합된 시적 감동을 체험함으로써 초기에 형성되었던 기대 지평이 새롭게 조정되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시의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구조로 학습자에게 수용된다. 그리고 수용된 시 텍스트에서 받은 감동, 시적 자아와 시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시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 ①자신과 관련지어 시에 대한 종합적인 감상을 발표하기

【교수-학습 방안】

이 활동은 소그룹별 발표가 적절하고 이미 모듈별 편성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시 텍스트에서 받은 감동, 시적 자아와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 등 최종적인 학습자의 느낌과 의견을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 처음 읽으며 받았던 인상과 종합적 접근 단계에서 가졌던 생각·느낌과 비교하여 발표해 보는 것도 좋다. 이를 통해 자신의 수용 양상을 객관화하고 재해석하는 체험을 하는 셈이 된다. 학생의 발표 내용은 학생 자신이 최초로 직관적으로 느꼈던 감상 체험이 아니라 다시 객관화하여 재해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활동은 본시의 텍스트를 재인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인생과 사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삶에 대한 인식을 심화·확대시킬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예시 질문1.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보자.

예시 질문2. 이 시를 통해 보여주는 일제 시대 우리 민족의 삶의 양상을 생각해 보자.

예시 질문3. 이 시를 배운 후, 자신의 삶의 체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자.

예시 질문4. 이 시가 여러분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시인과 똑같은 경험은 아닐지라도 시 속에는 자신의 경험과 연계시킬만한 것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이 발표를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고 개방적인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이 시의 경우, 자기 집의 가난과 그로 인한 어려움, 혹은 그때 느낀 비애감 등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굶아있던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독도 문제로 터진 지금, 참혹했던 식민지 시기의 민중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이야기해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우리 주변에 개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모순 속에 방치된 이웃들을 떠올리며 이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②시적 상황을 산문으로 표현하기

### 【교수-학습 방안】

시적 자아와 시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고 나아가 이를 산문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처음 읽으며 느꼈던 생각과 달리 객관화하여 재해석하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진다. 수업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고려한다면, 잠깐 정리할 시간을 주고 말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를 과제로 제시하여 시간의 여유를 주고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면 보다 분명한 상황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 작품의 예>-서문여고, 1학년, 최○○

갈 곳 없이 여기 저기 떠돌던 어느날 깊은 산 속에 자리 잡은 절까지 발길이 닿아 찾아 들게 되었다. 절을 둘러보는데 어느 여승이 나에게 와서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웬지 낯익은 여승에게서 산나물 냄새가 나는 것처럼 정갈하면서도 쓸쓸한 느낌을 받았다. 누굴까 고민하다가 여승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광에서 마주친 여인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도 일 자리를 찾아 금광까지 흘러 들어 갔었다. 금광 앞에서 여위다 못해 파리하기까지 한 여인이 옥수수 몇 개를 팔고 있었고 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꼭 사 줘야 할 것같은 절박함이 내 걸음을 이끈 것이다. 여인의 옆에는 어린 여자 아이가 배 고프다고 칭얼거리며 떼를 쓰고 있었다. 여인은 여자 아이를 달래다가 그래도 그치지 않는 아이의 보챘에 금기야 때리며 함께 울고 말았다. 자식의 주린 배를 채워줄 수 없는 어미의 심정은 가을밤의 추위보다 더 차가웠을 것이다.

그렇게 헤어진 이후 여승이 된 여인을 만나게 된 나는 아이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여승은 담담하게 지난 날을 들려 주었다.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여 돈 벌겠다고 나간 남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 어린 딸과 함께 금광 주변에서 힘겹게 행상을 하며 남편의 안부를 수소문했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했던 아이가 죽게 되었고, 그래서 아이를 돌무덤에 묻고 돌아오던 날 바로 절로 들어왔다고 했다. 유난히 산경도 소리 높여 우는 날, 여인은 고통뿐인 속세와 인연을 끊고 머리를

깎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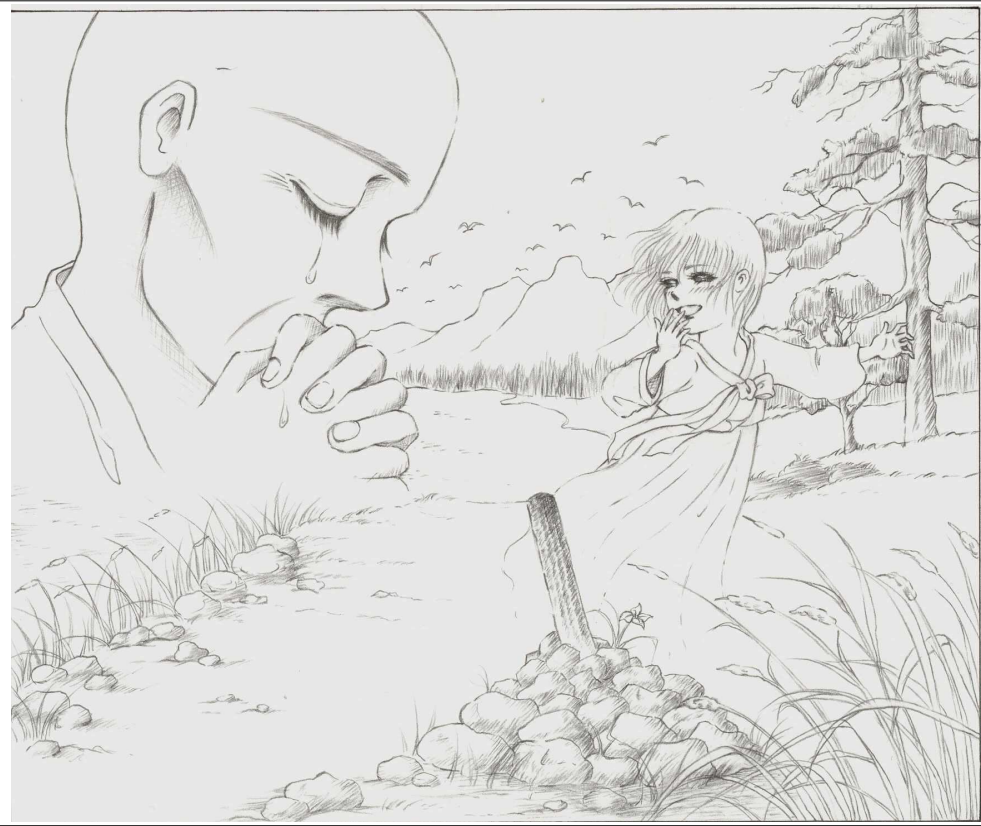
옛날과 같이 어두워 보이는 여승은 아직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지아비와 죽은 아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예전과 같이 늙고 힘겨워 보였다. 이런 여승의 모습에 아련히 들리는 불경 소리처럼 나는 서러워졌다.

### ③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

#### 【교수-학습 방안】

시에서 받은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으로, 시적 화자와 시적 상황을 학습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하여 활자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시의 모든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본인에게 각인된 영상을 표현하게 하고 왜 이런 그림으로 형상화했는지에 대한 감상 소감을 함께 준비하여 발표하게 한다. 이 경우 소그룹으로 학생들을 나누어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학생들의 그림은 돌려가면서 보거나 OHP를 사용하여 설명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학생 작품의 예>-서문여고, 1학년, 김○○



<감상 소감>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먼저 간 아이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여인의 삶에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여승의 기도는 죽은 아이와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만날 기원일 것이다. 또한 초라한 돌무덤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여승의 가슴에 묻혀 있다가 수시로 무너져 내려 아물지 않은 생채기에 붉은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머니란 이름이 가지는 아름다움과 그 슬픔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엄마에게 짜증만 내고 학교에 온 내가 부끄러웠다. 집에 가면 엄마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 ④ 대체시 감상하기

##### 【교수-학습 방안】

관련되는 시나 대체시를 교사가 소개하거나 학생들에게 미리 찾아오게 하여 감상한다. 이를 위해서 교과서에 실린 시 이외의 다양한 작품들을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성 시인들의 작품 중에 선별적으로 활용할 만한 시들도 많겠으나, 시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데는 학생 작품을 소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본고에서는 백석의 다른 시들과 관련된 기성 시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 【예시 답안】

「여승」과 같은 시간의 역전에 해당하는 기법을 적용한 백석의 작품으로 「팔원」과 「가즈랑집」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팔원」의 경우 전반부는 현재의 시간이고, 후반부는 과거의 사실로, 주재소장 집에서 찬물에 걸레질을 하며 남의 집살이를 하는 여자아이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관찰자인 시적 화자가 상상을 하는 회상에 해당된다. 「가즈랑집」도 「팔원」과 마찬가지로 과거 속에 또 다른 과거가 담겨 있는 시간의 역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법은 대상과 시적 자아와의 적절한 거리두기의 한 양상으로 현실의 복잡한 양상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술시를 도입, 특히 시간의 변조를 통해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고 이를 통해 당대 현실을 더욱 절절하게 형상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여우난곶죽」이나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 「고방」 등 백석의 여러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그의 시의 특색(사투리, 훼손되지 않은 공동체적 삶의 희구, 많은 먹거리 등)을 알려줄 수 있다. 애상적이고 비애감이 느껴지는 시의 분위기와 가난하고 힘겨운 민중의 삶의 단편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 정희성의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이용악의 「낚은집」, 신경림의 「농무」, 김소월의 「길」 등을 꼽을 수 있다.

어떤 작품이나 관련 작품은 있기 마련이고, 그 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분량의 작품을 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작품을 몇 개 뽑아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후에 학생들이 관련 작품을 보았을 때, 관심의 정도가 증가되고 시 이해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같은 시인의 작품-「여우난곶죽」, 「팔원」,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 「가즈랑집」, 「고방」

·소재면에서 같은 시- 조지훈의 「승무」

·주제면에서 같은 시- 김소월의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이용악의 「낮은집」

·표현상의 특징 등 그 외 관련작

-시각적 이미지: 김광균의 「추일서정」, 「외인촌」

-아이의 죽음을 모티프로 한 작품: 김현승의 「눈물」, 정지용의 「유리창」, 김광균의 「은수저」

-서정시이면서 서사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작품: 서정주의 「신부」

#### (4)발전적 접근 단계(텍스트에 대한 내면화 단계)

심화 단계인 발전적 접근 과정은 텍스트의 의미를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독자 내면에 수용된 작품은 그들의 내면에서 역동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삶에 대한 또 하나의 스키마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시에 대한 개인, 또는 모듬별 감상이 이루어지고 난 후, 그 시를

심미적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활동 방법을 모색한다. 이 때 소그룹 구성원간에 친밀하고 개방적인 상호 긍정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각자의 반응을 인정해 주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학생들은 문학적으로 충분히 반응할 것이다.

교사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학생들을 편안하게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반응에 대해 교사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을 수용하고 그 반응에 민감해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방해받지 않고 탐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시 작품에 대해 자신의 감상과 아이디어·작품의 수용과정을 솔직히 표출하게 하여 이것을 듣는 다른 동료 학생들이 이를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개작·모작 또는 서사문 쓰기 및 노래·그림·극으로 꾸며보기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만화로 그려보기’와 ‘재진술된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둘을 모두 소화하기엔 수업시간도 문제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자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거나 교사가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수행평가의 과제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①만화로 그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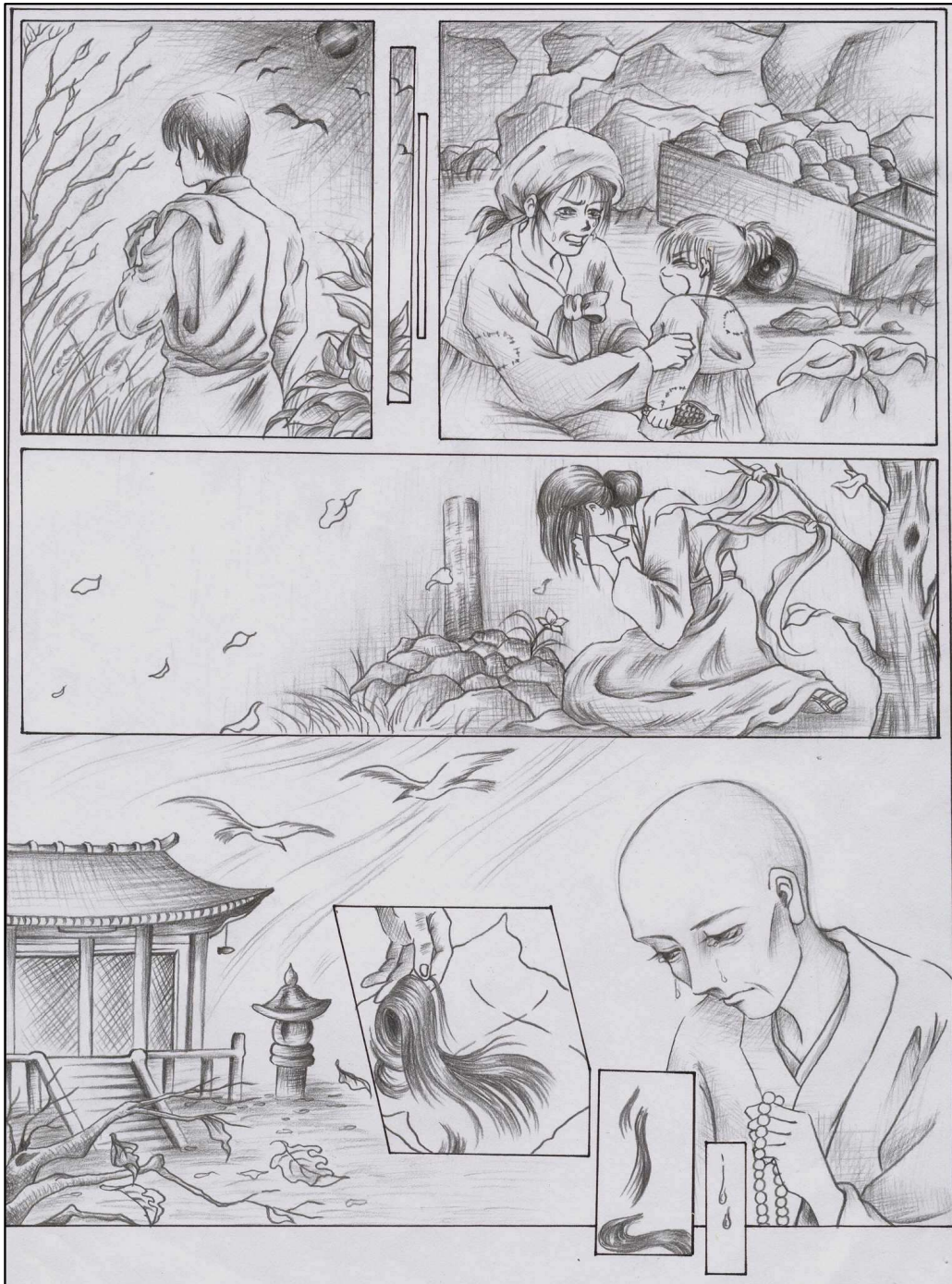
### 【교수-학습 방안】

21세기의 10대들은 N세대를 넘어서 인터넷 세대라는 호칭을 얻는다. 이는 학생들이 인쇄 매체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것으로 책을 뒤지고, 자료를 찾고, 쓰는 경우는 옛말이 되고 있다. 즉 학생들은 정보화된 도서관을 이용하여 직접 정보를 탐색, 수집, 분석, 평가,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고전 소설조차 만화로 만들어져 학생들의 구미에 맞게 각색,

편집된 책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대적, 환경적 요소 때문에 학생들은 활자보다는 감각적인 영상이나 그림에 익숙한 세대이다.

시 수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 지도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상의 흐름을 그림으로 그리기, 즉 만화로 그려보기는 독자가 영화 감독이 되어 시의 내용을 영상화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김새와 표정·동작을 상상해 그림으로 그리고, 시의 배경도 장소·계절 분위기·색채·어울리는 음악까지 상상해 보게 한다. 이 과정은 학습 독자의 상상력 계발을 위한 효과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누가 그림을 잘 그렸는지가 아니라 시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아가 본인의 상상력을 통해 어떻게 활자가 영상화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학생 작품의 예- 서문여고, 1학년, 김○○



## ㉔만화로 그려보기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교수-학습 방안】

학생들은 충분한 성취동기가 주어질 때에 성실하게 과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평가가 뒤따라야 하고 이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가는 모두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째, ‘서사적 구성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여 반영하고 있는가’이다. 이는 앞서 부분적 접근 단계를 통해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실하게 수업에 임했는가를 판별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 둘째, ‘인물들의 생김새와 표정·동작·배경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가’이다. 이 활동은 상상력을 확대시키고 아름다움을 붙잡는 힘을 키워주며, 삶의 다양함을 무한히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셋째, ‘이야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이다. 이것도 부분적 접근 단계와 종합적 접근 단계를 통해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선행 수업의 자세를 알 수 있고 본래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전개나 비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성실하게 과제에 임했는가’이다. 이는 수업에 얼마나 진지하게 참여를 했으며,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이 평가 내용은 표를 만들어 각각 상·중·하로 평가되며 마지막엔 간략한 평을 하여 정리한다.

【평가 및 분석의 예】

	평 가 내 용	상	중	하
1	서사적 구성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	
2	인물들의 생김새와 표정, 동작, 배경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가?	○		
3	이야기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4	성실하게 과제에 임했는가?	○		
<p>서사적 구성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이 잘 반영되어 있지만 시적 화자를 아예 배제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인물의 생김새, 표정, 동작이 자연스럽게 특히 배경의 묘사가 뛰어나 본인의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시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개연성이 있고 성실함이 과제에 잘 반영되어 있다.</p>				

우선 기본적으로 그림에 대한 표현력이 우수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물론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평가에 중요하지 않지만 내용을 그림이라는 형식으로 완성도 있게 형상화한 것은 학생 본인의 장점을 잘 살린 것이다.

사건 진행이 이해되기 쉽게 표현되어 있으며 금광이나 돌무덤, 산사의 배경 묘사가 뛰어나다. 하지만 시적 화자가 배제된 채, 여인의 인생사에만 치중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인물들의 생김새와 표정, 동작, 배경이 창의적이고 시의 생략된 부분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특히 돌무덤 앞에 흐느끼는 여인의 모습은 시의 행간을 잘 읽어 내어 본인이 재창조한 훌륭한 예가 되고 있다.

이야기의 흐름도 시의 내용에 잘 따르고 있어 심한 비약이 느껴지지 않는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선행된 학습을 충분히 소화하고 내면화한 것으로 보이며 과제에 그 성실함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 ②재진술된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 【교수-학습 방안】

앞서 학습자들은 부분적 접근 단계와 종합적 접근 단계를 거치면서 서사적 구성 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 학습했고 시간 구조의 역순행적 구성을 따라 재진술된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학습을 바탕으로 문학적 표현력과 상상력을 신장시키고자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인 ‘재진술된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는 패러디와는 다르다. 패러디는 “저명 작가의 시(詩)의 문체나 운율(韻律)을 모방하여 그것을 풍자적 또는 조롱 삼아 꾸며낸 익살 시문(詩文).”이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모방을 그 요체로 한다. 그러나 서사적으로 재진술된 시의 내용을 소설로 쓰기는 시의 내용을 그 기본 줄거리의 틀로 활용할 뿐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의 진행, 대화 등은 상상력에 의해 매우 새롭게 창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방을 요체로 하는 패러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시를 이야기로 만드는 것은 서정시를 서사적 구조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장르의 구분을 넘어서 시 작품에 대한 상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만하다. 시의 본질이 무엇보다 상상력의 표현에 있다고 할 때, 재진술된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 독자들은 시에 생략된 상황을 유추해 낼 수 있으며, 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행간의 의미를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게 된다. 특히 백석의 「여승」은 서술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가 가지는 함축성을 풍부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 보는 데 좋은 텍스트이다.

이 과정에서는 시 텍스트의 서사적 재진술을 토대로 서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소설로 써보도록 한다.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서사적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 까닭

에 모둠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이, 그리고 학교에서 다 못하면 과제로 제시하여 보다 충분한 집중력과 상상력을 발휘한 소설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단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되 소설은 허구적인 문학이지만 현실적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하여 지나치게 허황하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 작품의 예- 서문여고, 1학년, 최○○

걷다 보니 산길이다. 이렇게 오라는 곳 없이 떠돈 지가 몇 년째일까……. 이제는 낯선 길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는 것도 익숙하다. 소나무 숲 사이로 앞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일주문이 보였다.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절이라…….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몸 뒤척이는 푸른 이파리가 햇살을 받아 출렁이고 있었다. 아름답고 고즈넉한 산사로 가는 길이다. 하지만 나그네의 발걸음이 무거울 만큼 속세와 따로 떨어진 먼 길을 걸으며 이 절에 사는 사람들의 이력이 궁금해 졌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이것은 속세에 때가 묻은 속되고 못된 호기심일 것이다.

산사는 사람의 소리 대신 바람에 몸 흔드는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채워진 작고 조용한 곳이었다. 대웅전을 찾아 들어서려다 웬 여승이 마당에 빗질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지나려는데 여승이 다가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누구지?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인데…….’

낮익은 여인에게서는 산나물의 냄새가 나는 듯했다. 정갈하면서도 깊은 산에 유배되어 자라는 산나물만의 쓸쓸한 냄새가 여승의 주변에 퍼져 있었다. 이내 고개를 든 여승의 눈과 마주친 순간 그제서야 그녀를 어디에서 만났는지 떠올랐다. 반가움과 함께 ‘살아 있었구나’하는 안도감도 잠시, 여전히 쓸쓸한 눈빛의 그녀는 예전과 같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퇴색한 늙음의 빛깔을 가지고 우는 듯, 웃는 듯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어린 딸을 처음 만난 것은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광에서 였다. 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찾아 여기 저기 기웃거리다가 금광까지 온 처지였다. 모두가 한탕의 대박을 꿈꾸며 몰려드는 금광엔 웬만큼 배웠다는 인간부터 학교 문턱도 밟지 못한 인간까지 각양각색이었지만 모두 한 가지에 미쳐 있었다. 누런 금이 내일이라도 터질 것이라는 믿지 못할 확신으로 두 눈에 핏발을 세우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누가 이들을 탓할 수 있을까? 토지의 대부분이 일본 지주의 소유

로 바뀌면서 더 이상 농촌에서 뿌리 내릴 수 없었고 지식인조차 일자리를 구걸하고 있는 상황에서야 살기 위한 몸부림인 것을, 오히려 이들의 광기가 가슴 막막하게 하는 슬픔이라는 것을 이 곳에 와서야 조금씩 깨닫고 있었다.

그날은 이 미친 병신춤을 걸어 치우자는 심산으로 금광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금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한 여인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옥수수 몇 개를 팔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니, 눈에 띄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이 내 걸음을 잡아 붙들었다. 여인은 여위다 못해 파리하게 찌들어 보였고 어린 여자 아이는 흠늬이를 하는가 싶더니 입에 흠을 넣고 오물거리는 것이었다. 스산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저… 얼마죠?”

여인은 넋 빠진 것처럼 하염없이 금광 쪽을 보다가 나의 말에 정신을 수습하는 듯했다.

“예, 5개에 천 원씩, 아니 덩으로 몇 개 더 드릴게요.”

“아니, 됐습니다. 5개만 주세요. 혼자 먹는거라…….”

그때, 여자 아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내 손으로 건내지는 옥수수를 바라보며 침을 꿀꺽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트리며 어미의 치맛자락을 잡고 떼를 썼다.

“엄마, 배고파. 나도 옥수수 줘.”

여인은 순간 당황해 했지만 이내 눈물과 코로 범벅이 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달래기 시작했다.

“이건 팔거란다. 이거 팔고 아빠도 찾으면 우리 솔이 맛난 것 많이 사주고 예쁜 옷도 입혀줄게.”

“싫어, 싫어! 지금 배고프단 말야.”

“솔이야, 왜 이러니. 이거 먹으면 오늘 진짜 굶어야 해.”

“엄마, 미워. 세상에서 젤 미워! 미워 죽겠어!”

“너, 무슨 말 버릇이야. 남아 도는데 안 주니! 제발 조금만 참아.”

“싫어, 싫어. 배고파. 배 고프는데 먹지도 못하게 하고… 엄마, 싫어! 미워!”

“너, 맞아야 정신 차릴래! 왜 이렇게 못됐어!”

여인은 아이를 잡고 철썩철썩 때리더니 급기야 아이를 안고 함께 흐느꼈다.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달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입장에서 머뭇거리다가 나는 아이의 손에 옥수수를 쥐어 주며 그 푸석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저씨가 밥을 먹고 와서 배가 부르네. 너 이거 먹어라.”

아이의 금새 입이 방긋 벌어지더니 고맙다는 말을 하는듯 마는듯 급하게 먹기 시작했다.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무안하고 감사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아닙니다. 진짜 배가 불러서요.”

뒤돌아 서면서도 뒤통수에 환청처럼 질기게 따라 붙는 여인과 아이의 울음 소리에 가을 밤의 스산함보다 더 차게 가슴에 서리가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살아 남아라. 살아 남아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 지금을 추억하며 웃을 수도 있을거야’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휘적휘적 금광을 떠났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 이 깊은 산사에서 여승이 된 여인을 만나다니…….

여승은 지난 날 딸에게 잘해줘서 고마웠노라고 했다. 그 잠깐의 마주침이 그녀에게도 나에게도 잊지 못할 낙인이었나 보다. 불현듯 아이와 찾아 다닌다면 남편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미 속세와 인연을 끊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아물었던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나의 머뭇거림을 눈치 챘는지 여승은 다 안다는 표정으로 쓸쓸하게 웃으며 지난 일을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그녀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예쁜 딸도 낳았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되지도 않는 토지마저 빼앗기고 살 길이 막막해 졌단다. 남편은 빈몸으로도 천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금광으로 떠났고 그렇게 가서 십 년이 지나도록 소식을 알 수 없었던단다. 하지만 그대로 포기할 수 없어 금광 주변을 헤매며 남편의 생사라도 알고자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행상을 했지만 그 굶주리고 찌든 삶에 어린 것은 명을 놓고 말았다고 했다.

“제 탓이죠. 부모 잘 못 만나 피지도 못하고 가버린 것이. 변변한 무덤 자리 하나 마련할 수 없어 돌무덤에 그 어린 것을 누이고 하나 하나 돌을 쌓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게 됐을 때, 따라 죽는 것도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 것도 못해 줬는데 이대로 따라가면 또 무엇을 해 줄 수 있겠어요. 사는게 죽는 것보다 진저리나게 싫었지만 그 아이 다음 생엔 못난 부모 만나지 말고 좋은 부모, 좋은 세상 만나 편히 살라고 빌기라도 해야지요.”

여승은 그 날로 바로 이 깊은 산사로 들어와 머리를 깎았다고 했다. 그 날은 유난히 산쟁이 우는 날이었고 마지막 속세의 눈물을 한올 한올 떨어지는 머리카락에 뿌리며 여승이 됐다고 했다. 여기까지 말하고는 다시 합장을 하고 뒤돌아서서 여승의 뒷모습에서 아이와 남편의 그림자를 발견한 것은 나만의 환상이었을까? 저 질긴 속세의 번뇌를 이 깊은 산사조차 끊을 수는 없었으리라.

마침 불경 소리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아마 여승도 그 독경 속에 마주 앉아 빌고 또 빌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해탈이 아닌 아이와 남편의 다음 생에 대한 간절한 기원을 담아……. 불경을 외는 단조롭고 구성진 소리에 나는 그만 서럽고 서러워져 절 계단에 털썩 주저 앉아 버렸다.

하늘이 맑고 푸르다. 하늘에 있는 아이가 어미를 내려 보기에 좋은 날씨다.

㉔재진술된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교수-학습 방안】

평가는 모두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먼저 ‘서사적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을 내용에 반영하고 있는가’이다. 이것은 앞서 부분적 접근 단계와 종합적 접근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수업에 임했는가를 판별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평가항목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가’로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의 서사적 읽기를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상상력의 신장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항목은 ‘사건 전개와 개연성과 필연성은 확보되었는가’이다. 이것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하되 사건이 지나치게 허황하거나 비논리적으로 사건이 전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소설을 썼는가’이다. 이는 수업에 얼마나 진지하게 참여를 했으며,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이 평가 내용은 표를 만들어 각각 상·중·하로 평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략한 평을 하여 정리한다.

【평가 및 분석의 예】

	평 가 내 용	상	중	하
1	서사적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을 내용에 반영하고 있는가?	○		
2	창의력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가?		○	
3	사건 전개와 개연성과 필연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		
4	성실하게 소설을 썼는가?	○		
<p>시의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서건의 설정과 전개가 잘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인물의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재진술된 이야기에 집착하여 새로운 자신만의 창조가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매우 성실한 자세가 돋보인다.</p>				

우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서술자를 잘 활용하여 재진술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소설을 완성하였다. 소설에서 서술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1인칭 관찰자라는 시점을 일관성있게 사용하여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웠다.

인물, 사건, 배경이 재진술된 이야기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시 장르의 특징인 생략과 압축에 본인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여승」의 독특한 시간 구조를 활용하여 현재에서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설정하고 다시 과거에서 현재의 시간으로 회귀시켜 전체 이야기 구조를 안정되게 이끌고 있다. 하지만 너무 재진술된 이야기에 집착하다 보니 새로운 상상력이 가미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물론 시적 화자인 ‘나’의 성격이 명확해 지고 여인의 고뇌와 과거 회상에 해당하는 금광에서의 상황 설정은 구체적이고 행간의 의미 파악을 넘어선 재창조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수행의 목적이 창의력과 상상력의 향상이라고 볼 때, 기존의 이야기를 따르면서도 새로운 자신만의 창조가 필요하다 하겠다.

사건이 허황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이 없이 개연성 있게 잘 짜여져 읽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학생이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충실하여 선행된 학습을 잘 숙지했음이 소설 속에 드러나 있다. 게다가 1930년대 금광에 관한 자료 조사까지 한 것으로 보여져 그 성실성이 돋보인다.

## 2. 수업 지도안의 실제

단원	6. 노래의 아름다움. 여승		차시	1/3	대상	고1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 체험을 표현할 수 있다.</li> <li>·감정을 실어 낭송하고 그 느낌, 분위기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li> </ul>					
학습 자료	개별 학습지					
단계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내용)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분위기 조성</li> <li>▶선수 학습 연계</li> <li>▶전시 학습 내용 확인(문답 학습)</li> <li>▶학습 목표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준비</li> <li>▶교사의 질문에 답한다.</li> <li>▶학습 목표를 따라 읽는다</li> </ul>			
전개	전체 학습  조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목에서 연상되는 느낌과 자신의 체험을 발표시킨다.</li> <li>▶감정을 실어 낭송하게 한다.</li> <li>▶낭송 후, 시의 느낌과 분위기에 대해 발표시킨다.</li> <li>▶모듬별 조직(토의 과제 부여)</li> <li>·시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2개 모듬)</li> <li>·시적 상황 파악하기(2개 모듬)</li> <li>·시에 담긴 이야기 구조 파악하기(2개 모듬)</li> <li>·표현의 특성 파악하기(1개 모듬)</li> <li>·작가와 시대 상황 파악하기(1개 모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승에 대해 상상해 보고 생각나는 것을 발표한다.</li> <li>▶최대한 느낌을 살려 낭송한다.</li> <li>▶읽으면서 인상 깊은 단어, 어구에 밑줄을 치고 자신의 첫 느낌을 이야기한다.</li> <li>▶모듬별로 토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조성</li> <li>·모듬별 역할 분담(주제별 선택)</li> <li>·소외된 학생이 없</li> </ul>		

		▶여러 사람의 생각이 하나의 주제로 통합되는 가치를 이야기한다.		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전체 학습	▶정리 ▶차시 예고(모둠별 주제에 대한 토의와 발표) ▶과제 제시 -모둠에서 1개~2개의 항목을 선택하거나 각각의 대안 탐색을 한다.	▶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인지한다.  ▶과제를 공책에 기록한다.	

]

단원	6. 노래의 아름다움. 여승		차시	2/3	대상	고1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구성 요소와 기능을 이해한다.</li> <li>·시 속에 담긴 당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li> <li>·시와 이야기를 비교하여 시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다.</li> <li>·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li> </ul>						
학습 자료	개별 학습지						
단계	학습 흐름	교수-학습 활동(내용)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분위기 조성</li> <li>▶선수 학습 연계 및 과제 확인</li> <li>▶전시 학습 내용 확인(문답 학습)</li> <li>▶학습 목표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준비</li> <li>▶과제를 다시 읽어본다.</li> <li>▶전 수업을 떠올리며 교사의 질문에 답한다.</li> <li>▶학습 목표를 따라 읽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의할 때의 유의점을 알려준 후, 토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 준비 상황을 확인.</li> <li>▶토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li> <li>-정답을 강요하지 말고 학습자 스스로가 느끼고 해석한 생각을 존중한다.</li> <li>·시에 담긴 이야기 구조 파악하기</li> <li>-이야기 구조도 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토의 속에 찾을 수 있게 한다.</li> <li>·시적 상황 파악하기</li> <li>-시적 화자와 서정적 주인공이 혼동되지 않게 주의를 주고 상상력을 가미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적인 자세로 토의에 임한다.</li> <li>▶유의점에 유념하여 토의를 준비하고 자료를 확인한다.</li> <li>·문맥을 고려하여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한다.</li> <li>·시 속에 이야기 구조를 찾고 시와 이야기를 비교하여 시만의 특징과 아름다움에 대해 토의한다. 재구성한 이야기에 자신의 풍부한 상상력을 가미하여 각자 발표해 보고 평가한다.</li> <li>·시적 화자나 여승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삶의 여정에 나름의 상상력을 펼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li> <li>· 소외된 학생이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전개	조별 학습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현의 특징 파악하기</li> <li>-시가 가지는 구성 요소와 기능을 이해할 수 있게 운율과 시상, 비유를 찾게 하고 놓친 부분은 교사가 질문을 던져 공동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li> <li>·작가와 시대 상황 파악하기</li> <li>-일화를 소개하여 작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li> <li>-모둠을 통해 조사하게 한 다음 간략하게 교사가 정보를 제시한다.</li> <li>▶토의 결과 발표</li> <li>-서로의 견해를 발표하고 경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듣기 활동에 대해 조절하게 함으로써 듣기 목표의 달성을 도모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표하고 각자의 생각을 서로 경청한다.</li> <li>·운율, 시상, 비유를 시속에서 찾고 이러한 표현의 특징들이 어떤 효과를 주는 지 토의해 본다.</li> <li>·간략한 조사 정도만 하고 교사의 강의를 경청한다.</li> <li>▶모듬별 발표자는 토의 결과를 발표한다.</li> <li>▶자신의 답과 다른 답은 메모한다.</li> <li>▶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 응답을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동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분위기를 조성</li> </ul>
정리	전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의 내용 정리 및 평가</li> <li>▶차시 예고(확장된 모듬별 과제 제시)</li> <li>▶과제 제시</li> <li>-시적 상황을 산문으로 표현하기</li> <li>-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li> <li>-대체시 찾아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인지한다.</li> <li>▶과제를 공책에 기록한다.</li> </ul>	

⇒한 차시 안에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몇 개의 주제는 교사의 강의로 대체하여 문답식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

단원	6. 노래의 아름다움. 여승		차시	3/3	대상	고1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자신의 언어로 발표할 수 있다.</li> <li>·시적 상황을 산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li>·작품에서 받은 감동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li> </ul>						
학습자료	개별 학습지, OHP						
단계	학습흐름	교수-학습 활동(내용)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전체인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분위기 조성</li> <li>▶선수 학습 연계 및 과제 확인</li> <li>▶전시 학습 내용 확인(문답 학습)</li> <li>▶학습 목표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 준비</li> <li>▶과제를 다시 읽어 본다.</li> <li>▶전 수업을 떠올리며 교사의 질문에 답한다.</li> <li>▶학습 목표를 따라 읽는다.</li> </ul>				
전개	조별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의 단계</li> <li>·자신과 관련지어 시에 대한 종합적 감상을 발표하기</li> <li>-시에서 받은 감동, 시적 자아와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 등을 모둠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한다.</li> <li>·시적 상황을 산문으로 표현하기</li> <li>-미리 제시된 과제물을 돌려보면서 처음 읽으며 느꼈던 생각과 달리 객관화하여 재해석된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li> <li>·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li> <li>-활자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게 하고 짧은 감상을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게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에서 받은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남의 의견도 경청한다. 시 속에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해 본다.</li> <li>·서로의 과제물을 돌려보며 나와 다른 부분은 질문하고 처음 생각과 무엇이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본다.</li> <li>·서로 과제물을 돌려보면서 왜 이런 그림으로 형상화했는지 질문하고 서로의 감상을 나누면서 시에 대한 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외된 학생들이 없게 한다.</li> <li>·상호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li> <li>·자신의 감상과 아이디어, 작품의 수용 과정을 솔직히 표출하게 하고 듣는 학생들도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 조성</li> </ul>			

	전 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체시 감상하기</li> <li>-학생들이 미리 찾아온 시를 감상하여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킨다.</li> <li>▶발표 단계</li> <li>·시에서 받은 감동, 시적 자아와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하게 한다.</li> <li>·모둠별로 산문화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li> <li>·OHP를 사용하여 그림을 감상하게 하고 그림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들어 본다.</li> <li>·대체시는 모둠의 발표가 끝난 뒤, 교사가 정리해 주는 식으로 한다.</li> </ul>	<p>해를 심화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찾아온 대체시를 감상하고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특히 작가의 다른 시들을 통해 더 깊이 작품을 이해한다.</li> <li>·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자신의 느낌과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본다.</li> <li>·모둠에서 논의된 것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질문하고 발표자는 성실하게 응답한다.</li> <li>·발표자들의 그림들을 감상하며 다른 이들의 생각을 나의 생각과 비교해 본다.</li> <li>·발표된 대체시가 어떤 점에서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고 작가의 특성을 이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을 칭찬한다.</li> <li>·OHP 활용</li> </ul>
정리	전 체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의 내용 정리 및 평가</li> <li>▶차시 예고</li> <li>▶과제 제시(작품의 내면화를 위한 과제 제시)</li> <li>-만화로 그려 보기</li> <li>-재진술된 이야기를 소설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인지한다.</li> <li>▶과제를 공책에 기록한다.</li> </ul>	

		쓰기(2~3주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수행 과제로 제시)		
--	--	-----------------------------------	--	--

## V. 결론

백석은 1930년대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재북 시인이라는 이유로 현대시 교육에서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납북·월북 문학인들의 문학 작품 해금 조치 이후 비로소 그 중요성이 인정받기 시작하여 6차 교육 과정의 교재에 수록되기에 이른다.

백석은 당대 어느 유파나 동인에도 가담하지 않고 독자적인 시 세계를 구축하는데 그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서사양식의 도입이다. 이는 다른 장르에 비하여 주관적인 정서의 표현을 강조하는 서정시의 틀 안에서는 당대의 암울하고 복잡한 상황을 형상화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실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시화하기 위한 형상화 방법 중의 하나로 서사 지향성, 즉 이야기나 사건의 도입을 통해 서정시의 개념을 확장하고 서정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백석시의 특징은 학생들이 문학 교육을 통해 그 사회의 문화에 입문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갖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서술시라는 생소한 양식을 접하면서 현대시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II장에서는 ‘서사시, 서술시, 이야기시, 장시’ 등으로 지칭되는 서사성 강조의 시에 대한 개념을 두루 살펴보면서 서술시의 자리를 매김하고 나아가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서술 양식의 다양한 변용에 대해 알아 보았다. 여기에서 서술시는 이야기나 사건의 내용이 서술적 구조를 통해 형상화된 시로 기본적으로 서정시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한 방법이다. 즉 서정시 영역의 확장으로, 시 속에 들어 있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전달 소통되는 과정을 포괄하는 ‘서술시’라는 명칭이 올바른 자리매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의 시가 기존의 서정시의 양식으로부터 벗어나 빠르게 서술화되고, 나아가 서술 자체가 파편화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서

술시라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코드로 밖에는 규정되어지지 않는다.

Ⅲ장에서는 백석 서술시의 실재를 작품 분석을 통하여 조명하였다. 1절 ‘서술시의 의의’에서는 전통의 계승과 창조, 모더니즘의 수용과 변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전통의 계승과 창조의 측면에서 보자면, 백석은 고유하게 내려오는 우리의 풍습이나 풍물을 그의 시 속에 담아내어 보존하려 했으며 특히 음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을 복원하려 했다. 또한 작품의 제재만 토속적인 것이 아니라 서술 기법인 엮음 방식을 계승하여 구문에서 빚어지는 가락까지도 향토적인 것을 차용하여 민요나 사설 시조, 판소리의 표현 방식과 서술 방식을 계승하여 변용·발전시키고 있다.

모더니즘의 수용과 변용에서는 당대 풍미했던 모더니즘의 조류 중 이미지즘을 흡수하면서도 방언과 서사성의 도입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토속적 고향의 세계를 전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의 시편에서 이미지 기법은 단순히 시적 분위기를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적 배경과 인물의 행위를 서술하는데 적절히 활용되어 모더니즘을 우리 토양에 맞게 변용한 독특한 시 세계를 보여준다.

2절 서술시의 형상화 양상에서는 객관적 현실 반영과 민중적 삶의 복원이라는 두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먼저 백석 시에 있어 서사성의 도입은 일제 강점기의 민족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시켜 독자를 당대의 구체적 비극성 속에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피폐한 삶의 양식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定州城」에서와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속에 민중적 삶의 건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夕陽」의 북관 장날 풍경은 서북인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삶을 통해 민족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한다. 민중적 삶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여지는 ‘고향 재현’의 시편들은 일제 강점기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의도된 시적 태도이다. 그의 시

세계 속에는 고향의 다양한 풍물들이 그려져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양식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 반민족적인 것들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조국 상실에 따른 민중적 삶의 원형을 회복하고 복원하고자 하는 시 정신이다. 특히 노큰마니와 같은 이 땅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여인을 통해 당대 가족 해체로 야기되는 비극적 삶의 양상과 목구라는 대상을 통해 역사적 단절이 가져온 당대의 비극적 삶의 양상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백석 시에 자주 등장하는 국수라는 소박한 음식을 통해 민중적 삶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따뜻한 고향을 재현한다.

3절 서술시의 서사적 구성요소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 대화를 통해 전통적 풍속과 고향, 그리고 당대의 삶을 객관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첫째, 배경에서는 시라는 장르 특성상 배경의 기능이 이야기의 분위기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 작품을 분석하였다. 「定州城」에서는 황폐화된 배경을 제시하여 흥경래 난의 격전지였던 정주성에 대한 허망함과 무상성을 강조하고 있다. 「旌門村」에서도 정문 글씨를 한문으로 그대로 옮겨 정문의 사실감을 극대화하여 정문 자체의 무관심과 훼손을 통해 가치관 상실을 암시한다. 「女僧」, 「八院」에서는 당대의 비극적 현실이 잘 드러난 배경이고 「古夜」는 유년 화자의 무서움을 공간적 배경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둘째, 인물에서는 세 가지 유형의 인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당대의 부정적 현실에 희생당하는 우리 민족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인물과 토속적이고 서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아버지로 표상되는 따뜻하고 자애로운 인물형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셋째, 이야기에 사건이 가장 본질적 요소가 됨을 전제한다. 백석은 그의 시에서 사건을 진술함에 있어 시간을 변조시킨 회상 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女僧」, 「八院」, 「가즈랑집」에서 각각 회상의 시간이나 과거 속에 또

다른 과거를 담아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간 변조를 통해 대상과의 적절한 거리를 두고 화자의 감정을 통제하여 독자를 당대 현실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넷째, 대화는 백석의 이야기 형식의 시에 자주 등장한다. 이는 주로 작중 인물의 행위라는 점에서 사건적 요소로 넣을 수 있는데 소위 보여주기를 통해 사건을 극화함으로써 사실감을 높이고 단조로움을 극복하려는 의도적 장치이다.

IV장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 즉 현장 중심·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개편되기에 이르렀지만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따르지 못하여 교사가 기존의 교육 방법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학습 지도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하여 학생 중심의 발표·토론식 수업으로 전환하는 데 적합한 지도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 방안으로 ‘(1)전체적 접근, (2)부분적 접근, (3)종합적 접근, (4)발전적 접근’으로 세분하여 텍스트에 대한 느낌 형성, 해석, 의미 확장, 내면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큰 틀을 중심으로 7차 국어과 교과서에 실린 백석의 「女僧」을 제재로 삼아, 재진술된 이야기와 시로 정제된 서술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시의 본질을 재인식하게 하고 나아가 이야기의 구조가 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매체인 만화로 시의 세계를 재창조하게 하고 재진술된 이야기를 소설로 쓰게 함으로써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교수-학습 방안은 시 교육의 어느 정도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실제 수업 현장에서의 적절성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보안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백석 서술시에 대한 이같은 교수-학습 방안은 기존의 학문적 연구 결과의 성과들을 토대로 학습자 중심의 7차 교육과정 편성에 걸맞는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고찰하는 데 그 의의를 지닌다.

## 참고 문헌

### 1. 기본 자료

- 이동순 편, 『백석시전집』, 창작과비평사, 1987.
- 송 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세계 최고 시인 백석 일대기1』, 지나, 1994.
- 송 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세계 최고 시인 백석 일대기2』, 지나, 1994.
- 김자야, 『내 사랑 백석』, 문학동네, 1995.
- 김재용, 『백석전집』, 실천문학사, 1997.
- 시와 사회편, 『백석시집-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시와 사회, 1997.
- 시와 사회편, 『백석동화시집-집게네 형제』, 시와 사회, 1997.
- 교육인적자원부, 『국어(상) 교사용 지도서』, 두산 출판사, 2002.

### 2. 단행본

- 강만길, 『한국 현대사』, 창작과비평사, 1984.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76.
- 김대행 편, 『우리 시의 틀』, 문비신서, 1989.
- 김병오,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한울, 1990.
- 김용직, 『한국근대문학시론』, 한길사, 1982.
- 김용직, 『한국현대시해석비판』, 시와사학사, 1991.
- 김자야, 『내 사랑 백석』, 문학동네, 1995.

- 김재용, 『백석전집』, 실천문학사, 1997.
- 김준오,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 김준오, 『시론』, 삼지원, 1996.
- 김준오, 『한국 서술시의 서사학』, 태학사, 1998.
- 김창원, 『시 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김현선, 『한국현대시인연구』, 신아, 1988.
- 동아출판사출판부, 『원색세계대백과사전』, 동아출판사, 1989.
- 문덕수, 『한국 모더니즘시 연구』, 시문학사, 1981.
- 박덕근, 『해금작가 작품론』, 새문사, 1992.
- 박용철, 『박용철전집2』, 동광당서점, 1940.
- 박주택, 『낙원 회복의 꿈과 민족 정서의 복원-백석 시연구』, 시와시학사, 1999.
- 백 철, 『신문학사조사』, 신구문화사, 1989.
- 송 준, 『남신의주 유동박시봉방-세계 최고 시인 백석 일대기1』, 지나, 1994.
- 송 준, 『남신의주 유동박시봉방-세계 최고 시인 백석 일대기2』, 지나, 1994.
- 시와 사회편, 『백석시집-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시와 사회, 1997.
- 시와 사회편, 『백석 동화시집-집게네 형제』, 시와 사회, 1997.
-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7.
- 윤여탁, 『리얼리즘의 시 정신과 시교육』, 소명출판, 2003.
- 윤여탁, 『리얼리즘시의 이론과 실제』, 태학사, 1994.
- 윤여탁, 『시의 논리와 서정시의 역사』, 태학사, 1995.
- 이승원, 『한국 시문학의 비평적 탐구』, 삼지원, 1985.
- 이승원, 『현대시와 삶의 지평』, 시와시학사, 1993.
- 이 탄, 『한국의 대표시인론』, 문학아카데미, 1995.

- 임재해, 『민속문화론』, 문학과지성사, 1986.
- 임현영, 『民族의 狀況과 文學思想』, 한길사, 1986.
- 장도준, 『한국 현대시의 전통과 새로움』, 새미, 1998.
- 정정호, 『포스트시대의 영미문학』, 열음사, 1992.
- 정효구 편, 『백석』, 문학세계사, 1996.
- 채수영, 『한국현대시의 색채의식연구』, 집문당, 1987.
- 최두석, 『리얼리즘시정신』, 실천문학사, 1992.
- 한국정신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한국정신문화대백과사전편찬부,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 3. 논문 및 평론

- 고형진, 「白石詩 研究」,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 곽봉재, 「金素月·白石 詩의 비교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김기림, 「『사슴』을 안고」, 『조선일보』, 1936. 1. 29.
- 김명인, 「백석시고」, 『우보 전병두박사화갑 기념논문집』, 1983.(고형진편, 『백석』, 새미, 1996.)에 재수록.
- 김미수, 「한국현대시에서 방언쓰임새의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김순화, 「고등학교 시창작 지도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송영, 「시의 서사적 읽기를 통한 상상력 향상 방안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영경, 「白石詩 研究-식민지 현실과 그 시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영민, 「백석론」, 『한국문학연구총서 15』, 문학과 비평사, 1990.
- 김요안, 「백석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김용직, 「근대 서사시의 형성과 그 성격」, 『한국근대문학시론』, 한길사, 1982.
- 김우창, 「신동엽의 ‘금강’에 대하여」, 『창작과비평』, 1968. 봄호.
- 김은영, 「백석시 연구」, 국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김은자, 「백석시 연구」, 『한림대학교 논문집 8호』, 1990.
- 김재홍, 「민족적 삶의 원형과 운명애의 진실미-백석」, 『한국문학』, 1989. 10월호.
- 김점용, 「백석시의 내면의식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재홍, 「한국근대서사시와 역사적 대응력」, 『문예중앙』, 1985. 가을호.
- 김종철, 「30년대 시인들」, 『시와 역사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78.
- 김준오, 「한국 현대시, 어디까지 왔나」, 『시와 사상』, 1995. 봄호.
- 김현선, 「한국시가의 위음과 백석시의 변용」, 『한국현대시인연구』, 신아, 1988.
- 김홍기, 「국학논총어문연구」, 한양대학교 국학 연구원, 1980.
- 박태일, 「백석시의 공간의식」, 『국어국문학 21집』,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1983.
- 염무웅, 「서사시의 가능성과 문제점」, 『한국문학의 현단계』, 창작과비평사, 1992.
- 오세영, 「국경의 밤과 서사시의 문제」, 『국어국문학 75호』, 1977.

- 오장환, 「백석론」, 『풍림 5호』, 풍림사, 1937. 4.(최두석편, 『오장환전집 2』, 창작과비평사, 1989. 재수록.)
- 유종호, 「한국 폐시미즘」, 『현대문학』, 1961. 9.
- 유태수, 「1940년대 전후의 시정신과 그 형상화」, 『관악어문연구 제4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9.
- 육석우, 「한국 현대 서술시의 담화 특성 연구」,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윤근우, 「시교육 방법론-학습자 중심의 시교육」,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윤여탁, 「시의 서술구조와 시적 화자의 기능」, 『시와 리얼리즘 論爭』, 소명출판, 2001.
- 이동순, 「민족시인 백석의 주체적 시정신」, 『백석시전집』, 창작과비평사, 1987.
- 이승원, 「『문장』 지 시에 나타난 고향의식 시고」, 『국어교육 36 호』, 1980.
- 이승원, 「풍속의 시화와 놀변의 미학」, 『한국시문학의 비평적 탐구』, 삼지원, 1985.
- 이은봉, 「백석시의 표현방법에 관한 일고찰」, 『송실어문 5집』, 송실어문연구회, 1988.
- 이지은, 「백석시의 층위별 교수-학습방법 연구」, 부산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 탄, 「백석론」, 『한국의 대표 시인론』, 문학아카데미, 1994.
- 정이진, 「백석시의 특성과 그 영향-표현기법을 중심으로」, 인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천수진, 「학습자 중심 현대시 지도 방안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최두석, 「백석의 시세계와 창작방법」, 『우리 시대의 문학 제6집』, 문학과지성사, 1987.

최연대,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과서 현대시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최인순, 「학습자 중심 시 교육 방안-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최종민, 「시교육의 방법론 연구-시교육 모형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01.

황병하, 「라틴아메리카의 이야기시」, 『시와 사상』, 1996. 여름호.

#### 4. 역서 및 외서

권영택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김근식 역, 『도스토예브스키 시학』, 정음사, 1988.

김치수 편역,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1980.

김태욱 역, 『운유와 실제』, 문학과지성사, 1991.

이춘길 편역, 『리얼리즘미학의 기초이론』, 한길사, 1985.

진중권 역, 『미학강의 2』, 새길, 1991.

Seymour, Chatman, Story and Discourse-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 『이야기와 談論』, 고려원, 1990.

## ABSTRACT

###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narrative poetry of “Baek Seok”

Kim, Eu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it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Myong Seok , Doctor of Literature

In this paper, I want to suggest the method of particular teaching in “Baek Seok”’s narrative poetry which is appropriate to the 7th educational process, based on the on-the-spot surveys and the learners, including the various results of surveys of “Baek Seok”. There are not a few modern poems that seem to have a purposed deviation from the elements and customs traditionally considered as the important elements of poetry. Especially, in recent poetry,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a narrative pattern which extensively appears ranging from human language and the behaviors to the customs is not the possession of fiction but the frame of knowledge which makes a public disclosure of the hidden meanings of poetry. Consuming the discussions like this, this paper intends to make learners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essential meanings of poetry by introducing such a narrative pattern , one of the particular features of “Baek Seok”, and ; moreover it intends to make learners can understand that the structure of a story can be a way to express the beauty of poetry.

First of all, we discussed the narrative poetry in which the contents of a story or

an incident are formalized by its narrative structure, and at the same time basically we discussed it as a way to embody the beauty of narrative poetry and ;furthermore we examined the various use of the narrative patterns which appear in Korean poetry.

In reality of narrative poetry of “Baek Seok“, we approached it by its structure, dividing into its definition, some aspects of formalization and narrative elements. “Baek Seok“ lived only in his own world of poetry and didn’t take part in any association or institution, and one of his distinctive features is the introduction to narrative poetry. His poetry encouraged our nation to recover its consciousness and established the historical subjecthood by recovering the archetype of our nation. This results from a recognition that there is a further limit to formalizing the depressed and complicated situations in terms of the lyre that emphasizes the expressions of subjective and emotional feelings, compared to another genre. Narration-oriented poetry - that means one of the best ways to formalize and poetize some interesting things of a real world and it suggest a new possibility successfully, extending the meaning of the lyre through the development and the introduction of a story or an incident. Such a feature of “Baek Seok“ will make a role that prompt the learners to enter the culture of their society through literary education and have their own cultural identity.

In the method of teaching -study of learning, I tried to seek many ways to have more imagination and originality based on the educational process which emphasize the on-the-spot surveys and the learners, adjusting to the 7th educational process.

I also discussed the ways of specified teaching by which learners can be interested in poetry and appreciate it, that is , the way of teaching which fits in changing into classes of a student-based presentation and a hot discussion, not the classes of a teacher-oriented speech. Concretely I divided it into four parts in detail - (general approach, partial approach, synthetic approach, and developmental approach) so that I can find the way of teaching-learning which can approach the formation of feelings, interpretation, extension of meanings and internalization in the text. As a result, learning readers who accept a work in their mind can also have an internal active power and develop another schema about their life. In such a big

frame, I tried to compare ' narrative poetry' refined with poetry with a restated story , taking " Yeo Seung" written by "Baek Seok" as a kind of theme that appeared in the 7th Korean text. This process will make the learners take another view of the essence of poetry and ; in addition; they will understand that the structure of a story can be a way of expressing the beauty of poetry. I also tried to make it realize to have more originality and imagination which is one of the purposes of literary education by fictionalizing a restated story and by recreating the world of poetry through another medium-that is -cartoons.